금주의 법구-〈견의경〉
선을 심으면 복을 얻고
악을 심으면 재앙을 얻는다.
마음 올바르면 복은 스스로 온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12월 14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30호 2017년 1월 11일 수요일

"여법한 사면으로 대화합 열겠다"

조계종, 3일 신년하례서 멸빈자 대사면 예고 주목


조계종은 1월 3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종정 진제 스님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멸빈자 사면을 예고했다.

종헌 · 종법상 구제방안 없어
'종단화합특별법' 제정 논의
이르면 3월 중앙종회 발의
종헌과의 상충 해결법 찾나

종도 공의 · 적법한 절차 필요
"대중 정서 이해가 우선돼야"

조계종 신년하례가 이례적으로 조계사에서 봉행됐다. 이 자리서 종정 진제 스님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멸빈자에 대한 대사면을 예고해 눈길을 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월 3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서 '불기2561(2017)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하고, 전통불교의 식인 통알을 하며 삼보전에 3배를 올렸다. 신년하례에는 원로의원 스님들을 비롯해 각 교구본사주지 · 중앙종회의원 ·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 등 3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종정 진제 스님은 신년교시를 통해 종단이 올해 멸빈자들에 대한 사면에 나서 줄 것을 우회적으로 제안했다.

스님은 "우리 승가에 함께 수행했던 소외된 도반들도 다 같은 일불제자(一佛弟子)다. 부처님 재세 시에도 승가의 여법한 화합을 위해 이해와 용서하는 불은(佛恩)을 베푸셨다. 이제는 애민섭수(哀愍攝受)해 불교중흥의 대장정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었지만 진제 스님은 2015년 6월 멸빈된 서의현 前 총무원장에 대한 재심호계원의 '공권정지 3년' 판결에도 비슷한 교시를 내린 바 있다.

이어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인사말서 "종정예하 가르침을 성심으로 받들겠다. 종헌종법에 입각한 여법한 사면을 통해 대화합의 길을 열고, 종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뜻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대사면 의지를 밝혔다. 스님은 지난해 8월 열린 원로회의서도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대사면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올해 1994년 종단개혁으로 인한 멸빈자 사면이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를 위해 현재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는 94년 멸빈자 사면 등의 내용을 담은 '종단화합조치특별법' 제정을 논의 중이다. 오는 3월 중앙종회 임시회 발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종헌종법특위 간사 성화 스님은 "아직까지 특위에서 법안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못했지만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사면이 이뤄지려면 3월 임시회에 발의해야 한다. 법안 논의에 속도를 더 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앞서 사부대중위원회 94년 멸빈처리분과가 선정한 멸빈대상자는 서의현 · 임원두 · 정보일 · 김무성 · 김종원 · 황진경 등 6명이다. 재산상 비위 등으로 멸빈된 2인과 입적한 1인은 제외됐다.

특히 현행 종헌종법상 멸빈자 구제방안이 없는 만큼 어떤 결과물이 도출될지도 세간의 관심사다. 종헌 128조에는 '징계를 사면, 경감 또는 복권시킬 수 있다. 다만,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2006년, 1998년 종단사태로 멸빈된 스님들이 특별법을 통해 사면복권 된 사례는 있으나 이는 종권을 둘러싼 분규에 의한 정치적 보복 성향이 짙다는 견해와 징계 근거인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법 효력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 큰 갈등 없이 진행됐다.

하지만 1994년 개혁은 한국불교 현대사의 획을 그은 종단개혁이라는 정서가 작용하기 때문에 98년 종단사태와는 종도들이 느끼는 의식에 차이가 크다. 2015년 '서의현 재심파동'은 현재 침잠된 상태일 뿐 논란이 종식되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대해 출 · 재가 단체들은 '종도 공의'와 '적법한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대표 일문 스님은 "법도 사람을 위해 있듯이 종도들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15년 당시 종단이 경솔했던 부분을 되새겨 절차를 잘 지킨다면 사면을 반대하고 싶지 않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94년 개혁 활동가들이 모여 조직한 신대승네트워크의 박재현 협업미래센터소장은 "시간을 갖더라도 종단이 성숙하고 대중이 용서하고 품을 수 있겠다는 공의를 모으는 것이 순서"라면서 "당사자의 참회와 종헌종법을 개정하는 등 절차를 밟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증도가자' 논란, 새해엔 마무리되나

문화재청, 분석 공개… 13일까지 의견 받아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 논란이 새해에는 종식될 수 있을까.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구랍 30일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조사 중인 고려금속활자(증도가자)의 분석 결과를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했다.

문화재청은 "국민들에게 유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의견개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그 동안 분석된 증도가자 관련 모든 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도가자는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를 인출하는 데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금속활자다. 〈남명천화상송증도가〉는 현재 금속활자본은 전해지지 않고, 다만 1239년에 이를 목판에 새겨서 찍어낸 복각본(목판에 다시 새겨서 찍어낸 책)이 전해지기 때문에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증도가자는 1377년 간행된 금속활자본인 '직지'보다도 최소 138년은 앞서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가 된다.

증도가자는 2011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 이후 진위를 비롯한 찬반 논란이 거듭되다가 2015년 문화재위원회 논의를 거쳐 같은 해 6월 '고려금속활자 지정조사단'이 구성돼 지금까지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당초 마련된 지정조사 계획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서 분석한 결과를 비롯해 주조 · 조판 실험결과, 취득경위 관계자료와 그간의 경과자료 등이다.

분석 결과는 문화재청 누리집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1월 13일까지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분석 결과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의견 개진 기간에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추후 공동 설명회를 가질 것"이라며 "이번 공개검증을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이를 반영해 신중하게 지정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2017 현대불교 '확' 달라집니다



섹션 신설로 독자 욕구 충족

본지는 섹션 'Mandala'을 신설해 고정으로 운영합니다. 섹션에는 불교를 통해 세상을 밝히는 사부대중의 이야기를 담은 와이드인터뷰와 수행과 세계 사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연재와 출판, 문화 그리고 가족이 함께 읽을 수 있는 다양한 내용으로 꾸며집니다.

'Fact Check Q&A' 신설

현대는 정보 홍수의 시대입니다. 올바른 정보를 선취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에 기반한 뉴스는 어느 때보다 올바른 '팩트'가 필요합니다. 월 1회 불교계 이슈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합니다.

다양한 연재로 읽을거리 확대

본지는 섹션을 신설하며 문화재, 명상 · 수행, 기행 전문가들의 전문 연재를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 제호들에게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합니다.

윤범모 교수의 '佛道 기행'



윤범모 가천대 명예교수가 부다가야에서 토함산까지 여정에서 만난 성보들을 깨달음의 미학으로 해석한 고품격 연재.

강소연 교수의 '불화 속 스토리텔링'



〈사찰불화 명작강의〉 저자 강소연 중앙승가대 교수가 불화 속에 담긴 경전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전합니다.

박원자 작가의 '인생을 바꾼 108배'



본지 신행일기를 보고 발심, 매일 1080배를 해온 박원자 작가가 만난 108배 수행 행자들의 수행 일화를 풀어냅니다.

김성우의 '念佛覺者列傳'



김성우 수행전문작가가 염불의 역사부터 관련 고승의 일화, 구도과정을 정토적 관점에서 전합니다.

정상교의 '꼿으로 본 세상만사'



〈도쿄대학 불교학과〉 저자 정상교 박사가 자신의 전공인 '중관'으로 바라본 세상을 이야기 합니다.

송마나의 '사유의 숲을 거닐며'



송마나 작가의 글은 사유의 힘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불교적 사유의 단상과 우리네 삶의 이야기들.

고원영의 '저 절로 가는 길'



국토 전체가 순례길이라고 여기며 8년을 답사 중인 고원영 조계종 산악회 부회장이 소개하는 사찰로 가는 길.

'간사이 아줌마'의 일본사찰 엿보기



한국을 너무 사랑하는 간사이 아줌마 나카노 요코가 전하는 일본 간사이 지역 불교와 사찰의 숨겨진 매력들.

박태수의 '명상은 세상과의 소통'



박태수 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의 명상학 총론. 직접 체험을 통한 명상 상담사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신현득 작가의 '동화 팔만대장경'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듯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이야기 〈팔만대장경〉이 펼쳐집니다.



조계종 신도등록사업 개편 추진

평생신도제, 신도조직 활성화 돌파구 될까

新 신도 2만 여 명으로 급감
신도증가에도 교무금은 답보
사찰신도 종단신도화 고심
중앙신도회 등 긍정적 반응

"조계종 사찰에는 다니지만 그동안 '종도'라는 생각을 갖고 있진 않았어요. 종도로서 교무금을 내면 멤버십 혜택이 있다곤 하지만 납부가 귀찮기도 하고요." (서울 불광동 임○○ 씨)

조계종이 정체된 신도등록 사업의 전면 개편을 추진 중이다. 조계종 '평생신도' 제도가 그것이다. 조계종 포교원에서 준비 중인 '종단 신도조직과 신도등록사업 발전 방안'에 따르면 현재 신도의무인 교무금 연납은 일괄납부로 바뀌며 사찰과 종단의 교무금 배분도 종단 수입으로 일원화된다. 사찰의 신도등록 참여가 저조하다는 판단과 신도조직 활성화 차원에서 신도등록 업무도 중앙신도회를 비롯한 각 신도회가 담당하며 대신 교무금 재원 일부를 신도회가 사용하는 것이 모색되고 있다.

'신도조직 활성화' 동력 마련 고심

이 같은 신도등록 사업 개편 방침은 먼저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가 구랍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2016수도권 교구신도회 간담회서 공개됐다.

이날 간담회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불자인구가 300여만 명 감소했다는 내용이 알려진 직후 열린 만큼 '신도조직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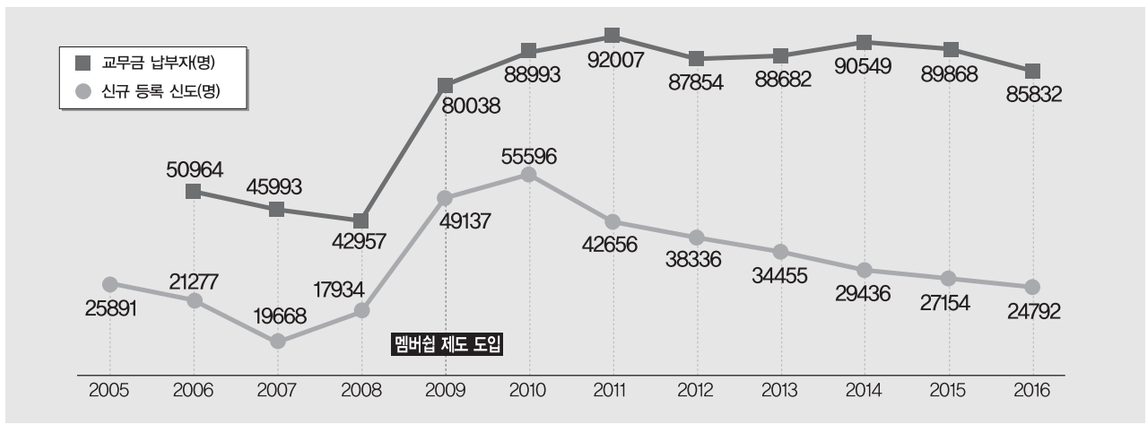
특히 조계종 포교원은 '평생신도 및 통합신도증 도입'이란 방안을 내놨다. 발제자로 나선 김상기 조계종 포교원 포교차장은 "매년 내야 하는 교무금 납부의 불편함을 감소시키고, 신도회 등을 신도관리 업무 및 재원활용에 포함시켜 신도조직 활성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이 제도 추진 배경을 밝혔다.

매년 감소 신규 신도가 원인

포교원의 '평생신도' 제도 추진은 매년 감소하는 신규 신도 등록과 저조한 교무금 납부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서 '신도'는 조계종이 사찰의 신도와 별개로 종단 신도로 관리하는 것을 칭한다. 조계종 신도는 매년 1회 교무금 1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조계종의 '신도 등록'은 1995년 실시된 이후 1996년 6만여 명을 기점으로 가입이 지속 감소해 2008년 1만7900여 명에 그치기도 했다.

감소하는 조계종 신규 신도&답보상태인 교무금 납부 신도



조계종 포교원이 2009년 '멤버십'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입자가 4만9000여 명으로 대폭 증가했지만 2010년 5만5600여명을 기점으로 다시 감소세로 전환, 현재 멤버십 도입 이전인 2만5000여 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표: 2011년 4만2600여명, 2012년 3만8300여명, 2013년 3만4400여명, 2014년 2만9400여명, 2015년 2만7100여명, 2016년 2만5000여명)

신규 가입뿐만 아니라 기존 신도의 교무금 납부 이행도 지지부진하다. 포교원 자료에 따르면 교무금 납부 신도는 2008년 2만5000여명에서 2009년 3만900여명, 2010년 3만3400여명, 2011년 4만9400여명, 2012년 4만9500여명, 2013년 5만4200여명, 2014년 6만1100여명, 2015년 6만2700여 명으로 매년 2만 명 넘게 신규 신도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이행률은 바닥 수준이다. 교무금 납부 신도로만 보면 대형사찰 1곳에 등록된 신도 수보다도 적은 수치다.

이동선 포교원 교화팀장은 "현재 멤버십은 문화재관람료 사찰 무료입장, 한방병원 진료할인 등에 국한돼 유지되고 있다. 신용카드 혜택에 비해 미약한 조계종 멤버십을 통한 유인이 한계에 달했다는 내부 분석"이라고 말했다.

각 사찰신도회와 신도등록 업무 공유

사찰 신도를 종단 신도로 끌어 안는 작업이 더딘 것은 사찰 측의 적극적인 동참이 부족했던 것도 한 요인이다.

조계종 포교원이 2015년 교무금 납부 사찰 118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0명 미만이 교무금을 납부하는 사찰은 1073곳에 달했다. 3천명 이상이 교무금을 납부하는 사찰은 단 2곳에 불과했다.

김상기 포교차장은 간담회에서 "소규모 사찰의 경우 사찰 인원에 비해 종단 측과의 배분과 관련한 행정서류 제출 등 업무가 수입에 비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분담금 외에도 매년 납부하는 교무금이 준조세화 될 것이라는 사찰 측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종단 신도 확대를 위해 조계종 포교원은 먼저 종단 신도증 내 사찰 CI를 첨가하는 등 신도들의 사찰 소속감과 종단 소속감을 일치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사찰에서 기도 참여 시 부여하는 축원카드 번호도 표기하고 RF전산화로 기도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신도증 통합 작업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신도회를 중심으로 교구신도회나 사찰신도회가 신도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대신 교무금 일부를 신도회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반응은 긍정적이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장성원 행정지원팀장은 "신도회 차원에서도 권역별 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신도조직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신도들이 늘고 있는 만큼 제도 개편에 신도회 차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주요 종단, 새해 맞아 불교발전 서원

조계 · 태고 · 천태종
신년하례 및 시무식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들이 신년하례와 시무식 등을 통해 정유년 새해 불교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서원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불기2561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을 비롯한 각 기관 교역직 스님, 종무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인사말서 "매년 설계하는 신년계획이 구체적이고 실천적이지 않으면 과거만 되풀이하는 습관만 키우게 된다. 거창한 구호보다 구체적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차분히 돌아보고 내게 주어진 일, 오랫동안 해오던 일, 나아가 꼭 하고 싶은 일에 참된 마음으로 임한다면 그것이 곧 새로움이고 성공의 중요한 열쇠"라고 당부했다.


1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열린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시무식.

이어 종무원들은 성만제 종무원조합 위원장이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지혜와 신심으로 종단을 수행과 전법의 공동체로 만들어나가고, 모든 스님과 신도들을 부처님처럼 받들어 친절로 응대하며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태고종(총무원장 도산)은 3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3층 대불보전에서 '불기 2561년 시무식 및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원로회의 의장 덕화 스님을 비롯한 태고종 원로 스님들과 총무원 집행부, 중앙종회의장 및 종회의원 스님, 지방교구 종무원장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종정 혜초 스님은 원로의장 덕화 스님 대독을 통해 "수행자들은 인내와 끈기로 무장하고, 어느 한 순간도 헛된 마구니의 장난에 끌리지 말고 정진에 진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에 대한 뜻도 내비쳤다. 스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 종도 한명 한명이 직접 표를 행사해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종도들의 뜻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기에 중앙종회와 각 종무기관 협의를 거쳐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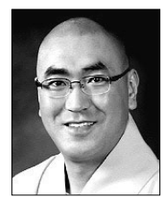
천태종(총무원장 춘광)은 4일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서 신년하례 및 시무식을 개최했다. 종정 도용 스님은 종단 소임자와 사부대중이 참여한 자리서 "크게 깨닫고 능히 자비하며 시절을 따라 중생을 교화함이 부처님 길이라. 불법은 세간에 있으니 이를 떠나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토끼의 뿔을 구하는 것과 같다"고 신년법어를 했다.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낡은 의식과 관습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혁신적인 변화를 모색해 시대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와 열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일 · 노덕현 · 윤호섭 기자

조계종 신임 포교부장에 가섭 스님

교육원 연수국장 무일 · 불학연구소 국장 범우 스님


가섭 스님


무일 스님


범우 스님

조계종 포교원과 교육원이 부 · 국장급 인사를 소폭 단행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1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포교원장실서 가섭 스님을 신임 포교부장으로 임명했다. 전임 포교부장 무각 스님은 최근 건강악화로 인해 한동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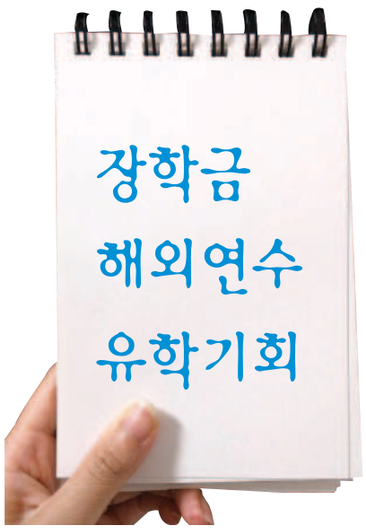
가섭 스님은 태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4년 사미계, 2001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안양암과 청용암 주지, 조계종 교육원 연수국장 · 교육국장,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총괄부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불교미래사회연구소장과 성남 한솔종합사회복지관장을 맡고 있다.

이에 앞서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2일 교육원장실서 신임 연수국장 무일 스님, 불학연구소 사무국장 범우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연수국장 무일 스님은 봉선사를 재적본사로 해 화암 스님을 은사로 1999년 수계하고, 해인사 승가대학 및 율학승가대학원을 졸업했다. 봉암사 태고선원, 서운암 무위선원에서 수행정진했으며 해인사 교무국장을 역임했다.

불학연구소 사무국장 범우 스님은 묘정 스님을 은사로 1991년 수계하고, 운문사 승가대학 졸업 후 동국대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동국대 교육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다. 종단에서는 2016년 교육원 불학연구소 상임연구원으로 재직했으며, 출가상담사 및 교육아사리로도 활동하고 있다. **신성민 · 노덕현 기자**





“우리 승가대학으로 오세요”

조계종 승가대학 · 대학원, 학인 모집 시작

다양한 특전으로 입학 독려
장학금 기본, 아이패드 지급
사찰음식 · 다도 등 자격증도
“교육 · 복지 질 높이는 효과”

조계종 전국 사찰 승가대학과 대학원이 학인 모집을 시작했다. 빠른 곳은 1월 중순경 마감과 면접이 진행되며, 대부분 3월 개강에 맞춰 전형 일정이 이뤄진다. 눈길을 끄는 것은 사찰 승가대학과 대학원이 다양한 특전을 내세워 학인 스님들의 입학을 독려하는 현상이다. 이는 최근 2~3년 사이 나타난 현상으로 올해에도 두드러진다.

사미니 승가대학은 대부분 구정 이전 학인 접수를 마감하고 면접시험 등을 진행한다. 봉녕사 승가대학(학장 도혜)은 1월 16일 원서를 마감하고, 17일 면접을 실시한다. 입학생에게는 묘엄불교문화재단 장학금 혜택을 비롯해 △사찰음식 강의 및 실습 이수 시 수료증 수여 △다도 강의 이수 시 다도 자격증 수여 등이 특전으로 주어진다.

16일 원서를 마감하는 운문사 승가대학(학장 일진)은 일본 하나조노대학 · 대학원, 북경 청화대락 인문계열 · 태국 국립 마하출라롱콘대학의 해외교류대학 · 대학원 입학을 특전으로 내세웠다. 또한, 2학년 수료 후에는 대만불교 연수와 4학년 학기 중에는 마하보디교육원 호스피스 교육이 진행된다.

동학사 승가대학(학장 보련) 역시 16일 원서를 마감하고 17일 면접고사를 본다. 동학사는 요가, 사군자, 서예 등을 특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입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 △입학금 면제 △전 학년 교재 제공 △졸업여행비 지원 △병원비 지원 △성지순례비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스마트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 청암사 승가대학(학장 지형)도 17일 면접을 진행한다. 전원 장학금과 아이패드가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태극권 관련 자격증도 취득이 가능하다. 전국 10여개의 사미 승가대학은 3월 개강에 맞춰 전형이 이뤄진다. 금정총림 범어사 승가대학(학장 용학)은 3월 22일까지 신입생을 모집하며, 전 학인 아이패드 및 전자책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특전을 제공하고 있다.

총림 등에 설치된 율학승가대학원을 비롯한 전문교육기관들도 신입생 모집에 들어갔다. 금정총림 범어사 율학승가대학원(원장 영명)은 2월 6일까지 원서 접수를 진행하며, 영축총림 통도사 영축율학승가대학원(원장 덕문)은 2월 11일까지 신입생을 모집한다.

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원장 적연)은 1월 16일 원서 접수를 마감한다. 입학생에게는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원하고 전문과정 2년 졸업 후 조교수 자격을, 연구과정 3년 졸업 후 부교수 자격을 부여한다. 운문사 한문불전대학원과 보현율원(율주 명성)도 16일까지 신입생을 모집한다.

16일 원서를 마감하는 동학사 화엄승가대학원(원장 일초)은 연구비 지원을 비롯해 소임 시 장학금 혜택, 전문과정 2년 졸업 후 조교수 자격 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청암사 율학승가대학원장(원장 지형)도 졸업 후 조교수 자격과 행자교육원 습의사 자격 등이 부여된다.

사찰 승가대학과 대학원의 특전 제공에 대해 조계종 교육부장 진각 스님은 “출가자가 줄어들다보니 사찰 승가대학 등이 미래 승가인재에 대한 투자를 하며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사찰 승가대학에서 장학혜택을 확대하고 유학 지원을 하는 것은 한국 승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시대에 맞는 미래 불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제10회 불교상담사 자격고시 2월 25일

1월 20일까지 접수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2월 25일 ‘제10회 불교상담심리사 자격고시’를 실시한다.

자격고시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치러지며 시험장소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과 종회분과회의실이다.

응시과목은 1급은 불교교리 및 역사 · 경전의 이해 · 학습심리학 · 심리검사 등 10과목이며, 2급은 불교교리 및 역사 · 불교상담 · 상담심리학 · 발달심리학 등 5과목이다. 전문가의 경우 불교교리 · 불교상담 · 명상과 심리치료 · 수행과 상담 · 인지행동치료 등 11과목이다.

원서접수는 불교상담개발원 홈페이지(www. kbcd.org)에서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1월 20일까지. 합격자는 3월 중 불교상담개발원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02)737-7378 노덕현 기자

朴 조기 탄핵 촉구하며 헌재 앞 ‘108배’

범불교시국회의 1월 4일 릴레이로… “탄핵 때까지”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었던 불교계가 이번엔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로 향했다.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박근혜 퇴진과 국민주권 수호 범불교시국회의(이하 범불교시국회의)는 1일 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조기 탄핵 인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범불교시국회의는 “헌재 재판관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조기 탄핵을 인용하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법적 · 제도적 · 통치적 정당성을 모두 상실했다. 박근혜는 헌법 제1 · 7 · 10 · 11 · 15 · 23 · 67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죄(뇌물죄) 등 여러 법을 위반한 범법자”라며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를 형해화해 이 땅을 ‘헬조선’으로 만든 장본인인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라 비판했다.

이어 “여당의원을 포함해 무려 234명이 탄핵소추결의안에 찬성했고 헌재 역시 사태의 중대함을 인식, 중도 성향의 강일원 재판관을 탄핵심판의 주심으로 배당해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헌재 재판관들은 촛불 든 시민들이 왜 헌재 앞에 모이는지 깊이 숙고해야 한다. 박근혜는 대통령의 특권을 이용해 수사를 회피하고, 공범자와 부역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회와 국민을 조롱했다”고 지적했다.



범불교시국회의 스님이 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조기 탄핵을 촉구하며 108배를 올리고 있다.

그러면서 “헌재 재판관들은 정치적 공세에 휘둘리지 말고 지극히 공정하게 심의하며, 조기에 탄핵을 인용해 이 나라를 혼란에서 구해야 한다. 우리 불자들은 이 정권서 억울하게 죽어간 청년, 노동자, 노인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자비심으로 새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대열에 나서고자 한다”며 “그 첫걸음이 조기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연 사실을 크게 지탄했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일 스님은 “박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서 세월호에 대해 ‘할 일은 다 했다’고 말했다. 어찌 그리 당당한지 몰염치하고 뻔뻔할 정도”라며 “이제는 국민들이 일상을 편히 살아야한다. 헌재는 빨리 결단해 국민 모두를 편안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성권 대한불교정년회 중앙회장은 “박 대통령은 기자들을 초청해 반성 없는 변명만 늘어놨다”며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한편 범불교시국회의는 이날을 시작으로 탄핵소추안이 인용 결정될 때까지 매일 낮 12시 헌재 정문 앞에서 108배 릴레이 기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아름 기자

자승 스님, 총무원 강남 이전 재강조

봉은사, 5일 성역화기금 10억 원 전달식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총무원 청사의 강남 이전에 대한 뜻을 재차 피력했다.

자승 스님은 1월 5일 봉은사가 총본산 성역화불사기금 10억 원을 (재)아름다운동행에 전달하는 자리서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성역화불사는 부지매입 등 2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다. 최대 10여 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면서 “불사 마지막 단계선 전법회관에 있는 숙소, 불교신문, 총무원 등을 전부 봉은사 새 총무원 청사로 옮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자승 스님의 발언은 지난 2015년 11월 전법회관 내 중앙신도회 카페바라밀 개점식에서 처음 알려졌다. 성역화불사에 따라 전법회관을 헐게 되면 現총무원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 기관 및 단체를 입주시키고, 봉은사 옆 예식장을 새 총무원 청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자승 스님은 또 한전부지 환수를 위해 봉은사를 주축으로 종단이 힘을 모아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한전부지 현대차그룹 신사옥 건립계획으로 봉은사가 가장 큰 위협을 받는 만큼 수행환경 보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한편 성역화불사기금 전달식에는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과 한원덕 봉은사 신도회장 등 신도회 임원이 참석했다.

이승희 기자 lshuihappy@hyunbul.com



봉은사는 1월 5일 아름다운동행에 성역화 기금 10억 원을 전달했다.

관음종 소원성취 기도전화 개설

새해부터 운영, 무료 이용



대한불교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이 2017 정유년을 맞아 새해 소원 성취기도를 전화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피플링크의 후원으로 제작된 이 ARS전화는 새해 소원 성취기도를 원하는 이들은 누구나 전화(1644-7799)를 걸면 기도가 가능하다.

아울러 음성으로 소원을 남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음력 정월 초하루, 정월 대보름 등에 축원을 올림으로써 부처님의 자비가 더욱 가득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축원 후에는 당사자에게 축원기도 알림 문자를 회신 한다.

관음종 측은 “불교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 및 젊은층이 불교에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포교에 매진할 계획”이라며 “지난 동지를 맞아 소원성취 기도 전화를 시범 운영했으며, 새해 첫날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소원성취 기도 전화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소원성취 기도 전화는 누구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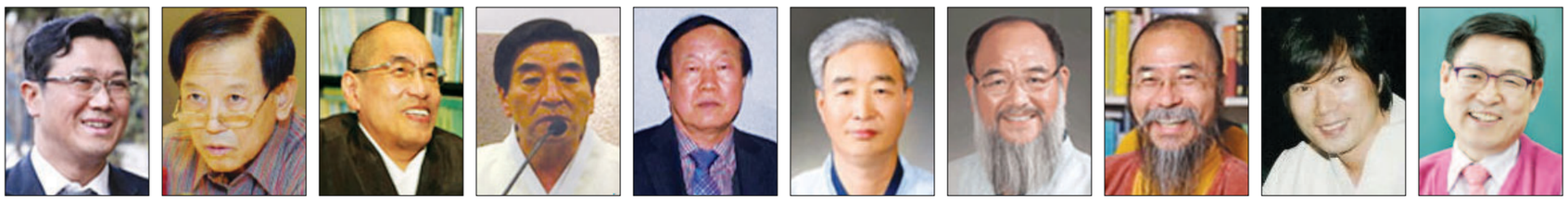
동국대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제4기 모집



석하 소재학 박사 / 동양 미래학자, 미래예측학 박사 1호
명리학자 (공식전공 사주명리학 박사 1호)
동국대학교 FCA동양미래예측학최고위과정 주임교수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명리미래예측전공 주임교수
재)하원정미래학회 회장, 글로벌융합인재포럼 회장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FCA) 원장, 동양미래예측연구소장
서울신문 STV그룹 고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자문위원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및 발전위원장, Earist University 학장 역임

대한민국 易學, 사주명리학 최고 교수진!!

대한민국 역학계 명문파 장문, 최고 실력자, 최고 권위의 교수님들과 함께 하는 아주 특별한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사주명리학, 풍수지리, 주역, 관상 등 기존의 역학에서 미신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를 배제하고 합리적 이론체계로 정립되고, 검증된 역학, 동양미래예측학을 통해 이 시대 최고의 동양미래예측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수님들과 과정생들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졸업 후에도 원우회와 동문회 활동 등 멘토와 멘티로서, 혹은 동반자로서 소통과 융합을 통해 이 시대 역학계, 동양미래예측학계를 이끌어 갈수 있는 인재 양성 과정!! 자신의 학문에 대한 현위치 파악 및 역학계 위상정립!! 더 이상 찾아 헤멜 필요 없습니다.



미래예측학박사 1호 소재학교수(주임교수), 박청화교수, 꼴관상 신기원교수, 학선 유래웅교수, 백민교수, 정창근교수, 최명우교수, 노승우교수, 조규문교수, 이상광교수, 박성희교수, 문봉 박재범교수, 정경연교수, 신석우박사, 내정법 김인순박사, 명리학과 한의학의 만남 김민재박사, 박용남교수, 샤머니즘박물관장 양종승박사 외
〈특강교수〉 미래특강-세계미래포럼 이영탁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장관), 가수 김태곤박사, 최면 NLP상담기법 설기문교수, 멘탈리스트 이진규소장 외

대 상 명리학 초중급자, 현업 종사자, 역학, 명리, 풍수, 관상 교수 및 강사(학력무관)
일 정 2월23일~6월 22일, 매주 목(木)18:40~21:30/수료 후 2학기 심화과정 선택
자격증 문광부 등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가(소정의 절차)
- 동양미래진로적성 상담사 / 명리진로적성 상담사 / 현대명리교육 상담사
입학식 2월 23일(목) 17:30~ 공개강좌 2월 9일 (목) 18:30 등록금 240만원
지원방법 FCA홈페이지(www.gfca.kr)입학지원서 다운받은 후 메일 (gfca@daum.net) 발송
특 전 동국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동국대학교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동문자격 / 원리를 알면 공부가 재미있습니다!! 심화과정(FCA 현대사주학 석하명리 최고지도자과정)

※ 장 소 : 동국대학교 ※ 홈페이지 : www.gfca.kr ※ 문의 : 02-3443-4984 ※ 등록금계좌 : 신한은행 140-010-663788 예금주 : 동국대

일 주 문



새해 삼보일배 정진

허운 제주 관음사 주지 스님은 1월 1일 정유년 새해 발원 삼보일배 정진을 실시했다.



제2회 어린이 단기출가

심산 부산 흥법사 주지 스님은 1월 11일부터 17일까지 겨울방학 맞이 제2회 어린이 작심단기출가를 실시한다.



조계사 아함경 강의

원영 조계종 교육아사리 스님은 11일부터 10주간 매주 수요일 서울 조계사 불교대학 교육관 4층 강의실에서 〈아함경〉 강의를 진행한다.

문체부 종무실장에 김재원 체육정책실장



문화체육관광부 종교 업무를 총괄하는 종무실장에 김재원 체육정책실장〈사진〉이 구랍 30일 임명됐다.

1963년 경남 사천에서 태어난 김 재원 종무실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30회 행정고시에 합격, 공직에 입문했다.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장과 콘텐츠정책관,체육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동국대 신임 교직원 신행 연수

구랍 27~29일 수덕사서



동국대는 구랍 27~29일 수덕사에서 신임 교직원 신행연수를 개최했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구랍 27일~29일 충남 예산 수덕사에서 '2016년 신임교직원 신행연수'를 봉행했다"고 1월 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2015년 2학기와 2016년 1학기에 입사한 신임 교원 및 직원, 정각원 행정팀 직원 등 25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27일 입재식을 갖고 사찰예절 배우기와 덕숭산 산행 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튿날에는 '동국대 건학이념과 조계종단'을 주제로 한 동국대 정각원장 혜원 스님의 법문이 진행됐다. 또한 서산 마애삼존불 · 보은사지 등 불교유적을 답사했으며,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의 소찬법문도 이어졌다. **신성민 기자**

〈바로 잡습니다〉 본지 1129호 B5면 도법 스님 소제목 '불암사 결사, 비판적 논의 필요해'를 **'봉암사 결사, 비판적 논의 필요해'**로 바로잡습니다.

"비구니연구, 結者解之 마음으로"

〈결자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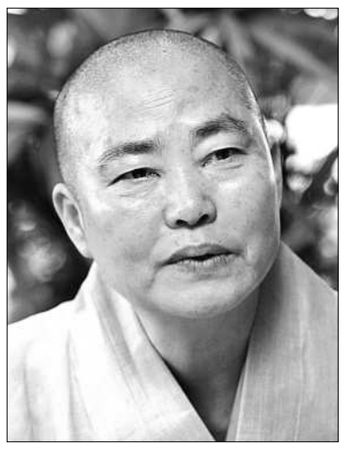
Interview

중앙승가대 교수 본각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본각 스님〈사진〉은 오는 2월 정들었던 교단을 떠난다. 1991년 중앙승가대 교수로 취임한 본각 스님은 화엄학의 대가로 26년 동안 화엄의 정수를 후학들에게 전했다. 스님이 중앙승가대에서 교수 소임을 보며 남긴 다른 족적 중 하나는 1999년 한국비구니연구소를 개원한 것이다.

2000년 초 중앙승가대가 김포학사로 이전하면서 학교 공간 사용이 허락되면서 연구소 활동이 본격화 됐다. 본각 스님은 연구소 소속 학인 스님들과 함께 전국의 어른 스님에 대한 녹취를 3년간 진행했다. 이 결과물이 2007년 출판한 〈한국비구니명감〉과 〈한국비구니수행담록〉이다.

이외에도 본각 스님의 한국비구니연구소는 비구니 스님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집대성했다. 〈신문기사로 본 한국 근현대 비구니 자료집〉과 500여 편의 학술논문과 교양논문을 모은 논문자료집 〈비구니와 여성불교〉를 내놨다. 또한 〈삼국사기〉, 〈삼국유사〉, 〈조선왕조실록〉에 게재된 비구니와 여성불교에 대한 기록들을 집대성한 〈한국 고 · 중세 불교여성 · 비구니 자료집〉은 한국 비구니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올해 2월 퇴임하고 금륜사로
한국비구니연구소 함께 이전
'비구니자료집' 5권 등 배포

"관련 자료 꾸준히 수집 · 편찬
비구니 역할 연구 진행할 것"

본각 스님은 최근 〈2001~2012년 신문기사로 본 한국비구니 자료집(5권)〉을 다시 출판해 그간 배포하지 못한 자료집을 사찰과 도서관, 언론기관 등에 전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스님은 "좀 더 일찍 보내드려야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며 "최근 배포한 것은 2, 3차 작업 결과물이다. 현재 비구니 스님들의 활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한국비구니연구소는 본각 스님의 퇴임과 함께 스님의 주석처인 금륜사로 이전한다. 스님은 "학교에 후배 비구니 스님들이 계시지만, 짐을 안겨드리긴 미안했다"면서 "제가 시작한 연구이니 마지막까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비구니 승가 연구에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스님의 퇴임과 함께 연구소는 새 시작을 맞이하는 것이다. 향후 본각 스님은 비구니 승가에 대한 자료 수집과 현대적 역할 연구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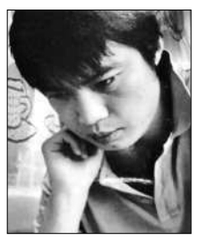
스님은 "금석문 등 고문헌과 현대 비구니 승가 활동을 정리하는 자료 수집과 현대 사회에서 비구니 승가의 역할을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게 향후 과제"라면서 "우선 퇴임 후에는 제 자신의 학문적 정리를 진행하고, 비구니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문학인의 산실' 동국대, 올 신춘문예서 기염

경향 · 서울 등 당선자 6명 배출… 소설 · 시조 장르 다양


염승숙


위수정


조현주


이가은


최현진


김서연

'명품 문학인의 산실'인 동국대가 올해 신춘문예에서도 강세를 보였다. 1월 2일 현재까지 6명의 당선자를 배출해 동국문학의 저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는 평가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1월 1, 2일 발표된 일간지 신춘문예 당선자 명단에 △경향신문=평론 염승숙(문예창작 01) △동아일보=중편소설 위수정(문예창작 99) △서울신문=희곡 조현주(문예창작 97) △중앙일보=시조 이가은(문예창작 02) △한국일보=동화 최현진(문예창작 09) △경남일보=소설 김서연(문화예술대학원 문예창작학과 08) 등 동문 6명이 포함됐다"고 1월 3일 밝혔다.

동아일보 중편소설 부문에 작품 〈무덤이 조금씩〉으로 당선된 위수정 씨는 "이런 시국에 혼자 방에 틀어박혀 소설을 쓰는 것이 마음 편치만은 않았지만 내가 쓰는 글이 읽을 만한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분투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그간의 시간을 털어놨다.

〈오늘만 같지 않기를〉로 서울신문 희곡 부문에 당선된 조현주 씨는 "누군가의 삶 속에 깊이 파고드는, 그들의 인생을 뒤흔드는 울림이 있는 희곡을 쓰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문학동네 신인상에서 소설 부문을 수상한 박상영 동문을 비롯해 여러 신인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장영우 동국대 국어국문 · 문예창작학부 교수는 "시조, 소설 등 창작 분야에서 평론이나 희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만해 한용운 스님과 서정주, 조정래의 계보를 잇는 동국 문학인들의 활약이 2017년 내내 이어졌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한편, 동국대는 매년 신춘문예마다 뛰어난 문재(文才)들을 배출해 내며 명실상부한 최고의 문학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2009년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 주요 언론사 신춘문예에서 총 8명의 당선자를 배출한 바 있으며 2010년 3명, 2011년 4명, 2012년 4명, 2013년 6명, 2014년 4명(중앙일보 신인문학상 포함), 2015년 9명의 동문이 등단하는 등 해마다 '동국문학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선운사, 철야정진으로 새해맞이

송년 작은음악회로 한 해 정리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는 구랍 31일 지장보궁에서 '송년 작은음악회'를 열고, 철야정진하며 차분한 새해를 맞았다. 선운사 대중스님과 불자들은 자정을 기해 범종타종 행사를 갖고,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정리하며 새해 희망을 기원했다. 주지 경우 스님은 "새해에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성취되도록 선운사 대중과 함께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광사 기본교육 70기 수료식

지홍 스님 100여 수강생에 계 내려



서울 불광사(회주 지홍)는 구랍 24일 서울 불광사 보광당에서 불교기본교육 70기 수계 ·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계사로는 회주 지홍 스님이 나서 100여 수강생들에게 계를 내렸다.

지홍 스님은 "연비의식을 통해 계율을 잘 지키고 부처님의 제자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란다"며 활발한 신행활동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아우내은빛福, 노후 난방시설 보수

웰클린과 지역 내 독거 어르신 가정 세관공사



아우내은빛복지관(관장 이수경)은 1월 5일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소독방역 · 배관클리닉 전문기업 웰클린(대표 김선중)과 함께 복지관 재가자 10명 가정의 노후된 보일러와 배관청소를 실시했다. 웰클린 측은 "노후된 보일러로 열효율성이 떨어지는 집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 안쓰러웠다"며 "2월까지 시설보수를 실시하고, 이후엔 소독방역 재능기부도 함께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희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2월 28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丁酉年, 다채로운 불교 행사가 찾아간다



희망찬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어떤 희망찬 소식이 불자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지난해 뚜렷한 움직임을 드러내지 않았던 불교 혁신부터 다양한 학술행사 · 문화 축제 등이 불자들을 찾아간다. <편집자 주>

조계종 승려복지 국민연금 지원(1월)

조계종이 올해 1월부터 종단 사상 처음으로 스님들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스님 가운데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이다. 조계종은 2017년 월 1만800원, 2018년 월 1만8000원, 2019년 월 3만6000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연금보험은 정부차원에서 노령인구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지만 사실상 스님들의 가입률은 20% 수준이다. 승려복지회는 지속적으로 스님들의 관심을 모아 국민연금보험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올해 5월경 2차 지원을 위한 신청접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조계종 신행혁신운동 본격 나서(1월)

지난해 말 새해를 신행혁신운동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포부를 밝힌 조계종 포교원은 1월부터 신행혁신운동의 본격적인 확산에 적극 나선다.

이미 지난해 말 신행혁신을 위한 신행점검표를 제작한 조계종 포교원은 연초부터 각 사찰에서 이에 대한 홍보를 진행한다. 1월 11일 신행혁신 연찬회를 시작으로 1월 23일 포교원장 지홍 스님의 신년기자회견 등이 이어진다.

원효 탄신 1400년 학술행사(3~6월)

올해는 원효 스님 탄신 1400년이 되는 해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동국대 불교학술원 산하 불교문화연구원 HK연구단(단장 김종욱)은 한 · 중 · 일 3개국을 순환하며 원효 스님의 저술과 사상을 살펴보는 대규모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먼저, 3월 23~24일 중국 인민대학서 '원효와 동아시아불교' 를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시작하며, 5월 19~20일에는 동국대 주최로 14명의 세계 학자가 참여하는 '21세기 원효학의 의미와 전망-원효 찬술 문헌의 계보학적 성찰' 이라는 주제로 대규모 세미나를 개최한다.

6월 24일 열리는 동국대 HK연구단, 가나자와문고 공동 세미나는 원효 스님을 일본에 알리기 위한 공동 전시를 기념하는 행사다.

한국불교학회(회장 성운)는 오는 5월 12일 동국대에서 '원효 당대의 동아시아 불교의 지적 맥락에서 바라본 원효의 사상' 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원효 스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진 논문을 공모해 선정된 논문을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연등회(4월 28~30일)

중요무형문화재 122호 연등회가 4월 28~30일 동국대학교와 종로 일대서 성대하게 펼쳐진다. 지난해 '청춘' 이라는 새 옷을 입은 연등회가 올해는 어떤 주제로 대중에게 다가갈지 관심을 모은다. 지난해에는 20m 높이의 4사자 삼층석탑등(燈)을 광화문에 밝히고, 탑등 사방에 비천상을 세워 화려함을 더했다. 아울러 젊은이들과 소통하고자 불교카툰을 그리는 '불교 애니메이터그룹' 과 '마음수행법' '힐링아트' '사찰음식' 등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됐다.

제38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6월 12~14일)

한국과 일본불교 간 문화교류를 잇는 제38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는 6월 12~14일 대회 미개최지인 충북 보은 속리산 법주사서 열린다. 대회주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청소년 교류사업' 을 올해부터 새롭게 실시하는 양국이 한층 진전된 주제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란 기대가 높다.

지난해에는 일본 진언종 대본산 카와사키다이시 헤켄지서 '불교신앙의 다양성' 을 주제로 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태고종 26대 총무원장 선거(7월)

거액의 채무와 종단 집행부 폭력사태로 홍역을 앓은 태고종이 새 수장 선출에 나선다. 새로 구성될 26대 집행부는 '종단 정상화' 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총무원장 선출에 대한 종도들의 고민 역시 깊다.

이에 따라 現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그동안 이어온 간접선거를 직선제로 변경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중앙종회와 각 종무기관 협의 · 공청회 등을 통해 종도들의 뜻을 모아 총무원장을 선출하고, 난국을 헤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20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9월)

동북아불교의 가교역할을 하는 제20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역시 국내서 개최된다. 정확한 일정과 장소는 논의 중이지만 9월 중 개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올해는 한국대회인데다가 8년간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을 맡아온 자승 스님의 마지막 대회인 만큼 여느 해보다 참가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식일정은 3월 한국 · 중국 · 일본 불교협회 관계자들이 협의를 거쳐 정한다.

조계종 35대 총무원장 선거(10월)

향후 4년간 한국불교를 대표할 조계종 차기 행정수반을 결정짓는 선거가 10월 중 열린다. 現 총무원장 자승 스님 임기가 10월 말 종료되기 때문에 종법에 따르면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에 선거가 열려야 한다.

하지만 선거일이 종단 주요 행사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주 목요일로 명시하고 있어 정확한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로 확정될 예정이다. 차기 총무원장 후보로 다수의 스님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으나 아직까지 압축되진 않은 상황이다.

불교계 각 단체 10주년 행사 '다채'

신계사 복원 10주년, 남북관계 개선 기대

올해는 금강산 신계를 복원 10주년 되는 해다. 이에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올 10월 신계사서 복원 10주년 남북불교도 합동법회를 예정하고 있다.

2007년 10월 남북불교가 힘을 합쳐 이뤄낸 신계사 공동불사는 '민족 화해와 통일' 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과 함께 남북불교교류도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했다. 또한 2015년 10월엔 신계사 낙성 8주년 기념 남북합동법회를 봉행하며 교류의 물꼬를 트는 듯 했으나, 2016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발사와 남측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으로 남북정세가 급반전되며 또 다시 좌절됐다.

현재 신계사는 '건축물 안전진단 및 보수공사' 란 시급한 문제를 안고 있다. 2017년엔 남북정세가 회복돼 민간교류도 재개되어 남북불교가 신계사서 다시 만날 수 있길 기대해본다.

국제포교사회, 조직확충 박차

국제포교사회(회장 박홍우)는 2017년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양성과정을 확충한다. 특히 2월 18일 실시되는 자격고시 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양성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일반인들이 자격고시에 대비할 수 있는 특강을 2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10강으로 진행한다.

이와 함께 신임 집행부 출범에 맞춰 교육 · 법회 · 홍보 · 다문화부 등 10여개 부서를 조직할 계획이다. 또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이사회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경전읽기 모임, 영어서적 윤독회, 삼국유사 공부모임 등 다양한 소모임 활동을 통해 역량강화에도 나선다.

불교문화재硏 · 불교중앙博 '전통문화 알리기'

불교계를 대표하는 문화재 전문기관과 박물관인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와 불교중앙박물관이 올해 나란히 10주년을 맞는다.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는 2000년 조계종 문화부 문화유산 발굴조사단의 창립이 그 시원이다. 2007년 현 재단법인 체재를 갖췄고, 연구소를 창립하게 됐다. 초대 소장은 故범하 스님이다. 이후 불교 관련 발굴과 사지조사 사업, 불교문화재 목판 조사 사업 등은 굵직한 연구 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10주년을 맞아 기념세미나 등 행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현조)은 2007년에 개관한 불교 전문 박물관이다. 초대 관장은 故범하 스님이다. 개관 이후 개관특별전 '佛' 에 이어 '法(2008)', '僧(2009)' 연작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밖에도 '백제가람에 담긴 불교문화' '석굴암, 백년의 빛' '불국사 석가탑 사리장엄구' '삶, 그 후-지장보살' 등의 특별전을 개최했다. 불교중앙박물관은 현재 10주년 기념 특별전을 준비 중이다.

종로노인복지관, 어르신 자립에 나서

종로구 어르신들의 자립 활동에 기여해 온 종로노인복지관이 10주년을 맞아 뜻 깊은 행사를 준비 중이다. 우선 4월에 10주년 기념세미나 '종로구 지역사회 네트워크 분석' 을 개최한다. 종로노인복지관은 기념세미나를 통해 종로구 지역사회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선배시민으로서 어르신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한다.

하반기엔 10주년 기념식과 증축개관식이 진행된다. 종로노인복지관 측은 "기념식과 더불어 제2회 종로장축제 '종로&장금이' 도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 중이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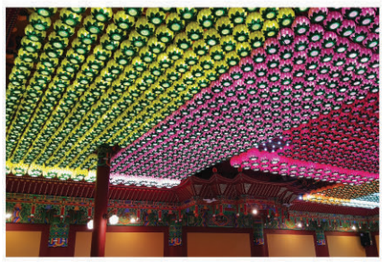


보련기획

전국 방방곡곡 자비의 등불을 밝힙니다!
연등자동승강장치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연등 자동승강장치란? 법당의 구조와 규모등의 특성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를 바탕으로 장엄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화된 프레임(틀)을 설치하여 자동으로 프레임을 상하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시키므로 연등, 축원표등의 설치, 교체 등의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동승강장치 설치 효과

- 높은 사다리에서의 낙상으로 인한 부상위험과 공포에서 해방
- 법당의 규모와 모양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로 뛰어난 장엄효과
- 프레임(틀)을 보다높게 하고,연등을 정방형으로 정렬하여 넓은 시야확보
- 최소의 인력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등,축원표 설치 교체 가능
- 철저한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로 반영구적 사용


원불


위패


인등

2017 카렌다 주문 접수
카렌다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2 www.boryeon.com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189번길 27 A동 (모현면 일산리 549-1)
찬덕연등의 전통과 기술력을 계승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부처님 成道 의미는 '행복 나눔'

문화체험 · 자비나눔… 성도재일의 변화 눈길

불교의 4대 명절 중 하나인 성도재일,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이날을 기념하는 불교계 행사가 자비나눔과 문화체험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단순한 기도정진을 넘어 사회 양극화 심화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회 소외계층을 보듬고, 또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알리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역사회를 위한 자비나눔 활성화는 강북구사암연합회(회장 수암)가 11년간 지켜 온 원칙이다. 강북구에 위치한 사찰들이 개별 사찰 활동보다 함께 힘을 모아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활동은 성도재일 연합법회에서 잘 드러난다. 1월 4일 서울 도선사 호국참회원에서 열린 제8회 성도재일연합대법회에서는 철야정진 기도 입재 뿐만이 아니라 '자비의쌀' 전달 및 봉사단체 후원 등이 진행됐다. 성도재일을 앞두고 강북구 지역의 각 사찰 신도들은 십시일반 마음을 모은다. 350가구에 전달되는 쌀만 7000여 kg에 달한다. 강북구청에 전달 후 강북 13개 동사무소에 트럭으로 쌀을 배송하는 모습은 지역의 볼거리로 알려지기도 했다.

강북구사암련 회장 수암 스님은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원력이 바로 자비실천"이라며 "지역사찰들이 합심해 활동하니 일반시민들의 참여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번 성도재일에는 대구불교사원주지연합회(회장 강정규)가 1월 5일 성도재일 법회서 서문시장 화재 피해 상인 돕기 자비실천 모금행사를 열었다.







강북구사암련의 합동합창단 공연(사진 위)과 자비의 쌀 전달(사진 왼쪽 아래)모습. 청림회의 문화예술제(사진 오른쪽 아래)

강북사암련, 자비의쌀 전달
대전청림회, 락밴드 공연 개최
조계사, 성철 스님 주제 특강

대전비구니청림회(회장 효경, 이하 청림회)가 1986년부터 열고 있는 성도재일 문화예술제는 성도재일의 문화행사의 대표적인 사례다. 청림회는 1월 5일 대전 청림회문화회관에서 문화예술제를 봉행했다. 이번 예술제는 국민멘토 정목 스님이 사회자로 나섰으며, 테너 김승택, 락밴드 이밝음, 국악인 강경민, 청림회합창단 등이 참여해 다양한 문화공연을 선보였다. 예술제에는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과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 권선택 대전시장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가 1월 3일 광주KT대강당에서 개최한 성도재일법회는 연화유치원생들의 부채춤과 사물공연이 진행돼 높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지난해 뮤지컬 보현행원송을 성도재일에 선보인 평택 명법사(주지 순형)는 올해 공연과 함께 신행수기 발표도 함께 진행했다.

성도재일의 부처님 깨달음을 강연으로 듣는 자리도 마련됐다. 서울 조계사의 경우 1월 4일 성철 스님의 상좌이자 백련불교문화재단 원택 스님을 초청해 성도재일 특강을 개최하기도 했다. 불자들은 스님의 강연을 듣고 참회문 쓰기와 촛불명상 등을 진행한 뒤 지혜의 등달기 등을 진행했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불교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조계종 포교부장 가섭 스님은 "철야정진 외에도 다양한 강연과 문화행사는 일반 대중들이 성도재일에 관심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평가했다.

한편, 근현대 불교계는 성도재일을 맞아 다양한 문화공연 등을 진행했다. '동아일보' 등 당시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1926년 1월 26일 울산불교포교당이 성도절 기념 소년소녀단 가극공연과 제등행렬을 개최했으며, 1928년부터 서울 각황사(현재 조계사)에서 음악과 가극, 동요를 공연하고 빈민들에게 음식을 나눠줬다고 전해진다. 노덕현 기자

복지 소식

조계종복지재단 신년 지원사업 '시동'

조계종복지재단이 신년을 맞아 환우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자비나눔에 시동을 걸었다. 복지관서 운영하는 각종 나눔활동 지원 대상자를 찾아나선 것.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 이하 조계종복지재단)은 KT&G복지재단과 함께 의료비와 수술비 지원 대상자를 신청받는다.

의료비가 필요한 저소득 2인 이상 가구 가장 혹은 보호자(20세 이상 성인) 중 병명 제한 없이 치료비 · 수술비 · 재활치료비 · 보장구 구입이 필요한 사람은 1월 15일까지 온라인(www.ktngwelfare.org) 사연신청 접수하면 된다. (02)6007-1459

또한 조계종복지재단은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2017 러브아이 눈 수술비 지원 캠페인'도 진행한다.

소외계층 자녀(영유아~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관심있는 사람은 1월 17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접수(wlwhs0306@nate.com)로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제출서류는 홈페이지(http://www.kidsfuture.or.kr)서 확인 가능하다. (02)843-8479

이승희 기자

여주시노인福 어르신 위한 새 동아리 창립

교통안전지킴이, 걷기운동 회원 모집

여주시노인복지관이 신년부터 어르신 자립심과 건강유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뛰어든다.

여주시노인복지관(관장 이석자)은 올해부터 활동에 돌입하는 △교통안전지킴이 동아리 △걷기동아리 조직을 알리고, 활동원을 모집에 나섰다.

먼저 교통안전지킴이 동아리는 어르신 자립심을 키우고 지역사회 내 공헌도를 높이기 위한 동아리로, 만 60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뽑는다. 1월 20일까지 선착순 모집하고, 참여자는 2월 말~3월 중 안전한 보행 및 운전자세 습득 관련 교육을 받는다.

지킴이로 선정된 어르신들을 '실버 교통안전프로그램 진행자'로 양성할 계획이며, 교통안전지킴이들은 월 1회 지역 내 유치원 · 아동보호시설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사진은 올바른 걷기 운동 교육 중인 어르신들.

걷기동아리는 복지관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에 힘입어 올해 처음 동아리형태로 조직됐다. 기존 산발적 · 단발성 행사서 벗어나 동아리 단위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1월 20일까지 인원모집하며 △올바른 걷기 운동 교육 △여주지역 경로당 순회 △주1회 걷기운동 및 관련 캠페인 등 진행한다. (031)881-0050

이승희 기자

'아름다운 동행' 탄자니아 NGO교육

1월 5일~2월 17일까지 교육 후 2월 28일 출국

아름다운동행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사무총장 윤현봉, 이하 KCOC) 후원으로 2월 28일 출국해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지역 무캄바 · 부말리아 초등학교서 1년 동안 활동할 NGO봉사단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첫 교육이 진행된 1월 5일엔 박찬정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아름다운동행 및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탄자니아 지부 업무 소개 및 봉사단원 역할 △아름다운동행 배분사업 △모금사업 △해외아동결연사업 등에 관해 전반적 소개를 마쳤다.

아름다운동행 선발 봉사단은 1월 9일~13일, 2월 6일~17일 진행되는 KCOC 교육에 합류해 최종 교육을 마칠 예정이다. 최종 교육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 지구촌공생회 · 더프라미스 · 한울안운동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등 참여한다. 이승희 기자

국회 정각회 5일 신년법회 열어

12일 사찰음식 체험 등 결의도

국회 불자의원과 직원들의 모임인 정각회가 새해를 맞아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정각회(회장 주호영)는 1월 5일 국회의사당 정각선원에서 신년법회를 개최했다. 이번 법회에는 서울 상도선원 선원장 미산 스님이 법사로 나섰다. 미산 스님은 이날 "국회의원들이 국민행복을 위해 판단을 해야 한다. 더 깨어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각회 회원들은 법회에서 올해로 34주년을 맞은 만큼 정기법회 뿐만 아니라 대민봉사, 성지순례 등 적극적인 신행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1월 12일 서울 진관사에서 사찰음식 체험행사를 갖고 2월 중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초청 신년법회를 열기로 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우리 손으로"

조계사 구랍 31일 2차 금강경 복장식 봉행

새해를 앞둔 구랍 31일, 조계사 대웅전에 마련된 단상 위로 금강경이 높게 쌓였다. 주지 지현 스님이 단상과 그 주변에 팥과 청수를 뿌리자 이 자리에 모인 불자들은 동시에 법당 결계를 한 오색실을 잘랐다. 결계가 풀리자 금빛 장막에 덮여 있던 금강경 2333권이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구랍 31일 총본산 성역화를 위한 '2차 삼존불 금강경 복장 불사'를 봉행했다. 지난 2015년 12월 봉행된 첫 번째 금강경 복장불사에는 30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번 2차 복장불사에는 2300여 명이 동참해 대웅전 중앙의 석가모니불에 681권, 오른쪽 약사여래불에 1344권, 왼쪽 아미타불에 308권 등 총 2333권을 만든 것이다.

결계 의식이 끝난 뒤 조계사 스님들이 금강경을 밖으로 이운하자 불자들은 이 금강경을 받아 각자 머리에 정대하고 대웅전 뒤 삼존불 복장 입구로 향했다.



조계사 신도들이 금강경을 정대하고 도량을 돌고 있다.

주지 지현 스님은 금강경을 정대하고 이운해온 신도들을 맞이하고, 작은 선물을 전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이번 금강경 복장불사를 위해 조계사 신도들은 10월 13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금강경 기도를 열었다.

이날 지현 스님은 한 어린이가 용돈을 모아 금강경 복장 불사에 동참한 사연을 소개했다. 지현 스님은 "한 어린이가 일요법회마다 불전을 모아 100만원으로 금강경 한 권을 보시했다. 이런 꾸준한 동참만이 성역화 불사를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계사는 2017년 말에는 아미타경을 아미타불에 복장하는 3차 불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계사는 100억원 모금을 위해 1만 불사 후원자를 모집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5기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쵯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1월 중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출강 및 통신 2017학년도 제26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 교육 신입생 모집

탁월한 불교교육과 명증한 법사자격을 원하십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은 정통한 법사교육으로 26년의 전통과 신뢰로서 자랑과 긍지를 삼고 있습니다.

① 사단법인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인증하는 법사자격 법위증이 수여됩니다.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 교육합니다.
④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⑤ 법사품수 후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 불학연구원과정(5년) · 불교석학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7년 2월 23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 · 우편 · 팩스 · 메일) 제주교육원(☎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불교 철학 Essay
붓다 찾는 천로역정

변화의 시대… 난 붓다를 찾아가고 있다


실크로드 길목인 양관 유적으로 노을이 지고, 낙타 무리가 이를 지난다. 그 옛날 구법승들은 돌아오지 못할 수 있는 천축으로의 여정을 떠났다.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겠다는 일념으로….

① 나는 왜 이 글을 쓰는가?

이 글은 붓다와 불교에 대한 자전적 글쓰기다. 그런데 웬 천로역정(天路歷程)인가? 〈천로역정〉은 영국의 존 버니언(John Bunyan)의 소설로, 하나님의 구원을 찾아 가는 내용인데 기독교인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 책이라고 한다. 붓다를 찾아가면서 왜 천로역정을 차용하는가? 글쎄다. 직관적으로 차용해 보았는데 이 글을 마무리할 때쯤 되면 뭔가 그럴듯한 이유가 나오리라 생각해 볼 뿐이다.

필자는 불교와 인연을 맺은 이래 지금까지 그 인연을 매우 큰 행운으로 생각하고 긍지와 감사의 마음을 항상 지녀왔다. 나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모친께서 주신 '관세음보살' 사진을 항상 지니고 다녔으며, 사진이 낡으면 재인화해서 지금까지 지니고 있다. 서부 전선 최전방에서 군대생활을 할 때도 항상 관음보살을 염송하였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대학교수라는 직함을 가지고 살아 갈 수 있었던 것도 관음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대학 시절에는 〈벽암록〉의 내용을 팔고 다니면서 주변으로부터 도사니 선사니 하는 별명을 얻기도 했고 이러한 타이틀에 은근한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였다.

그러나 10여 년 전 〈불교평론〉과 인연이 되어 '열린 논단'에 참여하면서 혼돈이 시작되었다. 불교 이론의 논쟁점에 눈뜨기 시작하였고, 붓다의 말씀으로 소중하게 여겨왔던 경을 두고 불설 · 비불설의 논쟁을 하는 것을 듣고 가슴이 철렁하기도 하였다. 수많은 경전 속에 있는 서로 다른 내용의 다툼도 알게 되었다. 더구나 내가 평소 염송하는 관세음보살님도 대승불교에서 제조된 것이라 하니 이 천진한 불자의 당황스러움은 적지 않았다.

나의 붓다 사랑과 불교 신앙에 재건축을 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살고 있는 움막 같은 집은 엉성하여 밤하늘의 별은 볼 수 있지만 비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온 관음보살을 재창조하여 나와 일체화 시키겠다는 염원도 갖게 되었다. 이와 함께 육십이 넘어 정년을 바라보면서 불교에 관한 책을 본격적으로 탐독하기 시작하였다. 인연이 있어서 그런지 추리소설을 읽는 것처럼 궁금증이 더해가고 재미도 적잖게 있어 불교 서적을 즐겁게 배회하였다. 동시에 불교 공부는 나의 전공에 깊이와 넓이를 확장시켜 주기도 하였다. 대학원 시절 광덕 스님께서 불교 공부하면 전공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말씀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그러나 불교 책을 배회하면서 동시에 많은 혼란도 느꼈다. 어떤 때는 혼란을 넘어 뒤죽박죽이 되었다. 저자의 입장과 위치에 따라 붓다와 불교를 이해하는 시각이 다름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배회의 와중에서 나름대로 불교 이론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고, 붓다 다르마의 위대성을 재삼 확인하는 기쁨도 많았다.

또한, 이론적 논쟁이 많은 무아와 윤회의 문제를 복합체계이론의 틀로 접근하는 논리를 만들어 '나가세나'의 〈나선비구경〉의 내용보다 더 설득력이 있을 거라는 오만도 피워 보았다. 그러나 의문이 들기 시작하였다. 붓다의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관념의 늪에 빠져 문자 불교, 지식 불교에 집착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불립문자를 내세우고 형이상학적 사색과 이론을 비판하는 선불교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기도 했다.

다양한 불교 이론을 접하면서 동시에 나의 신앙 체계에 혼돈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론은 머리의 일이지만 믿음은 가슴의 일이라 더 큰 파장으로 다가왔다. 불교를 만나는 인연은 연기적 조건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믿음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 이해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있다. 내가 불교를 만난 것은 운명 비슷한 믿음으로 출발하였다. 불교는 '와서 보고' 이해가 전제된 믿음이기에 이론의 혼란은 믿음의 혼란으로 이어진다. 믿음은 자전거 타기와 유사하여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이 쓰러지고 만다. 나는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서 혼란을 느끼고 있으니 이를 어쩌랴.

혼돈이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n)의 출발점이라고 하던가. 이 혼란과 뒤죽박죽을 극복하기 위해 붓다를 찾아 가는 새로운 지도를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이 글을 쓰는 것이다. 혼돈의 양상과 그 원인은 무엇이며, 내가 갈 길은 어디인지 찾아보는 것이다. 그 길은 누구를 위한 안내 지도가 아니라 나 혼자 걷고자 하는 길이다.

나는 지금 어디 서 있는가?

'사유의 존재 구속성'이라는 말이 있다. 생각이라는 것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모든 주변의 덩어리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 개인과 집단의 사유는 주변의 여러 요소들과의 연기적 관계를 통해 생성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고, 또한 불교와 인연이 없었다면 어찌 이런 고뇌를 할 수 있겠는가?

여정을 떠나는 이 땅에서 나는 어떤 생각으로 틀지어진 것인지 진단해 보아야겠다. 이것은 바로 내가 인연을 맺고 나의 믿음 체계를 제공해 준 한국불교는 과연 어떤 불교인가를 탐색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것은 붓다의 연기론으로 한국불교를 진단하고 나의 항로를 그려보는 작업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불교는 일종의 '가공 수입품'이라 할 수 있다. 인도에서 직수입된 불교가 아니라 중국의 중계상을 통해 중국에서 가공된 수입품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일반신도들은 한국불교가 중국에서 가공된 수입품이라는 것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가공 수입된 붓다 다르마는 한국불교 역사 속에서 긴 내면화 과정을 겪었다. 한국에서는 붓다나 그 직계 제자보다 오히려 혜능을 비롯한 중국 선사들의 선어록이나 에피소드가 더 많이 인용되고 있다. 종정, 조실 등 큰스님들의 신년사를 비롯한 각종 행사의 유시문에는 중국 선사들의 어록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 현실이다. 중국으로 불교

> **"이제 한국불교는 큰 변곡점에 들어서고 있다고 본다 역사상 오늘처럼 교리와 수행론에 큰 파고가 있는 것은 처음 아닐까 그 변곡점에서 붓다를 찾는 여정의 지도 만들기를 해 보는 것이다"**

성지 탐방을 하는 관광 상품도 많다. 그만큼 한국불교는 중국불교에 중독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든다. 필자는 얼마 전부터 〈상윳다니까야〉를 보고 있는데 한문이 없는 경전을 보는 것이 매우 낯설게 느껴졌다. 한문이 없는 경전은 왠지 가볍게 느껴지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붓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니까야를 읽으면서.

그러면 중국은 불교를 어떤 틀로 받아들였는가. 중국이 인도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매우 어지러워 보인다. 초기 부파 불교의 내용과 대승불교의 내용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혼란스럽게 수입되었다. 또한 중국인의 사유 양식으로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도 꽤 있었으리라. 또한 통치자들이 불교를 그들의 통치 이념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산도 있었다. 이에 중국인의 사유 틀에 불교 사상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탐색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격의불교(格義佛敎)이다. 격의불교는 무아와 공(空)사상 등 불교의 사유 양식을 노 · 장자 사상 등 중국 전통사상과 서로 견주어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격의불교는 불교가 중국에 정착되는 방편이었고 동시에 중국인들이 불교에 접근하는 길을 안내해 주었다. 이와 함께 도교적 요소가 불교 사상에 융해되었다.

그 후 불교경전이 대대적으로 한역되면서 격의불교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고, 불교 자체를 새롭게 연구하는 풍토가 일어나면서 다양한 종파가 형성되었다. 또한 불교 경전의 번역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일어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상판석(敎相判釋)이 생겼다. 중국에 들어왔을 때 이미 역사적인 변용을 거친 많은 불교문헌을 번역하면서 서로 상이한 교리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하는 상황에서 교상판석의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다. 교판상석은 중국불교를 체계화시키는 나름대로의 기준이지만 지금에서 보면 매우 엉뚱한 시도이다. 이러한 중국불교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연기적 조건을 바탕으로 붓다 다르마를 만난 것이기에.

이렇게 중국에서 다양하게 가공된 붓다 다르마가 우리에게 흘러들어 왔다. 또한 인도인의 분석적 사유를 '직관적 사유'로 전환시킨 선불교는 지금까지 한국불교의 뿌리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이렇게 수입되어 정착된 한국불교는 대승불교의 성격이 강했는데 유신교적 다불 · 다보살 신앙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다불 · 다보살 신앙이 민속 신앙과 접목되어 불교가 기복 종교로 추락했다는 비판도 있다.

불교가 조선의 긴 척불의 시대를 거치면서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복불교의 뿌리가 내린 것은 아닌가 생각도 해 본다. 이것은 민속학자나 불교학자의 연구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다.

모든 종교는 철학, 신화, 주술이 함께 동거한다. 그 동거 형태에 따라 다양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난다. 나의 관음신앙도 이러한 한국불교의 습기(習氣)아래서 형성되었을 것이다. 심리학에서 각인(刻印)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거위가 태어날 때 처음 본 대상을 부모로 알고 일생동안 따라 다닌다고 했던가. 옛 추억으로 졸업한 초등학교를 가보면 운동장이 그 때는 컸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작나 느끼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면 운동장은 다시 커진다.

이러한 중국에서 가공 수입된 한국불교에 큰 진동이 일어났다. 이제 혜초(慧超)의 전성시대가 온 것이다. 수년간 수행 길로 가던 서역 땅에 하루 만에 가고, 빠리어, 산스크리트 원문 경전이 직수입되어 독해되고 번역되고 있다. 비행기 타고 서역으로 가는 유학승과 유학자도 많아졌다. 이와 함께 하대해 왔던 소위 소승불교에 대한 인식이 변했으며, 오히려 붓다의 뜻에 충실한 근본불교가 아닌가 하는 흐름도 생겼다. 간화선이 최고의 수행방법인 줄 알았는데 위빠사나, 삿띠 같은 남방불교의 수행법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서구의 불교학자들의 저서도 많이 번역 출판되고 있고, 이 저서들이 불교를 이해하는데 더 효율적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대승불교를 장식한 화려하고 거만한 언사도 줄어들었고, 한국불교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금 한국불교가 딛고 있는 땅에는 큰 지진이 진동하고 있다. 한국불교 역사상 붓다의 광장에 이렇게 다양한 휘장이 펄럭이는 사례는 없었다. 이제 한국불교는 큰 변곡점에 들어서고 있다고 본다. 한국불교 역사상 오늘처럼 교리와 수행론에 큰 파고가 있는 것은 처음이 아닐까?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에 고기가 제일 많다고 한다. 지금 한국 불교가 그러하다. 원효의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가 온 것이다.

나는 그 변곡점에서 붓다를 찾아 가는 여정을 그리는 지도 만들기를 해보는 것이다.


방영준(성신여대 명예교수)

(사)세계불교법왕청 ·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세계불교 지도자 합동금강계단 대합동 대설법전

(미얀마 삼사 아사리 주석사찰 친견 대설법전)

불조의 법맥을 전해 받은 수법제자로서 스승의 법통을 이어받아 四種教授의 가르침을 받고 四種鉤印하여 지구촌 모든 중생의 스승이 되길 기원하는 대설법전을 봉행하고자 합니다. 이는 전계대화상과 3師7尊證阿闍梨께서 법을 가르치고 바른 길을 전수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요. 두 번째는 법왕님과 법상자간에 因緣에 의해서 성립되었고 서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얽혀있으니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三師七尊證 阿闍梨 큰스님들을 찾아 뵙고 예를 올리는 것이 도리인지라 이를 실행에 옮기고자 합니다.


世界佛教指導者 合同 金剛戒壇 大法會 2016.10.5 국회의원회관 대강당

■ 일 정 : 2017년 丁酉年 3월 1일 출발 (6박 7일)

■ 대설법전 : 양곤 사사나 승가대학 대설법전,
미얀마 삼장법사 주석사찰 대설법전,
양곤 불교회장 주석사찰 대설법전,
짜익티오 성 파고다 대설법전

■ 참가자격
- 5회에 걸친 세계불교지도자 합도 금강계단 수계자 전원
- 수계 희망자 사부대중 누구나

■ 참가신청 (미리 신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02)737-5665. 010-3618-6061
봉행위원장 010-8930-1785 / 기획실장 010-4467-9600

관리본부장 : 성각 대종사 합장
존증아사리 : 혜정. 남륜. 인경. 혜담. 제성. 현담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법왕 비서실장 대승정 목탁 / 봉행위원장 대종사 대공 법혜 합장

사랑·명예 버리고 나선 험난한 구도행



강소연 교수의
불화 속 스토리텔링

① 안락국태자 이야기 上

연재를 시작하며

유명한 대승경전들 속에는 그 안에 매우 드라마틱한 서사적 구조를 갖는 이야기가 곳곳에 설해집니다. 대중적 교화를 위한 흥미로운 '방편의 묘(妙)'가 경전 곳곳에 발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방편의 묘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체험이란 실제로 차안과 피안을 넘나들기에, 무엇이 '서사적 허구'인지 '종교적 진실'인지, 섣불리 따질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익히 잘 알려진 대표적 경전 속에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지옥에 뛰어든 바라문의 딸 이야기, '보살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풀기 위해 구법순례하는 선재동자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본 연재에서는, 우리의 국보급 불화(佛畵)와 함께, 차례차례로 이들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감동적인 구도(求道)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우리의 옛 불교그림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임정사의 광유성인 〈안락국태자경변상도〉의 부분. 조선 전기 1576년에 제작. 일본 고지 청산문고 소장.



찻물 시중을 들러온 사라수대왕의 여덟 부인. 사라수대왕은 400여 나라와 408명의 부인을 둔 서천국의 왕이었다.



궁궐에 찾아온 승렬비구에게 원앙부인이 금바리에 입쌀을 가득 바치자, 그는 "나는 공양미를 얻으러 온 것이 아니라, 대왕을 모시러 온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사라수대왕과 이별하는 원앙부인, 대왕은 차마 손을 놓지 못한다.

"찻물을 길어올 유나를 삼으리라!" 임정사의 광유성인은 제자 승렬비구에게 이같이 명합니다. 사라수대왕에게 가서 절의 소임을 맡는 유나로서 "그 몸을 청하여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소임 중에서도 찻물을 길어오는 가장 궂은일을 맡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연을 전해들은 왕은 매우 기뻐합니다. 그는 4백 개의 작은 나라를 거느리고 또 408명의 부인을 거느린 서천국의 대왕이건만, 이를 미련 없이 버리고 깨달음을 구하려 마음을 냅니다. 하지만, 막상 떠나려는 마당에 그는 홀연히 눈물을 비 오듯 쏟습니다. 이유는 "부인들이 전세의 인연으로 나를 따라 살고 있거늘 오늘 모두 버리고 갈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슬퍼 웁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원앙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왕이시여, 이런 기회는 평생에 단 한번 밖에는 없는 일인데 어찌 아녀자에 이끌려 못 떠나십니까. 궁중의 애욕생활은 육도윤회의 근본이오니, 생사윤회를 벗어나려면 이번 기회에 훌쩍 떠나셔야 합니다."

찻물 시중이 일생일대 기회?

〈안락국태자경〉 이야기는 사라수대왕이 속세를 버리고 임정사라는 절을 찾아 길 떠나는 내용부터 시작이 됩니다. '찻물을 길어오는 허드렛일'과 '나라의 제왕으로서의 자리'를 바꾸는 데 서슴지 않는 대왕의 모습을 봅니다. 광유성인으로부터 찻물 긷는 일을 하러 오라는 명을 받자마자, 그는 기쁜 마음으로 발심을 합니다. 수행의 계기 또는 선지식과의 인연이 닿은 것입니다. 지혜로운 원앙부인은 이를 놓치지 않도록 조언합니다. 이는 '기연(機緣)'이라고 해서, 중생에게 선근의 기틀이 있어 부처님의 교화를 받을 만한 연줄이 있다는 말입니다. 속세의 어떤 인연보다도 소중한 '세세생생' 윤회의 밑천이 되는 인연입니다. 대왕은 다스리고 있던 4백국을 아우에게 맡기고 떠나려 하지만, 그도 '유정(有情)'인지라, 마지막 순간에 발목을 잡는 것은 속세의 '정'이었습니다. 주저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원앙부인은 안타까운 마음을 내어 함께 동행하기로 합니다. 비로소 대왕은 나라를 여의고, 속세를 여의고, 부귀영화를 여의고, 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4백여 나라 거느린 사라수대왕
광유성인이 유나로 삼겠다하자
구도행 고민… 원앙부인이 설득

임정사 여정, 만삭 원앙에겐 험난
결국 태중 자식과 장자의 몸종으로
사라수, 아들에 '안락국' 이름 남겨
원앙은 장자에게 괴롭힘 받는데…

대왕과 부인은 궁중에 있을 때는 일거수일투족 호위 되어 감시 받다가, 갑자기 큰 대지에 던져지니 자유스런 호흡에 마음이 가볍고 시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밤이 되면 풀숲에서 자고 마치 도망자의 행색이 되어 길을 가니,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초라한 임금의 행차였습니다. 또 원앙부인은 마침 만삭의 몸이라 더 이상 걷지 못하고 종아리가 기둥처럼 붓기 시작했습니다.

장자의 몸종이 된 원앙부인

임정사를 향한 멀고 험한 여정 중에 원앙부인은 심한 발병이 나고 또 만삭의 몸인 터라 더 이상 길을 가지 못하고 주저앉고 맙니다. 행여 남편 수행길에 방해가 될까 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하여 원앙부인은 자신을 계집종으로 팔아 그 돈으로 광유성인에게 보시하도록 청합니다. 마침 다다르게 된 죽림국의 자현장자에게, 그녀는 뱃속의 아기와 함께 몸값 금 4백량에 팔리게 됩니다.

"계집종 사소서"하고 장자의 문 앞에서 부르니, 장자가 나와 "이 여자가 진정 너의 종인가"합니다. 왜냐하면 부인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수승하였기 때문이지요. "값이 얼마면 되겠느냐?" 이에 대왕의 "처분대로 하시지요"라는 말을 가로막고, 부인은 "제 몸값은 제가 아는 것이오, 제 몸값이 2백량이고, 저의 태중에 든 아이도 댁의 종이 될 것이니 그 아이 값이 2백량입니다. 도합 황금 4백량입니다."

이제 꿈길밖엔 길이 없어

여자는 약하지만, 아내는 강하고, 엄마는 더 강합니다. 이렇게 장자의 집에 몸종으로 팔려가는 마당에도 부인은 남편의 밥 걱정과 옷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왕생게(往生偈)를 지어 줍니다. "이 왕생게를 잊지 말고 염불하소서. 그러면 그 공덕으로 굶더라도 배고프지 않으며, 옷이 더럽혀지더라도 다시 새 것처럼 깨끗해 질 것입니다."

願往生 願往生 願在彌陀會中坐 手執香花 常供養
願往生 願往生 願生極樂見彌陀 獲蒙摩頂 受記莂
願往生 願往生 往生極樂蓮花生 自ㅗㅛ-時 成佛道
원컨대 왕생하게 해주소서/ 원컨대 왕생하게 해주소서

아미타부처님 성전에서 손에 향과 꽃을 잡고 늘 공양하게 해주소서
원컨대 왕생하게 해주소서/ 원컨대 왕생하게 해주소서
극락세계에 태어나 아미타불을 뵙고 수기를 받게 해주소서
원컨대 왕생하게 해주소서/ 원컨대 왕생하게 해주소서
극락의 연꽃 위에 태어나 나와 남들 모두 일시에 불도를 이루게 해주소서

– '왕생게' 〈안락국태자경〉 본문 中

사라수대왕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신의 아기에게 '안락국(安樂國)'이란 이름을 지어주고, 서로 꿈에서라도 다시 만나자는 언약을 남긴 채 원앙부인과 생이별을 합니다. 길고도 험한 여정을 떠난 사라수대왕은 힘들 때면 아내가 지어준 이 왕생게를 외우며 고난을 극복하며, 드디어 임정사에 도착하게 됩니다. 임정사에 와서도 왕생게를 외우며 힘든 수행 생활을 묵묵히 해 나갑니다. 부인의 '왕생게'는 남편의 정신적 버팀목이 됩니다. "대왕이 금 두레박을 나무의 두 끝에 매달아 메시고 물을 길으며 다니실 때, 왕생게 염불을 놓지 않고 외우시더라." 한편, 자현장자 집의 종이 된 원앙부인은 생전 겪어보지 못한 갖은 고생과 학대를 받게 됩니다. (다음호 계속)

임정사란 어떤 곳인가?

안락국태자 이야기에는 가장 먼저 범마라국의 임정사라는 곳이 등장을 합니다.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원앙부인 극락왕생연기'라는 제목으로 〈월인석보〉 상절부에서 출처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임정사는 광유성인이 오백제자를 거느리고 중생을 교화시키는 곳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조금씩 다른 버전의 안락국태자 이야기 중에서, 특히 일붕(서경보) 스님의 불교설화집에서 임정사의 흥미로운 면모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붕 스님은 '임정사의 종소리'라는 제목으로 본 이야기를 수록하고 계신데, 제목 자체에 아예 '임정사'라는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임정사는 어느 곳에 있는 절인가. 이곳은 고래부터 성현만 모여 살고 범인은 찾아 볼 수도 없고 발도 붙일 수 없는 곳이라 한다. 다만 산 밑에 사는 사람은 흘러나오는 청아하고 아름다운 종소리만 듣고 있을 뿐 찾아 볼 수는 없는 곳이다. 설사 산에 들어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육안으로는 도저히 절과 성현을 볼 수 없다는 곳이다." 사라수대왕이 찾아 떠난 이곳은 중생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형상으로는 찾을 수 없는, 성현들만 사는 부처님의 세계라고 합니다. 임정사는 불법을 전수하여 중생을 교화하는 교단이자, 사라수대왕이 공덕을 닦기 위해 가는 수행의 공간이자, 아들 안락국이 목숨을 걸고 찾아가는 이상향입니다. 이는 〈안락국태자경변상도〉 불화의 가장 윗부분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임정사는 자신을 맑혀 청정 법계로 향하는, 극락으로 진입하는 초입구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중앙승가대 교수(불교문화재학)

謹賀新年
佛紀 2561年 丁酉年 |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고뇌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고뇌에서 벗어나 즐겁게 살자. (법구경)

지장불교 근본도량
공덕원
주지 능후 효선
사부대중일동
http://www.gongdukwon.net
■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 69번길 8
TEL 051)625-3886~7

'수행과 교육의 산실'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동화사 직할포교당
보현사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중구 문우관길 65
TEL 053)431-5400
FAX 053)255-5629
Email : bohyunsa5400@hanmail.net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신도회
신도회장 손창수
사부대중
■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1길 1(도학동 35)
TEL 010-3510-9985
사무국장 이달용

대한불교원효종 부산교구종무원
자비원
'불자의 안식처'
종무원장 석불
주지 법선
사무국장 이홍순
신도일동
■ 부산광역시 동구 조천4동 883-8
TEL 051)644-8361
FAX 051)642-8361

깨달음 · 4차산업 · 여성

올해 불교학계 주제 '풍성'

2017 주요 불교계 학회 계획은

원효 스님 탄신 1400주년을 맞는 올해 불교학계의 큰 주제는 '원효'가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동국대 불교학술원 산하 불교문화연구원 HK연구단(단장 김종욱)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을 순회하는 국제세미나를 3월부터 6월까지 연속으로 개최한다. 한국불교학회(회장 성운)는 원효 스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진 논문을 공모해 선정된 논문을 춘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보조사상연구원과 한국정토학회, 원효학연구회도 원효 스님 관련 학술대회를 준비 중이다.

'깨달음'에 대한 이해와 고찰

'원효'라는 큰 주제 이외에도 깨달음, 4차산업 등의 주제도 올해 불교학계를 풍성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최종남)는 오는 3월 11일 열리는 춘계학술대회에서 '불교와 설화'를 주제로 다룬다. 그간 불경 언해본에 담긴 불교 설화는 국문학을 중심으로 논의됐지만, 이날 대회에서는 불경 언해본을 불교사적으로 어떻게 고찰하고 이해할 것인지를 다룰 전망이다.

불교학연구회가 올해 가장 집중하는 주제는 하반기에 이뤄지는 '깨달음'에 대해서다. 불교학연구회는 9, 10, 11월 3차례에 걸쳐 추계학술대회를 연속으로 열고 초기 · 부파 · 대승 · 중국불교에 있어서 깨달음의 제문제에 대해 다룬다. 또한 3차례의 학술대회에서 모여진 '깨달음'의 논의들을 12월에 있을 동계워크숍에서 종합토론을 통해 구체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종남 불교학연구회장은 "올 하반기에 이뤄지는 깨달음 주제의 학술대회에서는 시대별, 지역별 매회 5개 주제로 발표 · 토론하고 이후 동계워크숍에서 종합적 토론을 통해 깊이 있는 고찰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하며 "이 같은 형식의 학술행사는 처음 시행된다. 이를 통해 수행에 대한 바른 이해와 대중화, 담론이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AI · 증강현실와 불교의 상관관계

한국불교학회는 오는 5월 12일 동국대에서 '원효 당대의 동아시아 불교의 지적 맥락에서 바라본 원효의 사상'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와 더불어 눈길을 끄는 것은 하반기에 진행될 '4차산업혁명과 불교' 주제 추계학술대회다.

통칭 '4차산업혁명'은 로봇이나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재와 가상이 통합돼 사물을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 물리 시스템의 구축이 기대되는 산업상의 변화를 의미한다. 인공지능부터 가상현실, 증강현실, 사물인터넷 등과 같은 신 기술이 4차산업에 들어간다.

한국불교학회는 추계학술대회에서 5개 섹션 아래 25개 주제로 해외 · 국내 학자들의 발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불교학회 법인 이사 종호 스님(동국대 불교학부 교수)은 구랍 19일 학회 동계 워크숍에 앞선 총회에서 1년 사업계획을 밝히며 "가상현실 · 증강현실과 같은 4차산업혁명과 불교의 연결지점, 포교의 활용성 등을 논하게 될 것"이라며 "익숙치 않은 분야다보니 매월 정례포럼을 통해 연구 ·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교평론 특집도 '눈길'

불교계 대표 계간 학술지 〈불교평론〉도 올해 다채로운 특집을 준비 중이다. 당장 다가오는 봄에는 '동남아시아와 불교'에 대해서 다루며, 여름호에는 최근 이슈 중 하나인 페미니즘과 불교에 대해 특집을 진행한다. 또한 가을호에는 '지속가능발전과 불교의 역할'을, 겨울호에는 4차산업혁명과 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특집을 준비하고 있다.

이도흠 불교평론 편집위원장(한양대 국문과 교수)은 "한국불교는 동남아시아 불교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필요하다"며 "지속가능발전은 21세기 인류의 지향 가치로 인식되는 만큼 이에 대한 불교적 이해와 실천방안들이 나와할 시점이다. 또한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지금 시점에서 가상공간과 인공지능에 대한 불교적 고찰 등도 앞으로 한국불교에게 필요한 주제"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제종교장' 연구 韓中日 학자 한자리에

고려대장경硏, 13일 국제학술회의 개최

일명 '속장경(續藏經)'으로 잘 알려진 〈고려 제종교장(諸宗敎藏)〉에 대한 한 · 중 · 일 학자들의 연구성과를 만날 수 있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

고려대장경연구소(이사장 종림)는 1월 13일 오전 10시 서울 안국동 '월드컬처오픈 W스테이지'에서 '동아시아 불교장소(佛敎章疏)와 대각국사 의천의 제종교장'을 주제로 고려교장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고려 제종교장〉은 대각국사 의천이 1091년부터 10년에 걸쳐 완성한 것으로 경율론 삼장에 대한 장소(章疏)를 수집해 간행했다. 의천은 개경 흥왕사에서 10년 동안 교장 문헌 1010부 4865권에 대한 필사와 교정, 판각, 인쇄, 검수해 흥왕사 대장전에 봉안했으나 1232년 몽고 2차 침입으로 모두 소실됐다.

그간 〈고려교장〉은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敎藏總錄)〉이란 고문헌에 의해서만 전해져 왔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이 문헌에 수록된 장소문헌을 일본과 중국, 국내에서 찾아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DB)화 했다.

교장 문헌들은 그간 일본과 국내 등 150여종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사결과 250여권이 확보돼 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 이미지 촬영 작업이 이뤄졌다.

이번 학술대회는 5년간 〈고려교장〉 문헌의 조사연구 성과를 공개하고 DB자료를 공유하는 첫 자리로 동아시아의 〈고려교장〉 문헌에 대한 실태와 연구,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는 데 의미가 크다.

논문 발제 역시 한 · 중 · 일 삼국의 관련 연구자들이 대거 참여한다. 한국학자 박용진 능인대학원대학교수는 '교장의 성립과 역사적 변천'을, 김성수 충주대 교수는 '신편제종교장총록의 조직 및 체계 서지학'을, 남권희 경북대 교수가 '교장 문헌연구 및 방법론'을, 최종남 중앙승가대 교수는 '간경도감본 성유식론요의등초권3, 4의 판본대조 연구'를, 서대원 충북대 교수가 '교장의 서명에 대한 제고(Ⅱ)'를 각각 다룬다.

해외 학자는 팡광창 중국 상하이사범대 교수가 '약담 탁덕본(卓德本) 〈전당서호소경사결정사집〉 고려의천인쇄 휴거본'을, 오치아이 토시노리 일본 국제불교학대학원대학 교수가 '일본장소의 현상과 과제'을, 이시츠카 하루미치 고산지(高山寺) 책임역원이 '고산지본 의천록과 고산지경장'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려교장' 실태 · 역사 살필 기회

한 · 중 · 일 관련학자 대거 참여

이번 국제학술대회에 대해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지난 5년간의 '고려교장 결집 및 DB구축사업'은 고려대장경의 계보를 되찾고, 1232년 이후 사라졌던 고려대장경의 새로운 귀환을 통해 디지털 고려대장경의 공유를 위해 추진됐다"며 "이번 학술회의는 한 · 중 · 일의 학자들이 각국에서 소장되고 있는 〈고려교장〉 문헌에 대한 실태와 연구 그리고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첫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천태종 정체성 분석한 '천태학연구' 19집 발간

천태불교문화연, 구랍 30일



천태종 총무원과 천태불교문화연구원이 발간하는 〈천태학 연구〉 19집이 발간됐다.

〈천태학 연구〉 19집은 '천태종의 한국적 특성과 그 정체성'을 주제로 한 천태불교학술대회의 발표논문을 특집으로 실었다.

주요 논문으로는 '천태종의 정체성 확립과 그 방향(이봉춘)'을 비롯해 '천태종의 수행체계와 생활불교(이광도)', '천태종 출가자의 일상행의와 제도(고우익)', '천태종에 있어서 불교문화전통의 계승과 발전 방향의 새로운 모색(석길암)' 등이다.

또한 연구논문으로는 '천태종의 이념과 진로- 〈법화경〉은 무엇을 제시하는가(권기종)', '천태종 세계화의 이념과 방향(정병조)', '십선계의 수지와 그 승속 공통계적 특성(백도수)' 등이 수록됐다. 신성민 기자

월정사 석조보살상 국보 승격됐다

국보 제48-2호로 지정
'월인천강지곡' 권상도
사리장엄 등 6건 보물로
보물 지정 예고도 잇달아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 석조보살좌상이 국보로 승격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월정사 석조보살좌상과 〈월인천강지곡 권상〉을 국보로, 금강산 출토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 일괄 등 6건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1월 3일 밝혔다.



국보 제48-2호로 지정된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국보 제48-2호로 지정된 월정사 석조보살좌상은 본래 국보 제48호 월정사 8각 9층석탑의 남쪽 전방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공양을 올리는 모습을 하고 있어, 탑과 보살상은 하나의 구성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돼 왔다. 하지만 탑은 국보로, 공양보살상은 보물로 지정돼 그간 별개의 문화재로 인식됐다.

이번 승격에 따라 월정사 8각 9층 석탑과 석조보살좌상은 하나의 문화재로 인식돼 '탑전(塔前) 공양보살상'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탑전 공양보살상은 이전에는 찾기 힘든 고려 전기적 특징인 동시에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도상과 구성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면서 "국보로 지정된 석탑과 묶어 국보로 승격하여 조성 당시의 조형적, 신앙적 의미를 모두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보 제320호 '월인천강지곡 권상'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 가장 빠른 시기에 지어져 활자로 간행된 점에서 창제 후 초기의 국어학 연구와 출판인쇄사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헌임을 인정받았다.

또한 태조 이성계가 조선 건국 직전 신하들과 함께 발원한 금강산 출토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 일괄(보물 제1925호)과 국새 황제지보(보물 제1618-2호), 국새 유서지보(보물 제1618-3호) 등 6건이 보물로 지정됐다.

보물 지정 예고도 이어졌다. 문화재청은 경주 불국사 삼장보살도와 곡성 도림사 아미타여래설법도 등 7건을 구랍 12월 29일 보물 지정 예고했다.

경주 불국사 삼장보살도는 1739년 밀기(密機), 채원(彩元), 서징(瑞澄) 스님 등 경북지역 화승들이 경주 거동사(巨洞寺) 오주암(五周庵)에서 제작해 불영사에 봉안했다는 화기가 남아있어 18세기 전반기 삼장보살도 도상 및 화풍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됐다.

곡성 도림사 아미타여래설법도는 도림사 보광전의 후불화로 봉안된 것으로 18세기 전반기 화풍과 화사(畵師) 간 교류를 통한 화맥의 전승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작품이다.

이밖에도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을 비롯해 김윤겸 필 영남기행화첩, 청자 상감퇴화초화문 표주박모양 주전자 및 승반, 청자 죽순모양 주전자, 청자 투각연당초문 붓꽂이가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원효 사상이 인문학에 미친 영향은?

동국대 세계불교학硏, 3월 18일 학술대회

원효 스님의 사상이 한국 인문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소장 고영섭)는 3월 18일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분향 원효가 한국 인문학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제6차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원효 탄신 1400주년을 맞아 원효 스님 사상이 한국의 문학, 역사, 철학, 종교, 예술 분야에 미친 영향을 총체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1, 2부로 나눠 진행되는 세미나에는 정효구 충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원효가 한국문학에 미친 영향'을, 동국대 불교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전준모 씨가 '원효가 한국사학에 미친 영향'을,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가 '원효가 한국철학에 미친 영향'을 1부 시간에 발표한다.

2부에서는 송현주 순천향대 교양학부 교수가 '원효가 한국종교에 미친 영향'을, 강소연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가 '원효가 한국예술에 미친 영향'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박수빈 상명대 국어국문학과 외래교수, 김상영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 김원명 한국외대 철학과 교수, 김영일 동국대 불교학과 외래교수, 주수완 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외래교수가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연인원 7만명이 관람하는 힐링전문 템플스테이도량
선무도 공연과 함께하는 골굴사 성지순례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운다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사천왕 四天王 DEVAS GUARDIAN
1500년 마애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소멸하는 골굴사
【주변성지 :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중릉】
◈공 연 내 용 : 선무도 · 승군의 검무 · 화랑의 봉술 · 아수라의 바라무 · 사천왕의 탈춤 선무드라춤 테라피 · 힐링살풀이 · 불교전통무용 · 민요
◈ 템플라이프(유료) : 선무도체험 · 공연관람 · 공양(식사)
◈ 선무도 지도자 과정 신입생 모집 : 2년 전액 무료 (홈페이지 참조)
◈ 선무도 공연 ◈
오후 3시 30분 (무료공연)
월요일은 쉽니다.
◈ 선무도 수련원 ◈
· 서울본원(종로) 02)763-2980
· 서울 강남지원 02)599-5554
· 부 산 본 원 010-2554-8100
· 울 산 지 원 052)276-6271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재)선무도 대금강문
☎ 054)744-1689 / 775-1689 www.sunmudo.com

종 도 모 집
문화관광부 허가 2009-2호 / 제2014-9호 / 등기번호 230121-0003919
(사)한국불교조계종승정원
종 정 승천 진성 대종사
총무원장 현문 현각
불조의 혜명을 받들어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정진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승가의 길을 함께 가시고자 하시는
제방의 스님들과 인연있는 불제자님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수희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입종서류 : 주민등록초본, 반명함판 사진 3장, 사찰(법당)사진
■ 문 의 : 총무원 - 인천 서구 가정동 494-26 원각사
전화 032)578-2122. 010-5002-7392(총무원장)
(사)한국불교조계종승정원 총 무 원

面壁觀, 망상 쉬는 좋은 약

〈면벽관〉



지안 스님의 〈선화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중국 선종의 시조를 보리달마(菩提達磨:Bodhi- dharma)라 한다. 선종의 전등 계보로 치면 인도로부터는 28대 조사이며, 중국에 와서 새로운 선법을 창안하였기 때문에 중국 선종에서는 달마를 초조로 삼게 되었다. 달마의 생몰연대와 중국도래 시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설이 있으나 양(梁)나라 무제(武帝) 때 중국으로 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달마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문헌에 따라 차이가 있어 그의 출신지를 파사국(波斯國), 향지국(香至國), 바라문국(바婆羅門國), 남천축국(南天竺國) 등이라고 하며 후대에 성립된 자료에는 그가 향지국의 셋째 왕자였다고 한다. 인도에서 제 27조인 반야다라(般若多羅)의 법을 전해 받은 후 중국으로 온 것으로 되어 있다. 〈보림전〉에는 달마가 중국에 온 해를 527년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불교를 크게 장려하여 불심천자(佛心天子)라고 일컬어지던 양무제를 만나 무제의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 준다. 무제는 은근히 자신이 불교를 크게 장려한 치적을 자랑하며 자신에게 공덕이 성취된 게 있느냐고 물었다. 왕의 이 물음에 달마는 '아무 공덕이 없다.(無功德)' 고 하였다. 유루공덕(有漏功德)을 참된 공덕으로 보지 않는 무루공덕(無漏功德)의 입장에서 한 말이다. 이때 왕과 나눈 대화는 분위기상으로 보아 매우 어색했던 것 같다. 하기야 감히 어전에서 왕의 업적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무제를 만난 이후 달마는 선법을 펼 시절인연이 여의치 않음을 알고 숭산(崇山)의 소림사(少林寺)로 들어간다. 여기서 달마가 9년 동안을 면벽을 했다 하여 '소림면벽(少林面壁) 9년' 이라 한다.

면벽(面壁)이란 좌선을 할 때 얼굴을 벽을 보고 앉는 자세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말이 단순히 좌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경론 등 문자에 의한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관하여 깨달음을 얻는 선종의 수행법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 그리하여 면벽관심(面壁觀心)이라는 사자성어가 또 생기게 되었다. 그러다가 이 말을 다시 줄여 벽관(壁觀)이라 하였다. 벽관의 벽과 면벽의 벽은 그 뉘앙스가 다르다. 물론 둘 다 좌선 수행을 두고 쓴 말이지만 벽관이란 몸과 마음이 벽이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어떤 번뇌나 망상이 침입할 수 없는 삼매의 경지를 두고 벽관이라 하는 것이다.

〈경덕전등록〉 3권에 수록되어 있는 〈보리달마전〉에는 벽관의 뜻이 나타나는 말이 나온다. 달마가 그의 법을 이은 제자 혜가(慧可)에게 도(道)에 들어가는 입도방편을 일러준 말이 있다.

"밖으로 모든 대상에 대한 집착을 쉬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거림이 없어서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外息諸緣 內心無喘 心如牆壁 可以入道)

〈능가사자기(楞伽師資記)〉 〈보리달마장〉에도 벽관에 대한 설해 놓은 대목이 있다.

"만약 망상을 버리고 참된 근원으로 돌아가 마음을 통일시켜 벽관(壁觀)에 머물게 되면 나도 없고 남도 없으며, 범부와 성인이 평등하여 견고하게 머물며 움직이지 않게 된다. 더 이상 문자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면 진리에 합치되어 분별이 없어지고 고요해져 무엇이 어떻다 말할 수가 없다. 이런 경지를 '이치로 들어간 것(理入)' 이라 한다.(若有捨妄歸眞 凝住壁觀 無自他 凡聖等一 堅住不移 更不隨於言教 此卽與眞理冥狀 無有分別 寂然無名 名之理入)

이러한 문헌들의 이야기는 초기 선종에서 벽관을 매우 중시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달마로부터 600년이 지난 대혜종고의 시대에 와서도 참선을 지도하는데 벽관으로써 하고 있는 것이 나타난다.

〈서장〉에 대혜선사가 왕내한(汪內翰)에게 답한 편지에 벽관을 망상을 쉬는 좋은 약이라고 말하고 있다.

"문을 걸고 벽을 보고 앉아서 마음을 관한다고 하니 그것이 마음속의 망상을 쉬는 좋은 약입니다. 만일 다시 낡아빠진 글귀를 파고들어 근본을 알려고 한다면 틀림없이 장식(藏識) 중에 있는 시작도 없는 생사의 뿌리와 싹을 끌어일으켜 선근이 자라기 어렵게 만들고 도를 장애하는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융합하는 것이 성품이고 마음



진원 스님의 깨달음 찾는 〈금강경〉

②마음의 작용

만약 지금 나에게 싫어하는 생각이 있다면 이 싫어하는 생각이 작용으로, 작용이 있거나 작용하기 위해서는 본체가 있어야 하는데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좋아하는 생각이 본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작용이 없으면 본체가 없고 본체가 없으면 작용도 없으며, 작용은 스스로 있지 못하고 자신을 인식 하지도 못합니다. 작용은 본체로 인하여 있으며, 본체로 인하여 인식하는 것입니다. 본체도 이와 같습니다. 본체와 작용의 자신은 무아(無我)이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대상으로 인하여 없으므로 없는 것도 아닙니다. 본체와 작용은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닙니다. 본체와 작용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융통하기 때문입니다. 티끌 수와 같은 모든 분별의 상대법은 본래 서로 대립하지 않고 상대성으로 서로 의존하여 있기 때문에 융통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장무애(無障無碍)하여 융합하는 것이 성품이고 마음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눈과 귀는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보이는 대상과 들리는 소리가 눈과 귀의 존재를 알려주며, 보이는 대상과 들리는 소리 역시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알지 못하고, 눈과 귀가 보이는 대상과 소리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손가락과 칼도 자신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 더듬어지는 대상과 잘리는 대상이 손가락과 칼의 있음을 알려주며, 더듬어지고 잘리는 대상의 존재는 손가락과 칼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生)과 사(死)도 서로 대상으로 인하여 있으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대상으로 인하여 없기 때문에 없는 것도 아닙니다. 생과 사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진공(眞空)이라 하고, 생과 사가 진공이 되어 서로 융통하는 것을 없는 것도 아닌 묘유(妙有)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일체의 존재와 분별의 생각은 스스로 있지 못하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대상으로 인하여 없으므로 없는 것도 아니며, 서로 융통하여 있으므로 묘(妙)하게 있는 것입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우리들이 물질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학문이 물리학입니다. 이 시대는 발전된 과학의 연구 결과가 자주 신문, 방송으로 발표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리학과 천문학 등에 깊은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날 KBS 2TV는 특집 프로그램으로 '코스모스 프로젝트 천체의 재구성' 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하였습니다. 방송의 끝부분에서 발표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5% 정도는 알고 있으나 나머지 95%는 아직 모르고 있으며, 우리가 물질을 완전히 알게 된다면 참으로 좋을 것이다" 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5%는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며, 과학이 더욱 발전하면 물질이 무엇인지 완전히 알 수 있는 것인가? 우리들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물질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물질은 스스로 알지 못하고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대상인 생각과 마음으로 인하여 있으며, 생각과 마음 또한 스스로 알지 못하고 존재하지 못하고, 물질로 인하여 알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질과 마음이 따로 있지 않고 본래 서로 융통하여 있는 것을 물질과 마음이 따로 있다는 생각으로 물질을 알려고 한다면 영원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일체가 서로 융통한다는 것은 안다, 모른다 하는 모든 분별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무심(無心), 무념(無念)이 융통하는 것이고, 일체가 융통하면 물질이 마음이고 마음이 물질로, 물질과 마음이 다르지 않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이름을 붙여 놓고 그 이름만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하루

하루의 절반은 낮이요 절반은 밤이다. 절반은 빛이요 절반은 어둠이다. 하루는 길면서도 짧다. 짧으면서도 길다.

〈법구경〉에 박힌 말씀처럼 '지친 자에게 길은 멀고 잠 못 이루는 자에겐 밤이 길다.' 하루 또한 그렇다.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건강하여 즐거운 일이 많으면 하루는 짧다. 마음이 복잡하고 몸이 불편하여 걱정이 풀리지 않으면 하루는 길다. 즐거우면 시간이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지만 슬프면 시간이 멈춘 듯 더디게 흘러간다.

즐거운 만남에는 시간이 화살처럼 빠르다. 부담스런 만남에는 시간이 거북이처럼 더디다. 어머니가 타준 커피는 덤덤하지만 애인이 타준 커피는 향기롭고 신비롭다. 친구의 농담도 기분에 따라 웃을 수도 있지만 짜증이나 시비로 번질 수도 있다. 아침 기분이 설레면 하루가 빛으로 가득하다. 아침 기분이 우울하면 하루가 어둠으로 칙칙하다.

같은 음식도 마음의 변화에 따라 꿀맛일 수 있고 역겨운 맛이 될 수도 있을 터이다. 반가운 만남이 많아 하루가 즐거울 수도 있고 맨숭맨숭한 그렇고 그런 만남이 이어지면 하루가 피로해 지칠 수도 있을 것이다.

빛(낮)과 어둠(밤)이 둘이 아닌 하나이듯이 설렘과 우울증은 마음의 울림에서 비롯된다. 행복과 불행 또한 동전의 앞뒤처럼 한 몸의 느낌 변화로 좌우된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 또한 진하듯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 마련이다. 넘침은 부족함만 못한 것이다. 소욕지족(少欲知足)처럼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한다. 비우고 나누는 생활 습관으로 즐거움을 길들이며 살 일이다.

하루는 짧지만 24시간으로 짜여 있다. 하루는 길지만 순간순간의 느낌으로 윤회(輪廻)한다. 하루 동안에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짐승이 될 수도 있다. 이용자가 될 수도 있고 이용당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 사냥꾼이 될 수도 있고 사냥감이 될 수도 있다.

빛이 될 수도 있고 어둠이 될 수도 있다. 보살이 될 수도 있고 투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천사와 악마는 깃털의 하나의 무게로 뒤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빛으로 충만한 하루는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어둠으로 가득한 하루도 누구에게도 머물지 않는 법이다.

누구에게나 행복과 불행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빛처럼 다가왔다가 어둠처럼 사라지는 것이다.

하루를 짧게 표현하자면 물음표와 느낌표일 터이다. 간간이 쉼표와 마침표도 끼어들 수 있을 터이다.

하루를 여는 아침의 느낌, 사람을 만나는 처음의 느낌, 일을 시작하는 예감의 느낌이 쉼표로 물음표로 마침표로 오고가며 시작과 마무리를 하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사이에는 느낌과 선입견보다 대화와 이해, 배려가 있어야 삶이 풍요로워진다. 대화의 단절과 이해의 결핍은 틈을 만들고 벽을 만들어 스스로 로빈슨크루스가 되기 때문이다. 포대화상이나 산타할아버지는 전설 속에 숨어있는 게 아니다. 나누고 베풀며 이해하고 배려하는, 칭찬하고 용서하는 열린 마음에 살아 있는 것이다.

얻어먹는 짜장면 맛보다 내가 사주는 짜장면 맛이 감칠맛 나고 개운할 터이다. 칭찬하고 격려하며 대화하고 이해하며 배려하며 살 일이다.

하루에 내 인생의 전부가 담겼다

마음 열어야 하루의 행복 찾는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어느 모임, 어떤 장소에도 미운사람은 꼭 끼어 있기 마련이다. 인생팔고(人生八苦)에는 생(生)·노(老)·병(病)·사(死)와 함께 원증회고(怨憎會苦)도 끼어 있는데 미운사람을 만나는 괴로움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운자도 보내고 나면 마음이 짠하게 아려올 터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愛別離苦) 것만이 괴로운 게 아니다. 미운 친척도 떠나고 나면 그 빈자리에 마음 아린 서운함이 깃드는 것이다.

하루는 짧고도 길지만 후회로 남을 일을 줄여 가야한다. 자랑으로 남고 아름다움으로 남을 추억의 바벨탑을 쌓아야 한다. 생각이 바뀌어야 하루의 보람과 행복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이 열려야 평화와 자유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낮과 밤이 반반이어야 하루인 것이다. 본래 빛과 어둠은 둘이 아닌 하나인 것이다. 하루에는 내 인생의 전부가 담겨있다. 마음 열고 살 일이다.



• 공단등(8cm) @3,000원
• 바림등(8cm) @3,000원
• 신공단등(8cm) @3,000원
• 황금연등(8cm) @3,500원



일반연잎 6,000



바림연잎 7,000



국산 LED전구(50개) 85,000원



청도만월등 160,000



방수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 22cm (50구) @65,000
• 23cm (50구) @65,000
• 25cm (50구) @65,000
• 30cm (50구) @65,000
• 35cm (50구) @70,000
• 40cm (50구) @73,000
• 50cm (50구) @75,000
• 1 m (50구) @90,000
• 2 m (25구) @80,000



한지 삼재풀이
할인가 700원(100개이상)
정 가 9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삼베 삼재풀이
할인가 800원(100개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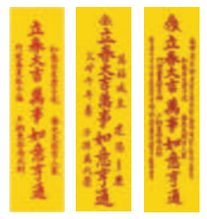
음양오행 만재풀이
할인가 800원(100개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신년맞이기도부
할인가 800원(100개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한지입춘대길(大/小/2도)
판매가 12,000원 大 (10×43cm)
10,000원 小/2도 (7×30cm)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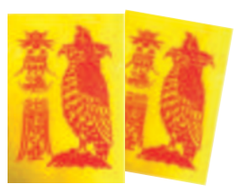
경면입춘대길
판매가 6,000원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 크 기 : 6.5×23cm



입춘대길(大/小)
판매가 3,000원 / 2,500원
• 포장 : 100매 비닐포장
• 크기 : 大 7.5×28.5cm (흰색/노랑)
小 5×19.5cm (노랑)



금지경면 종합부
판매가 800원(금지)/600원(경면)
• 크 기 : 60×7cm (빨강/노랑)
• 포 장 : 개별 봉투포장



경면삼매삼재부
판매가 6,000원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 크 기 : 10×15cm / 9×14cm



경면삼재부
판매가 6,000원(100매)
• 크 기 : 8.5×17cm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경면삼재부
판매가 6,000원(100매)
• 크 기 : 8.5×17cm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한지 세뱃돈봉투
판매가 10,000원 (100매 포장)
A : 흰색 / C : 노랑 –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B : 흰색 / D : 분홍 – 참 좋은 인연입니다.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54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0-3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 : 121068-56-042256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천진불 하모니로 불국토 세울 것”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 ‘제1회 연합합창제’ 개최

제주 약천사 등 전국 4개 사찰
“사찰 규모 작아도 할 수 있다”
어린이 합창단, 가족법회로 이어져
어린이 포교 · 인성교육 등 효과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 스님들이 어린이 포교를 위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관음사 주지 영산 스님, 제주 약천사 주지 성원 스님, 관음사 회주 지현 스님, 함양 서암정사 주지 법등 스님, 영도 대원사 주지 담화림 스님.

“천진불은 부처님의 환희이며 기쁨이자 희망입니다. 찌들고 힘든 세상에 어린이는 존재 자체로 힐링이며 삶의 힘이 됩니다. 천진불 세상을 꿈꾸며 연합합창단을 조직하고, 이제 첫 공연을 시작합니다.”

미래 불교의 동량, 맑고 밝은 천진불의 세상을 꿈꾸는 스님들의 행보가 시작된다.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회장 성원, 이하 합창단연합회) 증명법주 지현 스님(관음사 회주)은 1월 4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18일 오후 6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서 열리는 제1회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제 ‘새처럼 날아라 별처럼 빛나라’ 의미를 설명했다.

합창단연합회는 제주 약천사 주지 성원 스님, 함양 서암정사 주지 법등 스님, 부산 영도 대원사 주지 담화림 스님, 부산 관음사 주지 영산 스님이 어린이 포교를 위해 구성한 조직이다. 각 사찰은 ‘리틀붓다어린이합창단’, ‘상림어린이합창단’, ‘대원선재합창단’, ‘단이슬어린이합창단’ 등 합창단을 이끌고 있다.

스님들은 합창단의 긍정적 포교 효과를 설명하며, 이번 첫 공연을 시작으로 전국 어린이 불교 합창단 활동 지지에 앞장설 것을 천명했다.

회장 성원 스님은 “지금은 4개 사찰이 참가해 규모는 작지만 전국으로 확장해 더 많은 사찰이 참여하도록 활동 영역을 넓힐 것이다. 특히 합창단을 조직하려 하지만 역량이 안 돼 도움이 필요한 곳은 정보를 교류하고 힘을 보탤 것”이라고 전했다.

스님들은 합창단 활동이 ‘젊은 불교’에 다가가는 바탕이 된다고 했다. 어린이 활동을 지지하는 자모 모임이 자동으로 구성돼 사찰에 활력을 준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찰서 운영하는 복지 기관에서 어린이들이 음성공양으로 봉사 활동을 펼쳐 인성 교육 효과도 볼 수 있다. 이뿐 만이 아니다. 자칫 어려울 수 있는 부처님의 법을 음악을 통해 쉽게 접하며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한 사례로 영도 대원사 주지 담화림 스님은 1년 만에 50여명의 어린이들이 사찰을 찾고 자모 모임이 구성되어 지역 내 가장 젊은 사찰로 변모했다고 설명했다. 담화림 스님은 “저희 사찰은 범어사 240여 말사 가운데 가장 작은 사찰로, 노보살님들 몇 분이 찾는 정말 작은 도량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스님은 “10여명의 어린이를 처음 모아 단복을 지원하고 지역을 돌며 홍보했다. 그 효과로 현재 어린이와 자모를 합쳐 100여명이 찾는다. 자리가 비좁아 지난 12월에는 대원문화회관도 문을 열고 기타, 해금반, 다도반 등 다양한 문화 수업도 시작했다”며 “유치부를 위한 공간도 필요해 불사도 했다. 현재 영도 내 가장 젊은 사찰일 것”이라고 효과를 설명했다.

아울러 담화림 스님은 합창단을 운영하고 싶어도 여력이 안 되는 사찰들에게 “영도 대원사처럼 작은 곳도 해냈다는 것에 힘을 얻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함양 서암정사 주지 법등 스님은 “우리 사찰은 산 속에 있어 읍내에서도 40분이 걸리는 곳에 위치한다. 3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어머니들 뿐 아니라 아버지들의 관심이 커서 가족법회에 초석이 됐다”며 “단복을 입고 활동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활기차고 시골에서 문화활동을 위한 장으로 자리 잡았다”고 소개했다.

관음사 주지 영산 스님은 “어린이 찬불가 콘텐츠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더 많은 찬불가를 개발하고 부처님 법을 담도록 방향을 이끌 것”이라며 “이번 첫 연합 합창제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합창제는 제주 약천사 리틀붓다 어린이합창단의 눈꽃송이 외 3곡으로 시작해 ‘상림어린이합창단’, ‘대원선재합창단’, ‘단이슬어린이합창단’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청공불교남성중창단의 특별 공연이 이어진다. 공연은 무료 초대석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051)864-4569~70

하성미 기자

“낡은 구각 깨고 활보하는 새처럼 날길”

부산불교, 신년하례회 통해 화합과 결속 다짐


부산불교연합회는 1월 5일 코모도 호텔 1층 그랜드볼룸서 ‘부산불교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하고, 새 주요 사업을 발표했다.

부산불교가 2017 정유년을 맞아 신년하례회를 봉행하고, 불국토 건설과 부산 발전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는 1월 5일 코모도 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부산불교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부산불교연합회는 화합과 결속을 바탕으로 부산불교와 문화발전에 도모하고, 공익을 위한 지역 사회와 국가발전을 지향할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할 뜻을 밝혔다.

회장 경선 스님은 “올해는 닭의 해, 정유년이다. 모든 새는 알을 깨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의 생명이 태어난다. 자신을 보호하고 성장시켰던 단단한 껍질을 스스로 깨는 것은 어린 새의 숙명”이라며 “낡은 구각을 깨고 세상을 활보하는 자유의 상징이 되는 새처럼 성장하고 발전하는 부산 불교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신년하례에는 회장 경선 스님을 비롯해 사무총장 정산 스님, 박대성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서병수 시장 등 사부대중 800여명이 동참했다.

(사)부산불교승가연합회(회장 조연, 이하 승가연합회)는 1월 4일 코모도 호텔 1층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승가연합회는 신년 하례를 통해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발원하며 저소득층 지원, 경로효친사상 고양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사무총장 혜창 스님은 “본회는 창립 당시부터 불우이웃돕기 헌금을 비롯해 월동용 연탄지원, 출산 장려, 한부모가정 지원 등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펼쳤다. 271개 회원 사찰이 전력투구 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매진해 나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장 조연 스님은 “국가 발전과 정치 안정, 국민의 행복과 부산 시민의 복리 증진을 기원하는 부처님 전의 기도는 새해 첫날 모든 이의 원력으로 뜻 모은 것”이라며 “부처님의 무량무변한 가피를 힘입어 원력을 널리 펼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승가연합회 신년하례회에는 흥교 스님(창원 성주사 회주), 도성 스님, 경담 스님 및 서병수 부산시장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어려운 이웃돕기에 부산 불자 ‘한마음’

남구불교聯, 이웃돕기 성금 전달



부산 남구 지역민을 위해 불교가 한마음으로 뭉쳤다.

남구불교연합회(회장 지원)는 1월 3일 부산 남구청 5층 대회의실서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남구불교연합회는 2013년 ‘수영구 · 남구 불교연합회’에서 분리된 후 재창립해 그 역사가 짧다. 하지만 창립 후 나눔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매년 이웃 자비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또한 지역 회원 사찰 80여개와 신도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하는 일일 찻집은 한해 마무리와 시작을 나눔행으로 연결하는 장이다. 이번 성금도 지난해 11월 20일 용호종합사회복지관서 개최한 일일찻집서 모은 수익금이다.

성금은 남구청을 통해 용호종합사회복지관, 남구노인복지관, 남구장애인복지관 총 3기관에 전달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고루 분배될 예정이다.

남구불교연합회는 2014년부터 매년 1,000만원 이상 성금과 후원품을 전달하고 있으며 올해는 성금 600만원과 쌀 2,010kg을 후원했다. 회장 지원 스님은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겨울, 잠시나마 시름을 잊고 행복하시길 바란다”며 “나눔 활동에 마음을 보태준 회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마음챙김으로 자기불안 떨쳐보자

부산 시선원, 마음챙김 자기연민 프로그램 실시

실망과 좌절은 곧장 자신에 대한 비하와 질책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자기 비난과 불안의 늪에서 벗어나 마음의 새 길을 얻는 법을 일러주는 강의가 시작된다.

부산 시선원(우현 법사)는 ‘마음챙김 자기연민(MSC, Mindful Self-Compassion)’ 프로그램을 1월 15일~2월 12일 매주 일요일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시선원 명상실에서 진행한다.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이며, 강사는 우현법사(마음챙김교육원 원장)가 직접 진행한다. 선착순 15명이며 회비는 30만원이다.

프로그램은 △마음챙김적 자기연민 발견하기 △일상에서의 자기연민 △우리의 가슴 일깨우기(자애실습) △연민적인 목소리 발견하기 △깊이 있는 삶 △힘겨운 감정 만나기 △힘겨운 관계의 전환 △당신의 삶 포용하기 순으로 이어진다.

시선원은 “MSC는 미국 하버드 의대 임상심리전문가 Christopher K. Germer 박사와 텍사스대 심리학과 교수 Kristin Neff 박사가 함께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전문성이 보장된다”며 “마음챙김인 지혜의 영역과 자기연민인 자비의 영역서 삶의 고통을 건강하게 다루는 연습을 한다. 자신을 친절하게 돌아보고 나아가 타인과도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051)746-7611

하성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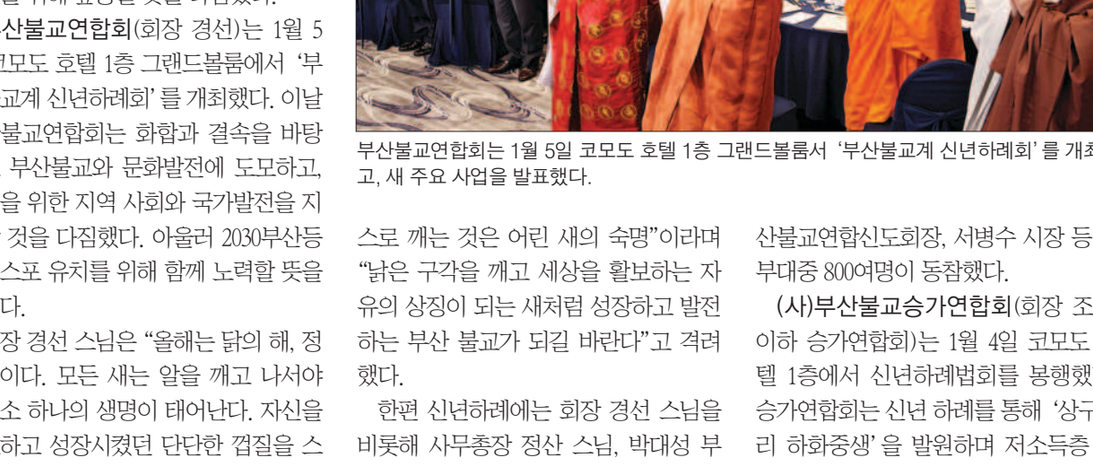
불국사, 성도재일 전야 기념 대법회



경주 불국사(주지 종우)는 1월 4일 불국사 부설 문화회관 3층 강당에서 성도재일 전야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 자리에는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 관장 종상 스님, 학장 덕민 스님, 이영숙 불국사 신도회장, 최양식 경주시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불국사 관장 종상 스님은 “성불, 불국정토로 가는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는 불퇴전의 용기로 하루 속히 성불하고, 그 위대한 위력으로 우리민족의 숙원인 남북통일이 하루 속히 이뤄져, 온 세상이 자비와 평화로운 세계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라고 발원했다.

회주 성타 스님은 “팔고행과 쾌락을 탈피하는 중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부처님의 사상을 실천할 때 건전한 몸과 정신이 행복하게 되니, 공생의 자연원리를 잘 알아 실천하는 것이 성도의 의미가 있다”고 법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문화재기능인목조각 제5772호 · 대한민국대한명인수미단 제483호
보리수불교예술원
Daum NAVER
네이버는 검색창에서 보리수불교예술원 검색 ⇨ 카페 앨범 검색 ⇨ 목록 검색하시고,
다음에서는 다음카페 검색하시면 사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상, 닫집, 수미단, 사천왕, 건축, 목탱화, 법상, 경탁,
경상, 현판, 주련, 복전함, 인등, 연, 단청, 개금

대표 오동렬 합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154-10 wangborisu@hanmail.net
전화 031)573-1269 / 010-5254-7596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연등(등표)사다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행렬 용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전 선 시 공

“불교음악 현대화로 포교 매진”

호남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피아니스트 송지해 씨

“음악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포교활동을 하는 것이 꿈입니다. 청소년 포교만이 불교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20여년 전 군산의 작은 사찰법회에서 찬불가를 연주하던 예닐곱 살의 귀여운 소녀가 어느덧 훌륭한 피아니스트로 성장했다. 독일 뮌스터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1월 7일 연세대 금호아트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성황리에 마친 피아니스트 송지해(법명 보리 · 사진) 씨다. 그는 피아니스트로서 음악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야무진 포부를 밝혔다.

“서울과 호남지방의 불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은 교세가 약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스님들도 많이 보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엄한 스님보다는 친근한 스님으로 좀 더 대중에게 다가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스님을 아버지로 둔 덕에 어려서부터 불교가 익숙하고, 불교가 곧 생활 속에 묻어 있다는 송지해 씨는 기독교 재단서 운영하는 예술고교를 다니면서 보이지 않는 차별도 많이 겪었다고 토로했다. 전공한 음악이 서양음악이고 종교음악이 많이 포함돼 있어 이런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전했다. 심지어 공연에서까지 제외되는 아픔도 겪었다. 하지만 이 같은 고난도 그의 불심을 꺾진 못했다.



송 씨는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가 주최하는 강습에 참가하면서 지역 어린이 ·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을 느껴 강사로도 활동했다. 이후 점차 지방서 음악을 통한 불교포교에 나서야겠다는 생각을 굳혔다.

“불자 청소년들이 당당하게 불자임을 밝히고 법회에 참석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런 현실은 스님과 어른들의 책임이 큽니다.”

그는 음악을 통한 포교를 결심하면서 부전공으로 한국무용과 국악도 공부했다. 불교음악 현대화를 위해서다.

“어느 해인가 군산 주한미공군 초청을 받아 부채춤과 삼고무를 공연하면서 ‘원더풀’을 외치는 미국인들을 봤어요. 국악과 서양음악의 조화를 통한 불교음악 현대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국악과 피아노를 접목한 찬불가를 만들어 보급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쉽게 다가가기 힘든 불교동요나 어린이 찬불가 등을 클래식 음악에 접목해 직접 작곡할 계획이다. 현재 작곡한 습작들을 다듬어 세상에 내놓는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의 강사와 음악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지역에도 어린이 포교를 담당할 조직을 구성하고, 동양음악과 서양음악을 접목한 퓨전음악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자신의 역량이 더욱 무르익으면 불교 전통의식인 영산작법과 서양음악인 피아노의 접목도 시도할 계획이다.

“불자가 부족하다거나 불교인재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 힘을 쏟지 않은 불교계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불교인재를 육성하는 일에 불교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꾸준하게 무대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송 씨. 음악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겠다는 젊은 불자의 포부에 지역 불교계가 거는 기대가 크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연초부터 봉축 박차 가하는 광주불교계

1월 3일, 광주지역 연합성도재일법회 봉행
봉축일정 발표, 빛고을불자대상 시상도



광주불교연합회를 비롯한 광주지역 단체들이 1월 3일 성도재일 연합기념법회를 봉행하고, 부처님전에 삼귀의를 올리고 있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를 비롯한 광주지역 불교단체는 1월 3일 KT광주센터 3층 대강당에서 ‘불기2561년 부처님 성도재일 연합기념법회’를 개최하고, 성도재일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를 진행하며 2016년 빛고을불자대상을 선정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을 비롯해 광주불교연합회장 연광 스님, 동원사 회주 지각 스님 등 회원사찰 스님 50여 명과 이범식 신도회장, 윤장현 광주시장, 박주선 국회의원, 천정배 국회의원, 김성환 동구청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운집했다.

불교유치원인 연화유치원생들의 무용으로 시작된 1부 행사는 불교의례, 축사, 인사말, 빛고을불자대상 시상, 장학금 전달 등이 이어졌다. 또 봉축행사를 안내하는 영상 상영과 성도재일을 기념하는 예불, 법문(현응 스님), 정근, 사홍서원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현응 스님은 이날 법문을 통해 “부처님이 이루셨다는 도의 내용은 두 가지 특성이 있다고 본다. 보통 밝음은 지혜, 따뜻함은 자비라고 말하지만 큰 밝음과 큰 따뜻함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이루셨다는 도의 핵심내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광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성도재일을 맞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나가는 불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이범식 광주불교연합회 신도회장은 축사에서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생명은 절대적 가치로 평등하다는 것이며,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은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근본적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만물만생을 사랑하셨던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바르게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귀한 나침반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2016년 빛고을불자대상 시상이었다. 대상자로는 김영섭 자비신행회 사무처장이 선정됐다. 연광 스님은 “김영섭 씨는 광주지역에서 25년간 활동하면서 불교교육, 복지, 문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불교발전에 기여했으며, 특히 지난해 사찰음식체험관을 만들어 청년식당, 어린이식당 등을 기획해 불교포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수상자 선정이유를 설명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순금으로 만든 불교메달이 수여됐다.

법회에서는 2017년 봉축행사 일정도 함께 발표됐다. 4월 14일 봉축탑 점등식에 이어 전통등전시회(4/14~5/8), 본 행사(4/29, 어울림한마당 · 관등법회 · 연등행렬 · 대동한마당)가 차례로 열린다. 행사 준비를 위해 전통등 만들기 강습회(1/13~15), 율동 강습회(1/21)도 진행돼 신도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한편 행사장에는 지난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사진 전시회와 지산동 연화사 차봉사팀의 전통차 시음회가 열려 대중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광주불교연합회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빛고을불자대상을 선정해 올해 3회째 시상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운사, 고창군에 성금 1000만원 기탁

관내 소외계층 복지 위해

조계종 24교구 선운사(주지 경우)가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고창군에 기탁했다. 선운사 총무국장 심학 스님을 비롯해 교무국장 자운 스님 · 재무국장 수찬 스님 · 연수국장 원정 스님 등 국장단 스님들은 1월 4일 고창군청을 방문해 박우정 고창군수에게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선운사 국장단 스님들이 고창군청을 방문해 박우정 고창군수에게 성금을 전달하는 모습.

심학 스님은 “정유년 새해를 맞아 선운사 대중스님들의 원력으로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한 금액이겠지만 자비나눔이 사회적으로 더욱 확대됐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밝아오는 아침에 닭이 힘차게 소리 내듯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군은 선운사에서 기탁한 성금을 관내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선운사는 선운사복지재단을 통해 고창의 대표적인 복지시설인 고창사회복지관과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등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한편 선운사는 이에 앞서 구랍 30일 고창 석정웰파크병원(원장 김정하)과 스님 및 불자들의 종합건강검진 의료서비스 혜택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선운사 본말사 대중스님과 불자들은 석정웰파크병원의 암 면역치료 등 특화된 전문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상담 등 봉사사업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이번 협약으로 스님과 불자들이 진료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도 함께 힘을 모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하 원장은 “선운사 스님과 불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교도소 여사 송년법회 봉행

혜인정사 진송 스님, 대구 전주 오가며 교화

대구 · 전주를 오가며 전주교도소 여성재소자들을 지도하고 있는 대구 혜인정사 주지 진송 스님이 전주교도소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진송 스님은 구랍 29일 전주교도소 여사에서 송년법회를 봉행하고, 참회의 삶을 살고 있는 여성재소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선물했다.

진송 스님은 법문을 통해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몫”이라며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하심 하는 공부를 통해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정진해야 한다. 지난 세월 후회만 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교도소를 수행처로 삼아 정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여성재소자는 “먼 거리를 마다않고 달려오는 스님의 정성에 감동했다”며 “재소자들은 가족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진송 스님을 맞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서울 금강불교대학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안내

본 대학은 한국 불교중흥과 불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입니다.
입학의 문은 신도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교과과정안내

과정		기간	교과목	요일	자격	시간	서류 및 전형방법	인원	수강료
불교학과	초급과정	1년	불교학개론, 불교입문 천태종사, 심리상담	월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응시 가능	· 1교시 : 19:00 ~ 20:20 · 2교시 : 20:40 ~ 22:00	· 입학원서1부 (5,000원) · 반명함판사진 2매 · 1차 서류, 2차 면접	약 200명	1년 20만원
	중급과정	1년	금강경, 불교의 신해 법화경, 대승불교	화	본교 초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교법사과		2년	육묘법문, 비교종교론 천태소지관, 기신론	수	본교 중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 지원서 1부 · 반명함판사진 2매 · 서류전형	약 100명	학기당 20만원

원서접수

원서교부	접수 및 면접 장소 · 일시	위치 및 교통
우면동 관문사 : 02.3460.5323 평택 법장사 : 031.655.9090 신촌 성룡사 : 02.336.2052 수원 용광사 : 031.255.4105 봉천동 명락사 : 02.889.7272 구리 금성사 : 031.563.9364 구로 명화사 : 02.854.0196 안양 대안사 : 031.459.3666 망우동 삼룡사 : 02.496.3803 안산 월강사 : 031.419.5048 성남 화성사 : 031.745.1482 부천 천화사 : 032.671.5353 일산 화성사 : 031.905.2912 군포 상락사 : 031.392.0924	• 접수 : 2016년 11월 11일(금)~ 2017년 2월 17일(금) 18시까지 • 면접 : 2017년 2월 19일(일) 오후 3시 • 장소 : 관문사 2층 면접실 ※ 합격자는 면접 후 개별 통보	•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관문사 서울 금강불교대학 → 전화) 02-3460-5323 •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 → 마을버스 18번 •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 → 지선버스 3412번 (LG연구소, 우면APT에서 하차)

서울金剛佛教大學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 대한불교천태종 우면산 관문사 2층 TEL 02)576-6401 / FAX 02)574-1541

제3기 보경사 염불대학원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각단 불교의식 및 범음범패 6개월 과정

- 교육과정 -

불교의식 범음범패 6개월 과정

• 도량석, 종송, 향수혜례,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신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병의식, 신중39위작법, 관음시식(범음범패)

• 사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 6개월 수련후 수료증, 1년과정 졸업후 이수증과 법사증 수여(숙식제공 가능)

보경사 염불대학원에서는 각단 불교의식 및 범음범패를 여법하게 봉양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 모집대상 : 스님, 출가예정자, 재가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본 교육원에서 교부) …… 1부
반명함판 사진 …… 3매
→ 개강일시 : 2017. 2. 28.(화) 오후 2시
→ 수 업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5시
→ 준 비 물 : 목탁, 요령
→ 문 의 : 포항 보경사 종무소 054-262-1117
교육원 강주스님 010-9361-5566
→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로 523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보경사 선원장 철산 합장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모든 제자들에게 법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면서, 느낌 · 지각 · 형성 · 의식에는 나가 없음을 관찰하고, 이 오취온은 병과 같고 종기와 같으며 가시와 같고 무상하고 괴로우며 공이고 나가 아님을 관찰 하게 합니다.

– 잡아함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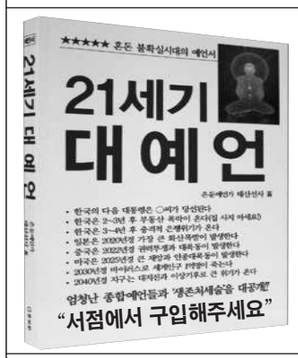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정신질환 상담
우울증, 정신분열, 정신이상, 빙의, 환청, 환시, 간질발작, 정신병원약을 복용하신 분
(상담 및 개인지도)
사주학, 성명학, 빙의퇴마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4호선 상계역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일단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 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05-1249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구성학 강의
신비의 점성술
매주 : 화,목 강의 / 2시~ 4시
(교재무료)
수강료 월 20만
구성역리학회
010-4876-5353
051-245-5353

관 상 (손금)
– 스님 특별 비법 개인지도
– 상술, 비법, 질병 전문강의
– 암,묘터,질병,재판,이혼수를 얼굴만 봐도 알수 있다
– 일반인,무속인,철학원,스님
010-4014-8822
(천기누설비법)

사찰 화분장 분재공원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 선설치 후지불
- 100평 기준 70기 유치
- 분재공원 조성은 신도 활성화
www.화분장.kr
010-8458-3310
대표 율평

이조불교용품 재활용센타
법당철거전문.개금.단청.
탱화.중.대형불상.공예
탱화 제작 수리
(사찰부동산중개전문)
구리시 아천동 산 4-1
010-9177-7842

? 고민 해결의 지 침 서
당신의 어떠한
고민도 해결 할 수
있는 지침서이다
010-7732-3267
농협 302-1030-1238-01 배종영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너지힐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빙의.퇴마.전생체험
수강생 모집 (개인지도)
3개월 과정
교재는 무상 지급함
수업 : 매주 금요일 오후1시~5시까지
세종시 소정면 운당 (대승암)
010-5269-4168

척추교정
비법전수
누구든지 가능
하루교육완성
출장가능
사찰경제에 큰 도움
010-3055-9000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
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불사용 달마도
불사하시는 스님들을 위하여 불사나 선물용으로 청암 달마도를 저렴하게 친필로 그려 드립니다. 10매 이상은 사찰명과 스님법명 넣어 드립니다.
규격 40cm×60cm 1매 6천원
010-2953-8770
농협 919-02-137213 정휘춘
청암 달마원

천수작법 바라지 하실스님
인연 기다립니다
010-2168-2800

비구 스님 모십니다
010-5221-5893

무료로 퇴불 해 드립니다
031-591-9023
보현선원 진명

산속에서 조용히사실 분을 모십니다
부부 원함, 농사땅 2천평,
컨테이너박스 4개
(경북 청송)
010-4842-7228

문두루 기도비법?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이천)
010-3797-006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도심 포교원)
010-3618-6061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걸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강원,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사찰내외 유무선 마이크 설치전문
일반적으로 중형교회의 경우 5000만원 내외 정도의 음향설비를 합니다. 그러나 대전 한성음향은 노래방기기설치 21년차로 특허도 있고 간략하고도 기성복이 아닌 맞춤옷같은 방법으로 대중전 음향설비를 평균 200만원대 소형은 100만원대로 교회음향에 준하는 설비를 해 냅니다. 예불과 설법과 천도가 쉽게 할수 있게 설치해 드립니다. 설치된 곳은 강원 인제읍 무애암, 충북 보은읍 만선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대국사, 경북경산 압량면 수안사, 경남창원 진해구 청룡사 등입니다. 문의 바랍니다.
특허등록업소 한성음향 (대전,전국 출장가능)
010-4440-8687

포교원 인수 하실 분
– 비구, 비구니스님
– 초기경전 강의 및 수행지도 가능하신 분
– 사천지역의 다양한 주민들에게 상응할 수 있는 학식과 지식을 갖추신 분
– 반드시 보문정사 주지스님과 면담 후 결정됨
– 소재지 : 경남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137-8번지 2층 보문정사 포교원
연락처 : 총무 010-5654-2148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 자 모 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기도치료법 一名 염력요법


총 782P 두권 구입 값 43,600원
입금 확인후 택배비는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 인류 최초의 전문기도 치료사는 부처님과 예수님이었습니다.
• 이것을 세계 최초 가장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쉽게 배워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 2권의 서적입니다.
•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직업으로 삼아도 될것입니다.
• 70대 중반인 본인은 현재 충분한 용돈을 벌어서 걱정없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1-557-2773, 010-2093-338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 (정보석)
352-0943-7979-03 농협 (정보석)

심우선원 選佛場
「선불장이란」 부처를 뽑는 장소란 뜻으로 禪門의 宗主인 마조선사로부터 비롯된 말로 본 도량은 20여년간 "돈오견성" 체험을 바탕으로 수행자를 독려, 견성해탈의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벼락치듯 돈오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동정일여, 몽중일여, 숙면일여, 오매일여"** 인 깊은 선정삼매를 통해 의정이 독로될 때 비로소 확철대오의 기연이 도래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만법의 근원은 텅빈(空)의 자리에 있고 현대인의 모든 고통과 혼란은 공도리의 무지에서 오는 것으로... 마음이 밝아질 때 비로소 지혜로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침이란 "여실지견"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것으로**(단지 중생의 눈으로 實相을 경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뿐) 그것은 어떤 신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계종의 존경받는 큰스님으로 고우스님이나 암도스님 같은 분들은 법문중에 자신의 경계를 꼭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좀 의아했으나 시간이 흘러가며 그분들의 진정성에 경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전에 성철스님은 지해종사(해오자)는 간판을 내려라 하고 경책하였습니다. 깨침이란 자기가 자기를 바로 보는 것으로 올바로 깨치면 그 즉시 열반을 증득, 자기인가(證悟)를 체득하는 것이므로 최상승법을 다루는 일은 절대적 양심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편안하십니까? **여기 선지로 함께 동행하는 깨달음(돈오견성, 해탈열반)으로의 여행에 수행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證悟" 왜 올바로 깨치면 自己認可 '究竟覺'를 성취하는 것인가 공부하는 모든 분께 도움이 될까하는 마음에 깨달아 가는 전 과정을... 특히 깨닫는 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계를 또한 깨달은 후에 성성함 "깊은선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험되는 현상경계를 참구자에게 자세히 설해 드립니다.

부설 **태극기 안에 담긴 행복한 삶의 지혜**
동양사상의 꽃인 天, 地, 人 삼재사상 (명리학, 풍수학, 한의학)
醫聖 이제마의 사상의학과 사암도인의 오행침법 전수
동,서양 철학과 현대물리학을 근본도리에 회통 강의
문의 : 傳法講主 釋眞性 010-3045-0085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문의 전화 : 02)2004-8200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승려 된 벤처기업가, 빈곤아동 퇴치 운동 나서

정토종 안양사 주지 마츠시마 스님 '독특 이력' 눈길

'사찰간식클럽'이란 협력단체를 만들어 빈곤아동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활동을 펼치는 스님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주인공은 일본 정토종 안양사(安養寺)의 주지인 마츠시마 세이로(松島靖朗) 스님이다.

마츠시마 스님의 활동은 빈곤퇴치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일본의 저명한 사회활동가이자 호세이(法政)대학 교수인 유아사 마코토(47) 씨에 의해 널리 알려지게 됐다. 구랍 27일 유아사 교수의 블로그 기사로 소개된 마츠시마 스님은 다소 독특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절에서 태어난 마츠시마 스님은 애초에 스님이 되길 원치 않았다.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던 마츠시마 스님은 절의 주지였던 조부가 돌아가신 해, 뒤를 잇길 바랐던 가족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IT 회사에 취업했다. 이후 벤처기업 사업가로 거듭나는 등 안정적인 사회인으로 정착하는 듯 했다.

하지만 마츠시마 스님은 어느 날 평범한 삶에 대해 회의를 품게 됐다. IT 세계의 특성상 주변에는 독특하고 기발한 발상을 지닌 인재들로 가득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마츠시마 스님은 평범함이 아닌 나 자신만의 독특함과 독자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됐고, 그때 비로소 그토록 싫었던 승려로서의 삶이 다른 형태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일본 정토종 안양사(安養寺)의 주지 마츠시마 세이로(松島靖朗) 스님이 '사찰간식클럽'을 통해 아이들에게 나눠줄 공양물을 준비하고 있다.

절서 태어났지만 스님 되기 싫어
IT계 취업 후 벤처기업 사업가로
어느 날 평범함 삶에 회의감 생겨
고향 돌아와 출가… '불연' 활동

2013년 오사카 '母子 아사' 사건 후
빈곤층 아동에 공양 나누기 시작

고민 끝에 13년 동안의 사회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스님이 된 마츠시마 스님은 IT 업계에서의 경험을 살려 곧바로 사찰과 사람과의 인연을 잇는 활동 '불연(佛緣)'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함께 시작한 것이 '사찰간식클럽' 활동이었다.

'사찰간식클럽'은 지원 단체를 통해 결손가정 등 빈곤층 아동들에게 공양음식을 나눠주는 활동을 하는 모임이다.

마츠시마 스님이 이 활동을 시작한 계기는 2013년 5월 24일 오사카시(大阪市)에서 일어난 모자아사사건을 알게된 후다. 오사카시에 있는 어느 주택에서 엄마와 아이가 시체로 발견된 이 사건은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싶었다'는 내용의 메모가 남겨진 것으로 보아 궁핍한 생활로 인해 아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집에는 냉장고가 없고, 전기와 가스도 끊겼을 뿐만 아니라 동전 하나도 발견되지 않아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이런 비참한 사건을 접하게 된 스님은 주변 사찰의 도움과 민간 지원단체의 협력을 받아 '사찰간식클럽'을 결성하게 됐다.

"부처님은 그 누구도 버리지 않습니다!"

인터뷰 도중 마츠시마 스님은 이 부분에 힘주어 말했다. 스님은 '사찰간식클럽' 활동이 '본래 사찰 모습 되찾기 운동'의 일환이었다고 전하며, 불교의 전파와 자비 실천이란 승려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범한지 3년째인 '사찰간식클럽'은 현재 후원 단체만 150여개를 넘어섰고, 500여 사찰이 협력하고 있다.

점차 이름을 알려가고 있는 '사찰간식클럽'은 단체를 통해서가 아닌 빈곤 가정이 물자를 직접 요청하는 긴급연락도 늘어가고 있다. 이는 여러 단체에서 아직 파악하지 못한 빈곤 가정이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 문제에 대해 마츠시마 스님은 행정력을 보다 강화해 한 사람이라도 더 도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통계에 의하면 아이들 6명 중 1명이 빈곤상태에 있는 반면, 연간 600만 톤의 음식물이 버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스님은 사찰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일깨울 수만 있다면 '사찰간식클럽' 이상의 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일본에는 7만5,000여 사찰이 있고 이 거대한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어린이 빈곤 문제는 물론 지역 사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성원 객원기자

'공주 성' 속 대만 스님들, 방문객에 몸살

SNS통해 입소문 퍼져… '수행 방해 · 안전관리 미흡' 등 경고



대만 북서부 신주현(新竹縣) 관서군(關西郡) 동산구에 인적이 끊긴 놀이공원은 10여 년 동안 임제종 수도승들의 주석처로 사용됐으나 최근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사진출처=wohoho.pl

대만의 한 버려진 놀이공원서 주석하던 수행승들이 갑자기 밀려든 관광객에 난색을 표했다.

영자 신문 'TAIPEI TIMES'는 12월 28일(현지시간) 보도서 "대만 북서부 신주현(新竹縣) 관서군(關西郡) 동산구에 인적이 끊긴 놀이공원이 10여 년 동안 임제종 수도승들의 주석처로 사용된 가운데, 이 같은 사실이 SNS를 통해 알려지며 호기심에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급증했다"며 "수도승들은 안전과 수행환경 방해를 이유로 방문 자제를 요청하며 나섰다"고 전했다.

한 네티즌이 찍은 해당 놀이공원 전경은 홍콩 디즈니랜드의 '잠자는 숲속의 공주 성'과 비슷한 생김새를 해 SNS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동산구 공무원 쵸우 팅첸 씨에 따르면 '부처님 세상'으로 불린 이 놀이공원은 40여 년 전 '동화 세상'이란 이름으로 개장한 놀이공원이다. 공원은 한 때 대만의 대표적 놀이공원 '육복촌(六福村, Leofoo Village theme park)'에 버금가는 아름다움을 자랑했지만 10여 년 전 정부의 상수원관리 명령에 강제로 문을 닫았다.

쵸우 관리원은 "폐장 이후부터 10년 넘게 수도승 공동체가 이곳을 수도 서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수도승 공동체 주석 이후 이곳은 한 군데도 증축이나 개 · 보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공주 성을 비롯한 놀이공원 건물은 벽에서 타일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천장서 나무가 자라는 등 궤붕될 위험이 있어 오직 재활용품 보관 장소로만 쓰인다. 그러나 수도승들은 "빌딩 수리나 물이 새는 건물에 회벽을 바를 계획이 전혀 없다. 모든 건물은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놔둘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의 수도승은 "우리 수행승들은 10여년 넘게 놀이공원을 사찰 대신으로 삼아 은둔수행 해왔다. 조용한 수행환경이 방문객들의 침입 때문에 방해받지 않길 바란다"며 "수행처는 이미 황폐화로 쓰레기장과 다름없다. 정면에서 잘 나온 사진 몇 장만 보고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희 기자 lshuihappy@hyunbul.com

개인 기분 따라 명상법 제시하는 앱 개발 '눈길'

아우라헬스, 사용자 데이터 분석 후 맞춤형 명상법 제공
앱 실행 후 기분상태 물어 그래프로… 200가지 방법 수록

가만히 앉아 명상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앱이 개발돼 눈길을 끈다.

헬스케어 · 건강관련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 '아우라 헬스(Aura Heath)'는 사용자의 기분에 따라 맞춤형 명상을 진행하는 명상앱 '아우라(Aura)'를 개발했다.

아우라는 사용자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행복하거나, 슬플 때 등 기분을 파악해 그에 맞는 명상을 진행한다.

아우라 헬스 CEO 스티브 리는 "기존의 명상 앱들은 적어도 명상적인 명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아우라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앱을 사용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통계자료와 연령별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상을 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재단 설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는 사용자들이 명상을 하면서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덧붙였다.



헬스케어, 건강관련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 '아우라 헬스(Aura Heath)'는 사용자의 기분에 따라 맞춤형 명상을 진행하는 명상앱 '아우라(Aura)'를 개발했다. 사진출처=techcrunch.com

'아우라'는 애플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앱을 실행하면 사용자의 기분(분노, 좋음, 매우좋음, 스트레스, 슬픔)을 물으며, 마음챙김을 얼마나 잘 실행하고 있는지 수치화해서 그래프로 보여준다. 약 200여 가지 명상법을 제공하고 있다.

아우라 헬스 설립자인 다니엘 리는 "우리 회사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사용자들을 위해 모든 세션을 개인에게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미얀마의 '쿠르디 참사' 미얀마 무슬림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의 남자 아이가 강변 진흙탕에 숨진 채 얼굴을 묻고 있다. 생후 16개월의 아 아이는 모하메드 소하엣<사진 왼쪽>. 미얀마 군인의 공격을 피해 방글라데시로 도피하던 중, 배가 침몰하며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정부군은 지난해 10월 미얀마 국경수비대원 9명이 살해된 사건에 대해 로힝야족을 배후로 간주하고, 로힝야족을 학살 및 토벌하는 이른바 '인공청소'에 나섰다. 이에 소하엣 가족을 비롯한 4만여 로힝야족은 방글라데시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2년 전 터키 해안서 숨진 채 발견된 시리아 난민 아이 에일란 쿠르디(당시 3세 • 사진 오른쪽)를 떠올리게 하며 더 큰 슬픔을 주고 있다. 사진출처=The Indian Express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미소조각원
泰煌(태황) : 대한민국 문화재 조각기능 보유자
불사문의 050-2879-8709 010-3629-87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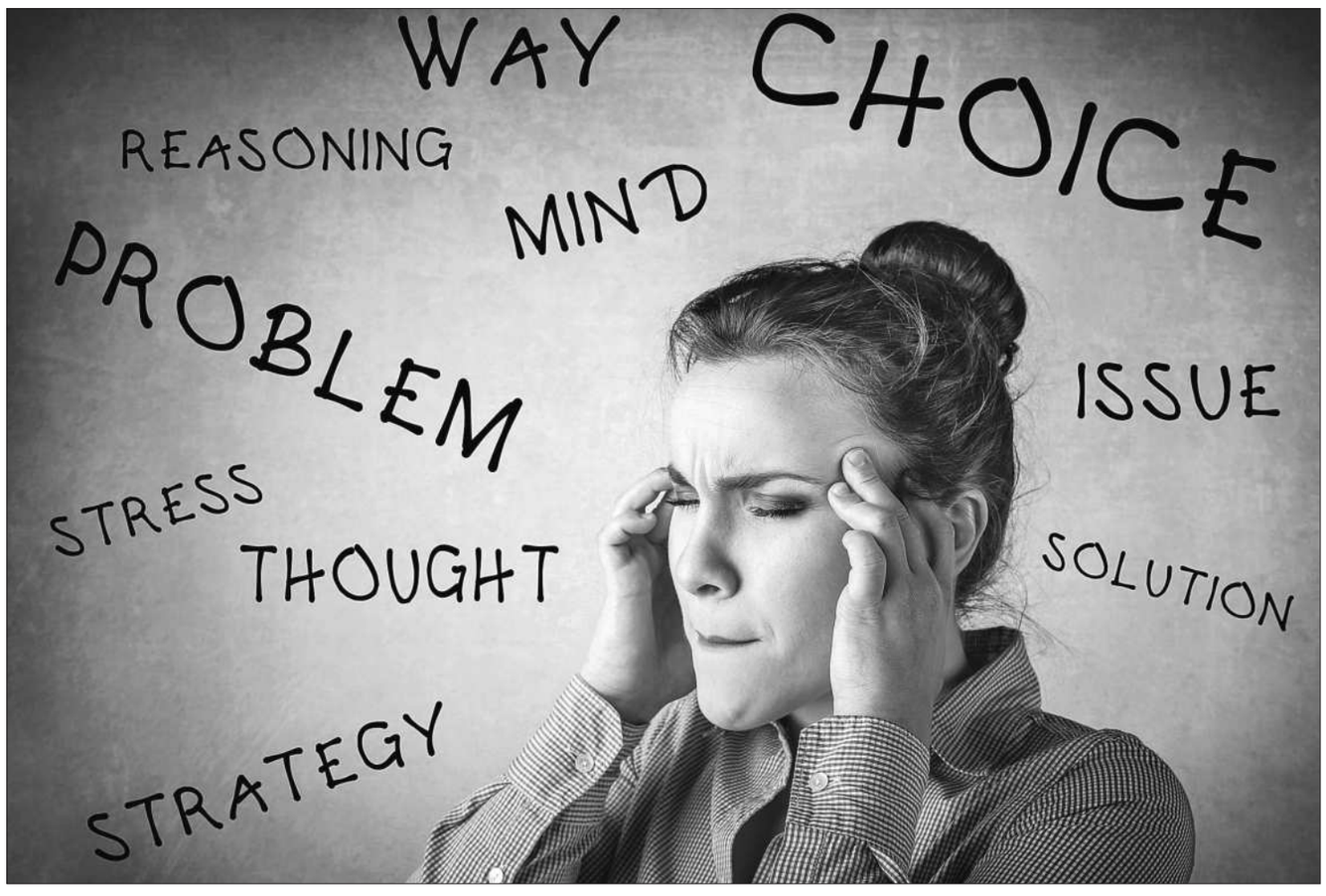
9층 석가대탑
조성기간 : 13년 6개월
높 이 : 17미터

명상 나에게 이르는 길

샐리 켐튼(명상 강사 · 저널리스트)

〈4〉 어떤 명상법을 선택해야 할까?

내게 맞는 명상법은?… 명상과 놀아보면 안다



명상기법은 내면 향한 '입구'

나는 명상을 시작하고서 몇 년 동안 어떤 명상을 해야 할까, 그 방법을 놓고 무수히 고민했다. 마음챙김 명상을 해야 하나? 첫 번째 스승이 가르쳐준 복잡한 시각화 명상을 해야 하나? 만트라를 외워야 하나? 아니면 호흡을 따라가는 명상을 해야 하나? 막 명상을 시작했을 무렵, 한 선생님은 한 가지 명상을 택해서 꾸준히 파고들어야 명상을 깊이 체험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었다. 그래서 나는 이왕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나에게 맞는 명상을 택하는 게 낫겠다 싶었다. 그래서 한동안 고민에 빠졌다. 어떤 만트라를 선택할까, 관조 명상을 할까 아니면 호흡 명상을 할까, 언제쯤이면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내 안에서 안식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그러다가 명상법을 신처럼 떠받드는 일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나는 다른 명상법을 수련하는 일이 얼마나 자유롭게 해주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방법을 넘어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명상을 시작할 때 대부분은 마음의 협조가 필요하다' 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명상 방법을 이용한다. 방법은 마음이 본성 속으로 잦아들 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 마음을 위한 쿠션, 이것이 방법의 전부다. 그러니 명상의 방법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명상 방법은 명상이 깊어지면 결국에는 그 안에 녹아들게 되어 있다.

나는 명상 기법을 마음 너머에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문, 입구라 생각하고 싶다. 내면의 공간은 그 투명성과 사랑, 본래의 선善과 더불어 항상 거기에 있다. 골치 아픈 아침이 지나고 부엌에서 나와 고개를 들면 갑자기 머리 위로 펼쳐지는 하늘과 같다. 참자아는 하늘처럼 마음이란 벽에 가려져 있지만 항상 현존한다. 참자아에 다가갈 때는 생각이라는 장벽을 부수고 들어가기보다는 문으로 편안하게 들어가는 편이 좋다.

수련을 하다 보면 기법은 정묘한 명상의 흐름과 당신을 연결하는 수단이 되고, 자연스럽게 내면으로 끌어당기는 힘과 당신을 연결하는 수단이 된다. 자연스럽게 명상의 흐름을 따라가면, 외부로 향하던 의식이 내면으로 향하면서 명상 상태로 들어간다.

"왜 명상을 하세요?" "좋아서요." 이것이 최상의 답이다. 파탄잘리(Patanjali)가 쓴 〈요가 수트라Yoga Sutra〉라는 책에서 이 문제에 대한 조언을 찾아볼 수 있다. 〈요가 수트라〉는 모든 인도 요가가 수행의 교과서로 삼고 있을 만큼 요가의 본질을 꿰뚫는 권위 있는 수행 경전이다. 파탄잘리는 마음을 한곳에 모으는 수행법들을 나열하고, 그 장의 말미에서 집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음이 만족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집중하라." 그렇다면 특정 방법에 마음이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수련을 꾸준히 하다보면 어떤 종류의 명상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감이 생기기 마련이다. 수련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시각이 발달해서 시각화 기법에 잘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신체의 움직임이 활발해서 기의 흐름을 잘 느끼는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아는 다양한 방법들과 하나하나 명상을 하며 놀아볼 필요가 있다.

무수히 많은 명상법 존재해
자유롭고 놀이하듯 경험하면
내 수련법에 맞는 氣感 발생
결국 명상 깊어져 몰입 가능

바른 명상 자세란?

자세는 수련의 핵심이자 기본 바탕이다. 바른 명상 자세란 오랫동안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자세, 몸을 잊을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인 자세, 그러면서 동시에 초롱초롱한 의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든든한 자세를 말한다. 명상수련을 할 때 취하는 자세들을 살펴보자. 몸을 적절하게 움직여서 아래의 방법대로 자세를 취해보면 자신에게 잘 맞는 자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①명상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상의 기운이 부드럽게 흐를 수 있도록 척추를 자연스럽게 곧추세우는 것이다. 그렇다고 전통적인 명상 자세인 결과부좌나 반가부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척추를 바르게 해서 가부좌를 하면 신체의 기氣가 내면으로 향하기 때문에 명상에 도움이 된다. 오래 앉는 것을 연습하면서 하타 요가의 자세를 이용해 골반 근육을 열어주자. 양 발바닥을 서로 붙여 최대한 몸 쪽으로 끌어당기는 '구두수선공 자세' 가 좋다.

②바닥에 앉아서 명상을 할 경우에는 엉덩이에 단단한 베개나 방석을 놓고 편하게 앉으면 된다. 이렇게 엉덩이 부분을 높이면 상체가 전후좌우로 기우는 것을 방지하고, 허리 부위의 만곡이 자연스럽게 유지된다. 양 무릎은 엉덩이보다 약간 낮아야 한다.

③엄지와 검지를 붙여서 양손을 각각의 넓적다리 위에 놓거나 한쪽 손바닥을 다른 쪽 손바닥 위에 겹쳐 놓는다.

④엉덩이와 허벅지로 무게중심을 잡고, 바닥이나 의자 아래로 가라앉는다고 느껴본다. 하체가 바닥에 무게중심을 잡은 위로 척추가 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반듯하게 서 있다고 느껴본다. 이때 어깨와 목의 힘을 뺀다.

⑤머리, 얼굴의 힘을 뺀다. 눈을 편안하게 감고, 뺨도 편안하게 이완한다. 혀를 입 바닥에 편하게 내려놓는다.

⑥숨을 부드럽게 들이쉰다. 가슴을 열고, 심장으로부터 가슴을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숨을 깊이 들이쉰다. 숨을 내쉴 때는 어깻죽지가 등쪽으로 녹아내린다고 느끼며 길게 내쉰다.

⑦눈을 감고 숨이 자연스럽게 들고나게 한다. 방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본다. 몸의 감각들을 느껴본다. 이 순간, 이 자세로 몸 안의 감각들을 하나하나 느껴본다. 마음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머물도록 한다.

氣感, 내면의 신을 감지하다

정신수련을 하는 곳마다 명상 기법과 이를 표현하는 언어가 각기 다르다. 대체로 명상 기법은 수련 목적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집중 수련이다. 소리나 형상이나 호흡에 집중하거나, 가슴이나 척추 통로와 같은 신체의 특정 중심에 집중하거나, 생각과 내면의 체험에 집중한다.

둘째는 명상적인 각성과 일상생활을 통합하는 수련이다. 기본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감각, 호흡, 생각과 더불어 현존하는 것은 명상과 일상을 통합하는 수련이다. 자신의 체험 하나하나에 현존하는 각성을 인지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관조의 알아차림' 도 명상과 일상을 통합하는 수련이다.

셋째는 묵상을 통한 명상수련이나 분석적인 명상수련이다. 이런 수련에서는 의식을 내면으로 전환하거나, 평범한 체험 너머에 있는 심오한 진리를 탐구하거나, 영적인 의문이나 생각에 마음을 집중하거나, 그 의문이나 생각을 의식 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한다.

어떤 수련을 하든 중요한 것은 수련 중에 끊임없이 수련의 미묘한 본질을 찾는 데 있다. 수련은 저마다 독특한 기감(氣感)이 있다. 이 기감이 내면에서 기의 공간을 만든다. 그런 기감은 기법과 그 본질이 빚어낸 오묘한 효과다. 참자아의 문을 여는 것은 기법이 아니라 바로 기법이 만드는 기감이다.

수련 기법의 본질을 발견하는 또 하나의 길은 바바(bhava)를 수련하는 것이다. 바바는 산스크리트로 자신에 대한 느낌이나 태도, 신념을 뜻한다. 우리는 바바라는 안경으로 보는 세상이 실재라고 착각한다. 그래서 사물을 바라보는 태도만 바꿔도 일상의 체험이 크게 변할 수 있다.

의도적으로 바바를 일으키는 수련, 특정한 영적 느낌을 자아내는 수련을 바바나(bhavana), 또는 '창조적 사색' 이라고 한다. 각각의 바바나가 우리에게 주는 효과는 각기 다르다. 사랑을 들이쉬는 느낌으로 숨을 들이쉬는 수련에서처럼 사랑이나 은총을 기억하면 가슴이 확장되고, 만족스럽고 보호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찾아온다. 만물을 자신의 일부라고 느낄 때 우리는 '한계' 라는 굴레에서 벗어난다.

특정 바바를 오랫동안 수련한면 그 바바를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 의식의 창조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의식은 당신이 느끼는 대로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낸다. 수련 느낌이 자연스럽게 경험으로 나타나면 투카람 마하라지가 표현한 "신은 그대의 바바 안에 있다"라는 말의 진의를 깨닫게 될 것이다.

투카람은 인도 서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식료품 가게를 했지만 늘 곤궁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투카람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염송과 찬송에 열중했고, 마침내는 신의 경지를 실현하게 되었다. 바바의 명인이었던 투카람은 매일 다른 기분으로 신에게 말했다. 사랑스럽게 신을 부르는 날도 있었고, 분노와 좌절로 고함을 지르는 날도 있었다. 어떤 날은 "내가 곧 신이요, 신이 곧 나다"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바바의 비밀을 밝혀서 드러낸 사람이 투카람이었다. 그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느낌이 우리를 신과 이어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신을 사랑하면 그 속에서 신의 실재를 체험하고, 신을 무서워하거나 신에게 분노하면 신을 무서움이나 분노의 존재로 체험한다. 신과 하나 됨을 느끼면 가장 내밀한 존재로 신이 드러난다. 신을 갈망하면 신은 당신의 열망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런 식으로 수련하면 바바는 내면에서 생생하게 살아난다.

이 글은 〈명상 나에게 이르는 길〉 (한문화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대행 스님

본래 마음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촛불을 들 수 있다!

촛불을 밝혀야 마음이 밝아지나요?

질문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저희 신도들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공부의 끈을 놓치지 않고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나와 조상님과 더불어 밝히는 촛불재를 지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촛불재를 통해서 정성스럽게 불을 밝혀서 한순간에 그 어둠이 사라져 버린다면,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꺼져 버리기 때문에 끊임없이 스님들을 의지해서 밝혀야 하는 방편을 좇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도리를 명백히 아셔야 하며 마음의 촛불, 즉 인등이 항상 밝혀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 백 일 동안 켠다고 한다면 백 일 동안만 불이 켜져 있고 백 일 동안만 진리가 돌아가고 그럽니까? 생각들 해 보세요. 일 초도 쉬지 않고 우리는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찰나찰나 마음이 바뀌고 화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를 만날 땐 자동적으로 자식이 돼서 말도 행도 뜻도 그렇게 돌아가고, 또 아내가 오면 아내가 오는 대로 자동적으로 남편이 돼서 금방 "여보!" 할 수 있는 그런 자동적이고 자유로운 힘이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다는 거죠. 오신통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할 때가 여러분이겠습니까. 어떤 사람 만날 때를 나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했느니라. 색이 즉 공이요 공이 즉 색이니라. 너희들은 둘로 보지 마라. 모두가 한 찰나 한 찰나 돌아가는 그 이치를 알면 공한 도리를 알 수 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만약에 나로부터 알 수 있다면, 여러분 육신 속에 업식이 한데 뭉쳐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움죽거리게 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제일 먼저 설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 뭉쳐 있는 고덩어리가 어디서 온 것인지만 알면 바로 즉시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과거에 걸어온 길을 짊어지고 나와서 그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악업이든 선업이든 그 업식 자체가 합쳐진 것을 '나' 하나가 짊어지고 들어간 거죠. 아버지의 뼈를 빌리고 어머니의 살을 빌려서 그 몸뚱이를 받아 가지고 바로 자기의 업식을 짊어지고 그렇게 여러분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치로 따지고 볼 때 집만 얻어 가지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살림을 하는 거죠. 이것을 절실하게 생각하고 여기에서 공부를 하신다면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의 보배를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인등도 인등이지만, 부처님께서 과거에 49년 동안 말씀해 놓으신 경전을 볼 때 "수많은 사생의 마음을 물방울이라고 비유한다면, 바다에 전부 들어가도 두드러지지 않고 다 퍼내도 줄지 않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물컵에 여러분의 마음 한 방울, 물 한 방울 넣어 보십시오. 컵의 물이지 한 방울의 물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자리는 어느 것도 붙지 않는 자리입니다. 체가 없으니 붙을 자리가 없죠.

더 말한다면 부처님의 마음과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자식이 부모에게 기대면서 성장하는 마음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 바로 내가 대신 죽어 줄 수도 있는 마음 그 자리에는 어느 것도 붙지 않습니다. 이유가 없고요. 자식이 물에 빠지면 부모는 그냥 들어가서 건지거든요. 자기 죽는 줄 몰라요. 거기 무슨 이유가 붙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와 같이 자식이 빠졌을 때 뛰어드는 그 순간의 마음, 자식을 생각하는 어버이의 그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둘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조상의 마음이 따로 있고 부처님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두루 하시고, 육의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두루 하지 못하는 차이는 있지만, 내 걸 다 버려서라도 너를 살리겠다는 그 마음은, 잘돼라 하는 그 마음은 부처님 마음과 같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더 큰 바다든 한 그릇은 한 그릇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작은 그릇에 물 한 그릇 떠도 한 그릇, 큰 그릇에 물 한 그릇 떠도 한 그릇, 더 큰 그릇에 물 한 그릇을 떠도 한 그릇입니다. 작은 그릇의 한 그릇이라고 해서 한 그릇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대천세계, 중천세계, 소천세계가 셋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하나가 돼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법을 배운다고 해서 부모를 소홀히 하고 자식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 선원에서 음력 정월 초하루부터 초삼일까지 새해맞이 촛불재를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본래 안다면 아마 전자에 선지식들이 그렇게 방편을 일러 주시고 많은 설법을 하지 않았을 거고 또 부처라는 이름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모르니까 염불도 있어야 했고, 그 옛날 법을 다 갖추어야 했고, 지금 현재 법과 예전 법이 둘이 아니게 우리는 항상 따라야 하는 것이 예의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뜻을 알고 행해야 합니다. 모르면서 남이 하니까 그냥 따라 해서는 아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왜 촛불재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보이는 물질의 촛불만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촛불재를 하는 것은 방편으로써, 마음이 없으면 그 촛불을 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본래 마음이 밝아 있지 않다면 밝다고 생각을 할 수도 없고, 내 마음을 밝힌다는 생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래 마음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 촛불을 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다 가설이 돼 있다고 항상 얘기하죠. 한 가정에 내 자식, 내 부모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다 가설이 된 겁니다. 전체가 그렇게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부모도 내 마음이 밝혀지면 그 마음도 밝혀진다는 얘깁니다. 전기 가설을 하지 않으면 불이 안 들어오듯이, 그것은 자연히 되어 있는 마음의 가설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식이다 부모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촛불 하나 켜는 것이 돌아가신 부모의 마음을 밝아지게 할 뿐 아니라 현재의 내 마음도, 양면을 다 밝아지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촛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다거나 열심히 하는데도 안된다거나 또는 본인 자신도 어쩌지 못하고 말썽을 피우는 것도 다 업식으로 인한 거니까 본인이 마음의 촛불을 켜 들고서 간절히 관하게끔 만들어 주고, 또 본인이 부득이 못 하게 되면 부모라도 대신 해 주어서 그 간절한 마음의 전달로 지혜 물리가 터지게 하는 겁니다. 각자 내가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내가 해 놓지 않고 내가 무엇을 받을 게 있겠습니까? 내가 해야만 내가 한 것만치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촛불재라는 것은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태워서 어두움을 없애고 주위를 환하게 밝히는 촛불처럼,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명을 밝히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항상 마음의 뿌리가 밝아지도록 발원하는 방편이자 진실한 의식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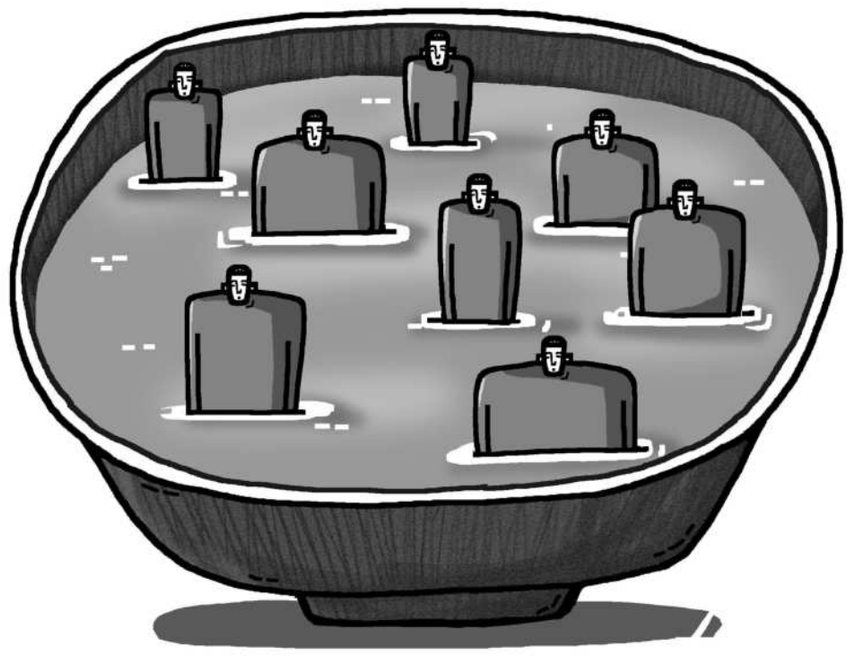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잘되기를 관한다면 중용의 도가 아닌데

질문 큰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죽는 쪽도 사는 쪽도 양면을 다 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한 방향으로 해결하기를 바라고 주인공한테 관하는 게 아니라, 그 양면을 다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도(道)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한쪽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관하는 것은 그 중용의 도를 벗어난 것인지,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함인데 그것을 중용의 도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모든 일체 만법이 바로 당신이 이 세상에 났으니까 당신으로 인해 들고 나죠? 그래서 중심에서 모든 일들을 하시니까 그 중심에다, 당신 뿌리에다가…. 뿌리가 있어야만 이 모든 가지, 이파리 또는 그 나무가 스스로 열매도 잘 맺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뿌리 없는 나무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만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뿌리에다 놓는 것이 바로 중용입니다. 모든 것이 뿌

☞ A18면으로 계속

육임 직접 강의

대육임, 육임금구결, 주역, 월령도 등을 직접 강의합니다.

육임의 대가 운암스님께서 1:1 직접 강의로 수강 완료 후 즉시 개별 상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 교 수 : 법연정사 운암스님
- 과 목 : 대육임, 육임금구결, 주역, 월령도, 명리, 성명학
- 강의시간 : 1년 과정 (매주 5시간 강의)
- 수 강 료 : 대육임, 육임금구결 월령도 } 60만원
  주역, 명리, 성명학 - 40만원
- 강의장소 : 법연정사 (경기 구리시 교문동 233-15 2층)
- 연 락 처 : 031)554-3336 010-5931-3319

법연정사 운암 합장

탈종공고

- 사찰명 : 혜연사
- 법 명 : 청해 (김석순)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592- 3, 10통 4반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1일

대한불교법화본종 총무원장 법하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그 무엇을 하더라도 오직 주인공에 말겨서 하세요

☞ A17면에서 계속

리에서 나옴으로써 싹도 있지 뿌리가 없는데 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댁도 주인공 그 자체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몸이 있는 겁니다. 몸이 있으니까 움죽거리고 있고. 그러니까 그 중심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 놓고 그대로 자기 생각 돌아가는 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중용입니다. 이리로 저리로 치우치지도 않고, 이리로 집착을 한다 하더라도 집착이 아니요, 저리로 집착을 한다 하더라도 집착이 아니요, 망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망상이 아니요, 모든 게 그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속에다 되놓고 활발하게 인연에 따라서 활용해라 이겁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거를 보십시오. 저렇게 말없이 설하고 돌아가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모두 부처 아닌 게 없어요. 꽃은 꽃대로 가지 각색으로 남을 위로해 주고, 또 극복하게 만들고, 웃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마음이 화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 줘요. 나무들은 또 시원하게 응달을 지어 주기도 하고, 보는 데 눈을 즐겁게 해 주기도 하고, 또 추운 데 그냥 뜨듯하게 해 주기도 하고요. 또 나무는 우리가 밑을 닦고 뭐, 매사에 쓰는 종이를 전부 만들어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게 보시를 하는 겁니까? 자기 몸뚱이를 다 그냥 보시하는 거예요, 다 그냥. 일체 만물이 다 그렇게 보시를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보시를 하고 가는 겁니까? 그래서 첫째 육바라밀의 무주상 보시, 핵심으로서의 무주상 보시를 해라 이랬습니다.

내가 그전에도 얘기를 했죠. 그 뜨물 한 그릇 얻어먹고 나뭇짐을 해다 주려고 그랬는데, 은사가 그냥 한번 때려 제껴서는 쓰러뜨려 놓고 "이놈아! 나무 한 짐으로써 무주상 보시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난 뒤에는 '아차, 무주상 보시가 이렇게 광대무변한 걸 몰랐구나. 그 핵심적인 여기에서의 한생각이면 무주상 보시의 행을 할 거를 내가 이 나뭇짐을 하느라고 이렇게 끄달렸구나.' 하곤 그냥 무르팍을 탁 치고, 무르팍 깨진 거를 어루만지면서 '고맙다, 고마워.' 했다는 얘기 말이에요. 이렇게 자비하고 평등하고 묘하고 이런 법을, 우리가 이렇게 모두 재료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른 대서야 어떻게 앞으로 실천해 나가며 어떻게 이 혼란한 세상을 헤쳐 나가렵니까. 포교 좀 하고, 다니면서 설법하고, 다니면서 뭐 하나 집어 주고 이러는 게 무주상 보시가 아닙니다. 그거는 새 발의 피예요. 우리가 쌀 수억 가마니를 갖다가 고아원에 줬다고 해도 그건 새 발의 피예요. 물론 물질로도, 물질 아닌 무주상 보시로도 함께 겸용을 해야 이것이 중용이 되죠. 그러나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맞다' 이런다면 벌써 그 중용은 그냥 해체가 돼 버리고, 진짜 핵심적인 중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이름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더럽혀지지 않으려면

질문 큰스님 법문을 듣고 있노라면 금방 제가 부처가 될 것만 같고 하늘을 날 것 같고 그런데 일상생활로 돌아오면 여지없이 중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에 자책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일상생활 속에서 고통받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불자로서 부처님께 누가 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는지요?

답변 부처가 되려고 하지도 마세요. 이 세상에 부처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답답한 마음이 또 생길 테니까. 네? 그러니까 그대로, 못났든 잘났든 그대로 그냥 수순히 걸어가세요. 그냥 딱 세우곤 입 딱 다물고 그냥 걸어가다가 딱 닥칠 때 '네가 하는 거지.' 하고…. '너!' 하고선 말 안 해도 '너!' 할 때 그건 그냥 그대로 깜짝할 사이예요. 그러니 재생이 돼서 체가 나올 때는 거쳐서 나오는 그 시간이 있겠지만 그건 자동적으로 불이 확 붙어서 끓는 쇠가 돼 가지고 직접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한 마음으로 이 도리를 어떻게 공부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살기 위한 욕심으로, 가난 때문에, 병고 때문에, '잘 살아야지, 위대하게 돼야지' 이런 것 때문에 이 공부 하지 마세요, 진짜! 진짜! '안 돼! 이거는 어떠한 억겁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 하란 말입니다. '안 돼!' 하면 그냥 안 되는 거지. 이게 이렇기 때문에 왁 소리를 지르고 그랬어요. 그러곤 그냥, 손을 번쩍 쳐들어서 그냥 쳤단 말입니다. 이게 진짜 깊은 물이 되기 때문에 큰 배가 뜰 수 있고, 큰 배가 뜰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중생들을 다 태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엇을 하더라도 오직 주인공에 맡겨서 모두 하게끔 하라 이겁니다,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도. 만약에 소를 잡지 않으면 안 돼서 소를 한 마리 잡는다 하더라도 주인공에 맡기고 잡았을 때는 살생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소의 살은 모든 사람들에게 약이 되고, 또 소의 근본은 바로 무명을 쳐서 나한테 집어넣었으니 사람이 된 겁니다, 금방. 금방 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굴려서 재생이 돼서 사람으로 인도환생을 한다면 그거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거기 수레에 한번 굴려서 내놓으면 그렇게 공덕이 된다 이 소립니다. 하여튼 어렵고 가난하고 무질서하게 살지 말고 모든 것에 중심을 두고 산다면 어떠한 괴로움의 상처도 가실 수 있고 어떠한 괴로움의 구덩이 속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식물이나 바위도 윤회를 하는지요

질문 불교의 윤회설에 의하면 중생들은 육도를 윤회한다고 하는데, 물론 성불하게 되면 그렇지도 않겠지만 천상, 인간, 지옥, 아수라, 축생, 아귀라는 육도를 윤회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범주에 들지 않는 식물이나 바위 등 무정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요.

답변 돌이 서 있는데 비에 씻기고 바람에 스쳐서 그냥 반드르하게 한쪽이 달아나갔어요. 그런 걸 볼 때 그것이 바뀌지지 않은 거라고 할 겁니까? 육도 윤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노릇 할 때가 있으면 자식 노릇 할 때가 있고, 그런 게 윤회예요. 남편 노릇 하다가 자식에게는 아버지 노릇을 할 때가 바로 윤회라니까요. 윤회가 별다른 게 아니에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윤회예요. 그러니까 윤회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기로 태어나서 젊어지고 늙어지고 하는 것도 바로 윤회죠. 또 우리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은 도망가고 또 딴 말을 해야 하니까 그것도 윤회고요. 그래서 마음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마음은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 바뀌지고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윤회도 없다, 붙을 데가 없다 이랬습니다.

생명이 태어나기 이전에는 암흑이었다고 봅니다. 암흑세계에서 우리가 생명이 생기게 된 원인이 불 · 물 · 바람 · 흙, 즉 흙이라면 먼지를 말하죠. 그것이 한데 합쳐서 하나가 붙으면 하나가 커지고, 둘이 붙으면 둘이 커지고, 그저 굴러가는 대로 서로 엉기고 붙어서 인연이 있어서 불의 인연, 물의 인연, 바람의 인연, 흙의 인연이 한데 합쳐지니까 원인이 되어서 생명이 생기게 된 거죠. 생명이 생기니깐 바로 광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생명이 생기고 밝아진 것입니다. 이 도리를 생각한다면 아주 어마어마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밝아져서 그 하나하나가 별성이 생기고, 별성이 생김으로써 태양이 생기고, 태양이 생김으로써 만물을 기르는 어버이가 된 거죠.

이 산하대지는 만물을 길러 내는 어머니와 같고, 태양열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자라나는 것은 아버지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다못해 물속에서 사는 고기들도 천차만별로 모습과 이름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도 있고 알지 못하는 고기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바다 밑에서 사는 것도 있으니 그 태양열이 어떻게 거기를 한데 합쳐서 다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입니다. 마음은 태양열이 들어가지 못하는 데까지 들어갑니다. 마음의 문이라는 것은 깊이가 깊든 얕든, 높든 낮든 불문에 부치고,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정물이라는 것도 마음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니 됩니다. 모든 것의 근본, 지수화풍의 근본도 다 그 한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떤 걸 '없다' 라고 하고 어떤 걸 '아니다' 라고 규정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본을 먼저 발견하고 싶은데…

질문 저희가 계속 관을 하고 자기 업장을 소멸하고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자기 근본이 드러나서 자기를 발견하겠지만요, 그 전에 저는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만 우선 자기 근본을 먼저 발견을 하고 나서 업장을 소멸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 그렇게 이유를 붙이지 마세요. 이유가 붙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내가 걸어올 때 생각했던 거는 그게 아닙니다. 빨리 이거를 해결을 해야겠다도 아니고, 이거를 안 해야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단지 믿고, 믿고 그냥 거기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가 살게끔 하는 거, 내 마음은 거기에 둘 아니게 탁 믿어 버리고….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거지만 움죽거리게 하는 것이 그놈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영원한 자기의 근본이 없다면 지금 모두 송장들일 거예요. 허허허…. 그러니 송장을 움죽거리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다니는 거니까 뭐, 잘돼라 못돼라 할 것도 없고, 잘돼야 한다 못돼야 한다 이럴 것도 없는 거죠. 자기가 그대로 사는 거니까. 그리고 믿는다, 믿어라 이렇게 할 것도 없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급하시면 그냥 무조건 믿고 닥치는 대로 그냥 거기 놓으세요. 감사하게 놓고, '되게 하는 것도 너다.' 하고 놓고, 모든 걸 그렇게 놓고 가세요. 마음이 급하고 급하지 않고 이걸 떠나서 그냥 닥치는 대로요. 거기에 진짜 묘미가 있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서둘지 마시고요.

사람이 서둘다 보면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방황이 되죠. 그러니깐 방황하지 마시고 어떤 거든지, 우리가 똥을 누든지 잠을 자든지 뭐, 밥을 먹든지 누구하고 만나든지, 우리가 보든지 듣든지 생각을 안 하든지 하든지, 하여간에 일거수일투족이 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깐 거기서 안 하고 하고가 없으니까 그저 여러분은 생각을 한생각 잘해서 굴려라 이거죠. 한생각을 잘해서 굴리면 잘 생각한 대로 그대로다. 그대로 법이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공부 하는 데 '어떡하면 마음공부를 빨리 할 수 있을까.' 그러지 않는 게 좋겠죠.

진짜로 내 껍데기를 이렇게 추려서 달아 보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속 내부를 전체 달아 본다면 근수가 많이 나가겠죠.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일반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껍데기를 가지고만 말한다면 그,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부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나 이 사람은 어디까지나 이 모습이 수레바퀴라고 생각한다면, 수레바퀴 아니라도 모두가 수레바퀴처럼 돼 있다면 항상 그냥 더하고 덜함도 없이 짧게 구르든 길게 구르든 하여튼 쉬지 않고 굴러가는 것만은 사실이죠.

근데 그 굴러가는데 말입니다, 그 수레바퀴는 굴러가는데 이 차이가 없이 모습은 자꾸 변하기는 변하되 금세금세 화해서 돌아가는 거,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는 거 그거를 진짜로 믿는다면, 그대로 자기가 공한 도리를 알고 공한 도리를 알면, '애탄지탄할 게 없이 함이 없이 24시간 굴렀구나. 함이 없이 굴렀구나. 함이 없이 보고 듣고 말하고 움죽거렸구나. 함이 없이 식구들하고 싸웠구나. 함이 없이 웃었구나. 함이 없이 성냈구나.' 이런 게 모두가 그냥 이렇게 함이 없다는 것만 알면은 죄가 붙을 일도 없고 유전성이 생길 일도 없고 영계성이 생길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업보성이 거기 붙을 일도 없고. 이거 괜한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짓을 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편안하다 편안하다 하면 편안하다는 데다 거기 흡수돼서 돌아가죠. 가정살이가 다 흡수돼서 돌아가요. 그냥 거저 편안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오시면은 얼굴에 기미가 꼬이고 이렇게 얼굴에 벌써 그냥 아주 애탄지탄하고 사시는 게 완연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기미 좀 벗기고 살라고 그러면 어느 때 기미가 다 벗겨져서 와요. 그것이 내부에서부터 외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나같이, 못난 나같이 그렇게 편안하게 사시란 말입니다.

> 모든 것에 중심을 두고 산다면
> 어떠한 괴로움의 상처도 가실 수 있고
> 어떠한 괴로움의 구덩이 속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불상, 법당시공 및 철거(퇴불), 개금, 단청, 풍수 인테리어 등

좋은 인연으로 성실하게 마음에 꼭 드시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미텍 대표 윤승민 두손모음



도금 소불 6치 7치 분당 15,000 ~ 21,000원

■ 전시장 :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242-167번지
■ 공 장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41, 3층 308호 (신길동, 정우벤쳐타운 2)
■ 연락처 : 010-8523-7718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며 가방에 담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품설명
■ 괘불 크기 : 가로 200cm × 세로 300cm
■ 무 게 : 15kg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판매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불자 세상보기 |

나누면 나와 세상이 바뀐다



선업 스님
서울통담아카데미아 원장

미시건大 연구결과 장수 비결은 '보시'
나눔 실천하면 엔돌핀 3배 증가 효과
뇌 '보상 회로' 작동해 스트레스 감소

하버드大 연구도 보시의 긍정효과 입증
심리 포만감 지속 'Helper's High' 확인

보시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으니
새해에는 모두 나눔의 등불 들어보길

얼마 전 일반 대중에 대한 강의 중에 "어수선한 시국과 어려운 경기를 핑계로 각박한 인심이 야박하지도 않은 요즘, 여전히 낮은 곳에서 묵묵히 나눔과 베풂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소식이 막힌 체증을 그나마 뚫어준다"고 하면서 "전주 완산구 노송동에는 17년 째 매년 5천 여 만원을 기부한 사람이 있고 그렇게 기부한 금액이 현재 5억 원에 달한다"고 예를 들었다. 그러자 대뜸 질문이 들어왔다. "보시하면 뭐가 좋아요?"

이에 대한 답은 의사와 사회학자들이 해주고 있다. 이들이 밝혀낸 보시의 효과는 나눔과 베풂을 실천하게 되면 가장 먼저 신체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온다는 점이다. 2003년 미시건 대학에서 5년에 걸쳐 423쌍의 장수비결을 연구하던 중에 그들의 공통점을 찾아냈는데 그들은 정기적으로 몸이 불편하거나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방문하여 나눔 활동을 하고 있었다. 연구 결과 "나눔을 실천하는 행위가 엔돌핀을 정상치의 3배 이상으로 분비토록 하여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불면과 만성 통증을 감소시켜 장수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보시는 또한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 사람의 뇌의 '보상회로'는 여러 감정 중 기쁨과 희열을 담당하는데 남을 도우면 이 영역이 활성화되면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기쁨은 상승되고 우울감과 스트레스는 감소되는 것이다.

더불어 나눔과 베풂은 긍정적인 정서 증진 효과가 있다. 보시를 행할 때 마음이 뿌듯하고 따듯해지는 감정이 느껴지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1988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 의과 대학에서 실험대상자들에게 남을 돕는 활동 전후의 기분의 변화를 측정하고 그 변화를 비교하는 실험을 하였다.

실험 결과, 나눔 행위를 한 사람들의 기분이 실험 전보다 현저하게 상승하여 심리적 포만감인 '높은(하이)' 상태로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지속되는 효과를 확인하게 되어 남을 도우면 느끼게 되는 최고조의 기분을 '헬퍼스하이(Helper's High)'로 명명하게 된다.

이 결과를 적용해보면, 포대화상이 선물 보따리를 풀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보기만 해도 기쁨이 올라오고 그의 지팡이에서 울리는 요령소리가 대중들의 환희의 소리로 기능했다는 기록이 틀리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나눔과 베풂을 보기만 해도 긍정적 정서가 상승하는 이 현상을 이제부터는 '포대화상 효과'라고 부르면 어떨까.

마지막으로 나눔은 사회구성원 모두를 건강하게 만들어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성원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보시를 행하면 연대의식이 증가하고 결집력이 높아져 공공선을 위해 함께 만드는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다.

〈육취윤회경〉을 보면 "보시(베풂)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부처님 말씀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되고, 의약을 보시하면 질병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된다. 등불을 보시하면 항상 눈이 밝아지게 되며, 음악을 보시하면 목소리가 아름다워진다. 침구를 보시하면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고, 좋은 밭을 보시하면 항상 창고가 가득 차게 된다"고 한다.

올 정유년에는 나눔과 베풂의 등불로 어두운 곳을 밝혀 개인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사회가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 모두 행복한 그런 세상 만들었으면 한다.

社 說

대사면, 진정한 화합의 씨앗 돼야

조계종이 신년 벽두부터 멸빈자 대사면을 화두로 꺼냈다. 94년 개혁 당시 멸빈 당한 서의현 前 총무원장을 두고 사면 조치가 취해질 지에 대해 교계 안팎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계종 멸빈자 문제는 1994년 종단개혁과 맞물려 발생했다. 당시 서의현 前 총무원장이 3선 연임을 시도하자 이에 반대하는 스님들이 '승려대회'를 열어 탈종과 개종 도모, 은처 등 가족관계 논란, 종단 화합과 정통성을 파괴하는 불법 집단행위 야기 등을 이유로 멸빈을 결정한 바 있다.

그동안 조계종은 94년 개혁 당시의 멸빈자 사면을 두고 논쟁을 벌여왔다. 특히 호계원이 서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해 공권정지 3년 감형 결정을 내리며 대중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개혁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멸빈 문제에 대해 종단이 복권을 꺼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원융한 종단 발전을 위한 화합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멸빈자들의 복권으로 종단이 다시 개혁 이전으로 회귀할지 모른다는 의구심도 커져 가는 것이 사실이다.

해답은 자명하다. 멸빈자 복권은 멸빈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불교계의 '대화합'과 '발전'을 위한 명분 하에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의당 멸빈자 복권으로 인한 대중들의 분란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

일시적인 행사에 그친 사면에 대한 대중공사를 지속 개최하고 개혁 당시의 주체 뿐만 아니라 전체 종도에 대한 여론 수렴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과정에서 종단이 멸빈자 사면으로 인해 개혁정신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모습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대사면이 화합의 씨앗이 될지, 분란의 씨앗이 될지는 이제 종단의 행보에 달려있다.

교무금 납부변화 성공하려면

조계종이 신도조직 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매년 감소하는 종단 신규 신도 증가폭과 미미한 교무금 납부 이행부터 손을 대고자 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에서 준비 중인 '종단 신도조직과 신도등록사업 발전 방안'에 따르면 현재 신도 의무인 교무금 연납은 일괄납부로 바뀌며 사찰과 종단의 교무급 배분도 종단 수입으로 일원화된다.

신도등록에 대한 사찰 측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판단에서 중앙신도회를 비롯한 각 신도회에 업무를 이관할 것이란 말도 들려온다.

조계종의 종단 신도등록은 교무금이라는 포교재원 마련과 함께 종단 소속감을 불자들에게 심어 줄 수 있는 방안이다. 갈수록 연성종교화하는 불교에서 그나마 제도권 불교에 책임감을 갖게 하는 방안이다.

종단 신도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교무금 연납을 일시납으로 바꾸는 것 뿐만 아니라 신도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가장 먼저 종단 신도증 내 사찰 로고를 첨가하고 전자카드 도입을 통해 기도이력 등도 볼 수 있다니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불자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고령층이 과연 얼마나 이 같은 신도증의 변화를 체감할까. 고령층인 점을 전제로 연납에서 일시납으로 바꾸려는 시점에서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도회 뿐만 아니라 사찰 주지 스님을 비롯한 전 불자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 종단 신도에 대한 정체성을 지속 교육해야 한다. 포교원의 이런 혁신책과 함께 총무원에서도 인사고과 등에 종단 신도등록 등을 포함시키는 등 강력한 후속대책도 필요하다.



꽃으로 본 세상만사
정상교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코감기, 그리고 〈금강경〉

겨울이다. 코가 맹맹해진다. 감기가 오는가 보다. 감기가 들면 난 꼭 냄새를 맡아 후각 기능을 '점검'하는 습관이 있다. 일본에서 겪은 어떤 경험 때문이다.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 것이 3월말, 한국보다 훨씬 따뜻한 날씨였음에도 공항의 많은 직원들이 마스크를 하고 있었다. 워낙 '깔끔 떨기'를 좋아하는 일본인들이라는 소문을 들은 바도 있고, 국제공항인 만큼 감염을 예방하려고 그러는가보다 이해도 했지만 그리 유쾌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공항에 나를 마중 나온 한국인 지인 역시 마스크를 하고 있었다. 그의 차를 타고 가면서 마스크에 대하여 물어봤더니 꽃가루 알레르기란다. '카훈쇼(花粉症).' 명칭은 꽃가루 알레르기지만 정확히 말하면 봄철 여러 나무들이 뿌려대는 꽃가루가 눈코입으로 들어가 눈병, 가려움, 재채기, 호흡 곤란들을 일으킨단다.

일본 생활 2년째 되던 봄, 눈이 간지럽고 맑은 콧물이 흐르기에 주위에 물어봤더니 '오메떼또우(축하해)'란다. 꽃가루 알레르기에 걸렸으니 일본인 체질로 바뀌었단 얘기다. 하지만 코가 꽉 막히니 잠을 잘 수 없었다. 그것도 무척이나 괴로운 일이었지만 그 증상이 시작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나는 태어나 처음으로 냄새 맡는 기능을 1주일간 잃어버렸다. 그로 인해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다.

먼저 화장실에서 아무리 구린내를 풍기며 볼 일을 보아도 그 공간은 변기가 있는 장소일 뿐, '똥냄새'라는 악취가 있는 곳은 아니었다. 아침에 일어나 혹시나 후각이 돌아왔나 싶어 고가의 향수를 힘껏 들이마셔도 보았다. 하지만 그 향수는 액체일 뿐, 적어도 나에게는 '향기'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 무의미했다. 결국 나는 '똥냄새=향수'인, 감각 기관이 '정상'인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에 놓였다. 나의 세상에선 최소한 악취에 관한 법률이 필요 없게 되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창조주라는 절대 신격(神格)도, 영원불변하는 영혼도, 신출귀몰한다는 귀신도, 아니면 합리적이라는 과학도, 그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눈·코·귀·입·피부·생각의 감각 기관이 그 대상과 맞닿아 인식된 것에 불과했다. 그렇게 우리는 안이비설신의에 기반하여 이 세상의 법률과 제도와 관습을 만들어 왔고, 그 세상 안에서 아름다움과 추함, 좋아함과 싫어함의 기준을 만들어 살아왔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우리의 6가지 감각기관은 믿을만한, '완전한 것'일까? 감각기관이 과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 후각 하나만 사라져도 이렇게 달라지는 세상인데 만약 우리의 감각 기관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 어쩜 우린 '똥냄새=향수'일지도 모르는, 아니 이러한 분별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원래의 모습을 매우 제한된 감각 기관에 기대 '똥냄새≠향수'라고 판단하고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불교의 문제의식이 그러했다. 우주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인 세상의 모습이, 사실은 번뇌에 휩싸여 때 묻은 감각기관 때문에 왜곡되게 그려진 결과라고 불교는 보았다.

그렇다면 '똥냄새≠향수'라는 판단 하에 집착하고 분별해 온 많은 것들은, 실은 우리의 불완전한 감각기관의 헛된 그림자일 뿐이다. 번뇌를 떨쳐 버리고 맑은 감각기관을 통해 우주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 여실한 제법의 실상을 바로 보신 고타마 붓다께서 보시기에 이런 중생들의 삶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으리라. 그제야 나는 너무나 자주 들었지만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왔던 〈금강경〉 한 구절이 가슴속으로 쿵하고 울려 퍼졌다.

모든 만들어진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음이니 꼭 이와 같이 생각하여야 함이거늘…. 一切有爲法(일체유위법) 如夢幻泡影(여몽환포영) 如露亦如電(여로역여전) 應作如是觀(응작여시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치유도 전문가를 만나야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행복이 걸린 문제입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 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 마다 가위 눌리는 경우
• 숙면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 심한 경우
•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가정불화, 사고 우환이 계속되는 경우
• 중, 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 행동, 폭력적 행동, 학습능력저하, 자살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을 해도 효과 못 보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 천도가능 함.
• 신기운, 무병에 시달리는 경우
• 동물(소,돼지,개,닭,오리,어류 등). 식물(큰나무 베고 탈난 경우) 영가도 천도 가능함.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또 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원격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가능)
• 몸안에 들어온 영가제령, 최고실력 보유 (전국 최고)
상담문의처 | 제주 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 전국 어디든 상담환영!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靈山齋儀式集
영산재의식집
일승 행원 편저 | 국배판 | 446쪽 | 40,000원

영산재 각 의식마다 소리의 길이와 높낮이 등을 그린 채보를 수록하여, 범패를 배우는 초보자들이 보다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영산재는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던 모습을 재현한 것이라는 설과, 위나라 조식이 천태산에 오르자 범천에서 오묘한 소리가 났고 그 소리에 맞춰 고기떼가 춤을 추자 그 소리를 모방해서 범패를 만들었다는 설이 있다. 영산재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한국 불교의 귀중한 자산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전통예술이자 인류가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범패는 구전으로 전승되는 관계로 한 구절을 익히려고 해도 그 소리를 수십 수백 번 반복해서 들어야 하고, 게다가 전승자마다 소리가 조금씩 달라서 범패를 배우기는 매우 어렵다.
이 책은 실제로 저자가 범패를 배우면서 소리를 잊지 않고 익히고 공부하기 위해 한 구절 한 구절 일일이 채보한 것들을 모아 다시 편집한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범패를 배우는 이들이 좀더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익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시련, 대령, 관욕, 조전점안, 신중작법, 괘불이운, 영산작법(상단권공), 식당작법, 운수상단권공, 중단권공, 신중퇴공, 관음시식/전시식, 봉송 및 소대의식까지 의식 내용과 그에 따른 채보를 수록하여 범패 전승의 현대화를 꾀하였다.
불서총판 운주사 02-3672-7181 010-9726-0626 (저자)

이젠 몸에 좋은 천연방향제가 대세!!
천연 한방방향제
동의보향 DONGUIBOHYANG 香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 향이 좋은 생약재를 엄선한 한약 방향제입니다.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향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방향제와는 달리 자연에서 얻은 천연향으로 심신을 안정시켜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주는 이의 마음처럼 향기로운 동의보향은 오래토록 기억되는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용 대량 구매 시 추가로 덤 증정
• 용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장롱 등
• 규격 : 12*19cm(복주머니),100g
주문전화 : 010-5607-3313 (062)385-9954
입금계좌 :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제조원 : 수풀림

2017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9기 수강생 모집
그동안 제1기에서 제8기까지 전국에서 1,0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9기 수강생부터는 스님과 불심 깊은 불자들에게도 무료로 명리학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대상
1)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2)불심 깊은 불자님들
◆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① 교육기간 : 2017년 3월 14일 ~ 9월 26일까지
② 수 강 료 : 6개월 교육 전기간 강의료 무료
③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3시간)
④ 개강일자 : 2017년 3월 14일(화요일) 오후 1시
⑤ 책 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책자대금 : 20만원 준비)
상담문의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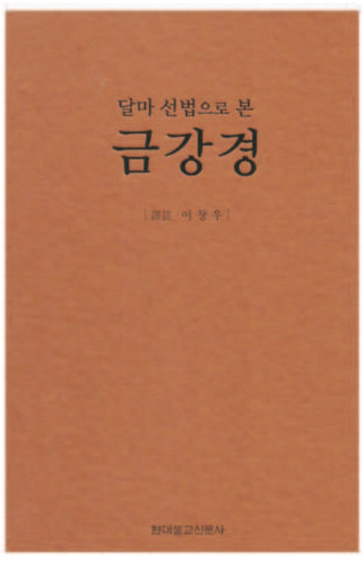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쟈못쟈'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 19,000원 | 여시아문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는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이 책은 참마음, 참나, 참자기, 본래면목, 불성, 자성, 진여일심, 한마음을 찾는 달마선법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풀이(주해 및 강의)한 책이다. 저자인 이창우 거사는 조계종 한마음선원장 대행 선사의 재가 제자로서 오랫동안 대행 선사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고 마음공부를 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냈다. 저자는 "마음에 몰록 놓는 삶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 같지만 발 가는 곳에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진리(부처)가 있으므로, 생활을 도량으로 삼으면 살아서는 안내자가 되고 죽으면 구세주가 되므로, '참자기'를 스승으로 삼고 '참마음'을 등불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탈의 돈법
삼계를 벗어나는 최상의 해탈법
담허대사의 염불론과 정혜쌍수(定慧雙修)



담허대사 저 · 송상섭 편역 | 신국판 | 부분칼라 | 232쪽 | 12,000원 | 여시아문
전국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출판 및 구입 문의 : (02)2632-8739

중국의 고승 담허(倓虛,1875~1963)대사의 명저인 『염불론』을 무심 송상섭 선정수련원 지도원장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 옛 중원(中原) 오종(5宗: 선종, 교종, 밀종, 율종, 정토종)의 진액을 하나로 모은 법문을 읽으면 누구나 낙오 없이 왕생극락하여 해탈하게 되어있다. 이 책은 또한 염불을 통해 일념, 무념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설명하면서, 선정(禪定)의 힘을 얻는 방법도 체험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아미타불 48대원
– 무량수경 · 아미타경과 정법개술 –



아미타불 48대원
- 무량수경 · 아미타경과 정법개술

연관스님 · 보정거사 번역 | 46배판 | 부분칼라 | 250쪽 | 10,000원 | 비움과소통

곧바로 불퇴전지에 올라 성불하는 묘법!

이 책은 『무량수경』 상권의 아미타부처님의 48대원을 서술한 한문과 번역문 및 해설, 보정 서길수 박사가 산스크리트어로 옮긴 『아미타경』 한문 원문과 번역문,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법을 개술한 대만 방륜거사의 『정법개술(淨法概述)』 번역문으로 이뤄져 있다. 『정법개술』은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을 역임한 연관스님이 번역한 염불수행의 중요한 지침서이다.

염불이 살아나야 불교가 살아납니다!

비움과소통은 정토불서 발행을 통해
아미타부처님의 대원大願을 일깨우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도서출판 비움과소통
비움과소통은 여시아문의 자매 브랜드입니다.
불교쇼핑몰 비움과소통 몰(www.bns-mall.co.kr)
불서전문 책방 비움과소통(02-2632-8739)

여시아문 도서출판 여시아문 | 전화 : 02-2004-8213

45년 '花禪一如' … "꽃은 곧 부처님"



산문 밖의 禪

지연 스님 (보림꽃예술중앙회장 · 기원사 회주)

꽃. 인간이 인간에게 건넬 수 있는 것 중에 그처럼 아름다운 것이 또 있을까. 꽃은 인간이 가장 기쁜 순간과 가장 슬픈 순간에 찾는 '언어'다. 꽃 한 송이로 법을 주고받았던 그 옛날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꽃은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가장 아름답고 깊은 언어였다. 그만큼 꽃을 건네는 일은 특별한 일이다. 모든 언어가 문법을 가졌듯이, 꽃도 문법을 가졌다. 바로 꽃꽂이다. 꽃꽂이는 꽃의 문법이다. 그리고 그 꽃꽂이가 불가(佛家)의 문자를 품는 순간, 그것은 그 옛날의 '염화(拈華)'와 같은 것이리라. 45년 동안 꽃꽂이로 '염화'의 길을 걸으며 '불교꽃꽂이'의 영역을 넓힌 이가 있다. 서울 기원사 회주 지연 스님이다. 스님의 염화, 꽃꽂이는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꽃과 함께한 인생

3세 때 죽을 고비 넘기고
모친과 절에 다니며 불연 시작
옥련암서 은사 스님 만나
어릴 때부터 꽃·나무 좋아해

불교 꽃꽂이 새 장 열다

동대 입학 후 꽃꽂이 입문
40여 년 출품과 강의로
포교·전법 활동 활발

생사의 반전, 출세간의 반전

지연 스님은 열 살 때, 서울 미타사에서 대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숙연 아닌 인연이 어디 있을까. 스님의 이른 출가 역시 그렇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지연 스님이 세 살 때였다. 할아버지 환갑 잔칫날이었다.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들고 놀던 아이는 갑자기 일어난 어머니 치맛자락에 딸려가 쇠죽을 끓이고 있던 뜨거운 가마솥에 빠졌다. 급히 아이를 건졌으나 아이는 숨을 쉬지 않았다. 모두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잔칫집이 초상집이 되었다. 그렇게 생과 사는 알 수 없는 것이었다. 아이의 죽음이 확실해지자 모두가 아이를 그만 묻자고 했지만 스님의 어머니는 이제 겨우 세 살인 딸을 차마 보낼 수 없었다. 모친의 오열에 가족들도 차마 아이를 쉽게 묻을 수 없었다. 그렇게 짧은 세연을 접고 죽음으로 변한 아이는 방 한 편에서 금생의 하룻밤을 더 보내게 된다. 창가에 여명이 번질 무렵, 방안에는 기적이 번진다. 아이가 울기 시작한 것이다. 모두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이가 기적처럼 살아났다.

"한 번 더 사는 거죠. 그렇게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랬다. 스님의 극적인 생사는 지금 우리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본인도 기억할 수 없는 시절의 생사 반전은 숙연의 봉인을 푸는 일이었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이후로 지연 스님은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삶의 궤적을 그리기 때문이다. 아이는 자주 아팠다. 마음도 몸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 약했다. 지연 스님의 어머니는 스님을 데리고 절에 다니기 시작했다. 대구 옥련암.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였다. 딸아이의 건강. 다른 아이들처럼 튼튼하게만 자라주는 것이었다. 지연 스님의 집안에는 스님이 한 분 있었다. 촌수가 조금 먼 할머니였는데, 해인사 삼선암에 계신 수한 스님이었다. 옥련암은 수한 스님의 상좌 스님이 계신 곳이었다.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는지, 절에 가 있으면 덜 아프고 편안했어요."

지연 스님의 어머니는 더욱 열심히 지연 스님을 데리고 절에 다니며 기도를 놓지 않았다. 지연 스님이 열 살 때였다. 지연 스님은 출가 은사인 대운 스님을 옥련암에서 만난다. 대운 스님은 옥련암에 인연이 있어 한번 발걸음을 하면 오래 머물렀다. 지연 스님의 세간사를 들은 대운 스님은 지연 스님의 지난날을 불연이라고 생각했다. 대운 스님은 서울로 올라가는 길 위에 열 살 난 지연 스님을 태웠다. 지연 스님의 어머니는 그 길을 막지 않았다. 그 길이 지연 스님의 출가였다. 그 옛날 생사의 반전처럼 출세간의 자리 역시 순간에 그 자리를 바꾸었다.

꽃을 집다… 명동서 꽃꽂이 연구소 개원

지연 스님은 삭발을 하고 초등학교를 다녔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역시 그랬다. 수업이 끝나고 다른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지연 스님은 절로 가야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애써 물어볼 필요가 없는 자명한 일이다. 지연 스님은 그 쉽지 않은 시간을 여법하게 견디었다. 지금에서 보면 그저 불연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당시의 어린 지연 스님으로서는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지연 스님은 어린 시절부터 꽃과 나무를 좋아했다. 길이가 다른 나무 끝을 보면 맞춰놓고 싶고, 흩어져 핀 꽃들을 보면 모아놓고 싶었다. 불단에 올라가는 꽃들을 볼 때면 늘 아쉬웠다. 좀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지연 스님은 늘 꽃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살았다. 아마도 그것은 힘든 시간 속에서 작지만 큰 위로가 아니었을까 싶다. 그리고 숙연 속의 숙업이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싶다. 지연 스님의 불교꽃꽂이는 그 시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싶다.

지연 스님은 열일곱 살 때 관응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받고, 4년 뒤 동학사 강원 사교과를 마친 뒤, 돌연 동국대 불교대학 선학과에 입학한다.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 지연 스님은 불명을 받은 수좌로서 당연한 공부만 하고 있다는 것이 왠지 부족한 행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법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공부로 보다 충분한 수행자의 면모를 갖추고 싶었다. 선화를 그리고, 선시를 쓰고, 불교음악을 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통해 불법을 펴고 있는 스님들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던가. 바람이 불어오듯 지연 스님의 귀에 들려온 것이 있었다. '꽃꽂이'였다. 꽃꽂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지연 스님은 무릎을 쳤다. 그리고 가슴이 뛰었다. 만난 것이다. 인연을.

꽃꽂이에 대한 저변이 거의 없던 시절이었다. 지연 스님은 학교 주변에서 꽃꽂이를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아냈다. 우금연 원장이 운영하는 '금연꽃꽂이연구소'였다. 처음 2~3년간은 어른 스님들 눈을 피해 꽃꽂이 공부를 했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기획연재 박원자 작가의 '인생을 바꾼 100배'
B5 문화 불일미술관, 신년특별전 '허락 금사경'
B6 기획연재 간사이 아줌마의 '일본 사찰 엿보기'
B7 가족 용수 스님의 '티베트불교 1분 명상'

꽃송이 마다 一念으로 佛心 담아

'지연 스님' B1면에서 계속

꽃꽂이 사범과정을 마친 지연 스님은 동국대를 졸업하면서부터 한국 꽃꽂이협회 회원으로 가입하고, 명동에서 꽃꽂이 연구소를 열어 꽃꽂이 강좌를 시작했다. '스님의 꽃꽂이'는 당연히 '불교꽃꽂이'였고 그 강좌의 자리는 다름 아닌 포교의 장이 되었다. 스님은 육법공양 관련 여러 특강과 40년 넘게 매주 수요일 기원사에서 정기 강좌를 열고 있으며, 매년 초파일 즈음에는 단기 무료강좌도 꾸준히 열고 있다.

지연 스님은 꽃꽂이를 시작한지 10년 만인 1980년대 초부터 비슷한 시기에 꽃꽂이를 시작한 몇몇 도반들과 전국불교꽃꽂이연합회의 창립을 모색한다. 하지만 저변은 열악했다. 광고를 내고 전국으로 수소문했지만 사범자격증을 가진 스님은 열 명이 채 안 됐다. 세월이 필요했다. 1988년 9월 마침내 서울 서초동 수안불교회관에서 전국불교꽃꽂이연합회가 출범한다. 그 해부터 전국불교꽃꽂이연합회는 매년 전시회를 열며, 불교꽃꽂이의 기원과 역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정리하는 협회로 자리매김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지연 스님은 '보림꽃예술중앙회(이하 보림회)'를 만들어 개인 차원에서도 공부를 이어간다. 또한 '불교꽃꽂이연구소'를 개설해 불교경전에 등장하는 꽃들의 이야기를 다룬 〈불교의 꽃 이야기〉 등 불교꽃꽂이를 위한 교재를 발간한다.

"불교 속의 문화를 알림으로써 포교의 장을 넓히고 싶었어요. 〈법화경〉이나 〈화엄경〉처럼 꽃으로 장엄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보다 더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연 스님은 이후에도 1998년에 〈보림회의 길라잡이〉라는 꽃꽂이 교재를 발간했는데, '보림(寶林)'은 극락정토의 칠보(七寶) 수림(樹林)으로, 〈무량수경〉의 '칠보의 제수(諸樹)가 세계에 가득하다'에서 온 것이다.

"현대의 수반 꽃꽂이는 불교에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꽃꽂이의 가장 기초적인 화형의 구도가 삼존불의 배치도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이 되는 꽃을 가운데 꽂은 후 균형을 이룰 꽃을 양옆에 꽂는데, 바로 이러한 삼각구도는 중앙의 주불인 부처님을 중심으로 양쪽에 협시보살을 모시는 삼존불의 배치와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꽃꽂이라는 영역은 수행자의 영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꽃을 꽂을 땐 늘 수행자의 마음으로 꽃 하나하나에 일념을 담아 놓아야 합니다."

지연 스님은 작품을 시작하면 그 작품이 끝날 때까지 꽃이 된다. 꽃 말고는 스님의 육근을 지나가지 못한다. 공양을 했으나 공양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해우소를 다녀왔으나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 '화선불이(花禪不二)'이다.

이렇듯 지연 스님이 꽃꽂이를 통해 홍법에 기여한 것은 눈에 보이는 작품과 강좌 등 일련의 불사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나지만, 스님이 불교꽃꽂이를 통해 한국 전체 꽃꽂이계에 불교의 위상을 심은 것 또한 커다란 기여이며 불사라 할 수 있다.



회향도 오직 꽃꽂이로
45주년 기념 전시회 열고
후학 양성 위한 길 모색
"꽃꽂이 관심 가져주길…"

지연 스님은 강좌와 전시, 출품 외에도 성철 · 탄성 · 혜암 · 관응 등 큰스님들의 꽃상여를 장엄하는 등 선지식의 열반길 장엄불사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꽃이 있는 곳이면 스님이 있었다.

45년 동안 걸어온 꽃길

검은 소 한 마리가 바위 속으로 뛰어 들고, 동자 하나가 소를 뒤따른다. 동자 옆에는 마디초가 솟아있고, 노박넝굴이 걸려있다. 동자와 소의 발밑엔 라벤더와 소국이 소담스럽게 피어있다. 꽃꽂이로 그려낸 심우도이다. 지연 스님의 작품 '여정' 중 '출가'라는 작품이다. 60년 전 자신의 출가 모습에서 온 것이다. 그 옛날, 어머니의 손을 놓고 영문도 모른 채 스님을 따라가던 어린 지연 스님의 기억이 그린 그림이다.

2016년 10월 18일. 서울 현대백화점 미아점에서 제6회 보림회 전시회가 '마음 머물다-화(花) · 화(畵) · 화(話)'라는 제목으로 열렸다. 보림회 창립 25주년과 회장인 지연 스님의 꽃꽂이 45주년을 기념하는 전시였다. 회원들과 (사)한국꽃꽂이협회 초대작가 등 불교와 일반 꽃꽂이 작품 90여 점이 전시됐다. 가장 눈길을 끌었던 작품은 지연 스님의 고희에 맞춰 출가부터 지금에 이르는 지연 스님의 일대기를 8부작으로 그려낸 '여정'이었다. 그 중 앞에서 소개한 작품 '여정'은 스님이 열 살 때 속세를 떠나던 날을 그린 작품이다. 여정은 가사장삼과 호접란, 망개가 어우러진 '향화(25세)', 기원사를 창건하는 '도(道) 그리고 화예(花藝 · 35세)', 발우에 꼿꼿하게 선 스틸그라스로 수행의 공양을 표현한 '깨달음의 공양(40세)', 오색 국수가닥과 수양버들, 클레마티스로 만개한 꽃길을 그려낸 '화엄법계(51세)', 불교꽃꽂이 저변 확대라는 원력을 담은 '만행화(61세)', 출가 60년과 꽃꽂이 45년의 '진리의 향연(오늘날)'까지. 여백과 절제로 그려낸 꽃그림은 선(禪)의 세계와 닿아있다. 작품 여정의 백미는 '탑 그늘 아래'이다. 우주를 상징하는 속이 빈 나무둥치 안에 작은 소나무 한 그루와 석탑이 서있다. 그 사이에 안시리움 하나가 피어있다. 지연 스님, 자신이다. 지연 스님은 이 작품을 통해 백천만겁에 만나기 어려운 법을 만난 것을 복으로 여기고, 그 마음 꽃공양으로 여한 없이 회향하고자 하는 자신의 서원을 그렸다.

"올해로 꽃꽂이에 입문한 지 45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한국불교계의 꽃을 이용한 문화포교가 많이 성장한 만큼 후학들이 불교적 가치를 잘 담아내 더 많은 전법의 기회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꽃다운 회향

"꽃꽂이 강의를 40여 년간 해왔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만 할 생각입니다. 꽃꽂이를 놓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후학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좀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것이 1세대인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공부해서 후학들에게 일러주고 가는 것이 저의 회향입니다."

45년 동안 꽃꽂이 한 길을 걸어온 지연 스님은 매년 불교꽃꽂이연합회, 보림회 등의 전시에 작품을 출품해왔으며, 여섯 차례의 개인전과 5권의 작품집을 발간했다. 공식 작품집에 실린 작품만 해도 천여 점이 넘는다. 앞으로 연구와 저술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지연 스님은 한편으로 출가자들의 불교꽃꽂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고 아쉬워했다.

"예전에는 비구니 강원에 꽃꽂이 강좌가 많이 있어 강의를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꽃꽂이 강좌가 대부분 사라졌어요. 그만큼 관심이 줄었다는 것이겠지요. 육법공양에 꽃공양이 있다는 것은 꽃이 그만큼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꽃을 여법하게 다루는 것 역시 중요한 불사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불제자들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석가모니부처님과 아쇼다라 공주는 전생에 꽃으로 인연을 시작했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날엔 꽃비가 내렸다. 아기부처님이 처음 내딛었던 발걸음 마다엔 연꽃이 피어올랐고, 영산회상에서 부처님은 가섭 존자와 꽃 한 송이로 법을 주고받았다. 부처님께서 아쇼다라 공주와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된 전생의 인연을 설하신 후로부터는 일곱 송이의 꽃으로 결혼식을 올리는 풍습이 생겼다. 그 만큼 꽃은 대중의 삶을 아름답게 장엄해주는 소중한 존재로, 대중에겐 보배인 것이다. 지연 스님의 걱정과 아쉬움에 대중이 함께 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할 것이다. 오늘도 지연 스님은 꽃을 든다. 그 꽃송이 속엔 우리가 주고받아야 할 소중한 이야기들이 들어있다. 꽃만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절이 올 것인가.

글 · 사진=박도일 수필가 wanihollo@hanmail.net

지연 스님은?



"저변 약한 문화포교에 지속 힘쓸 터"

서울 미타사에서 대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64년 관응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수지했고, 1968년 동학사 강원 사교과를 수료했다. 1974년 법주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했고, 1976년에 동국대 선학과를 졸업했다. 1977년 기원사 초대 주지를 지냈고, 현재 회주로 주석하고 있다. 1980년 법보연구원 경국사 대교과를 졸업했고, 1988년부터 회룡사와 동화사 양진암 등에서 안거를 마쳤다. 전국불교꽃꽂이연합회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보림꽃예술중앙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불교꽃예술부분 공로패 등을 받았으며, 저서로는 〈불교의 꽃 이야기〉, 〈보림회의 길라잡이〉, 〈한국꽃꽂이 지침서〉 등 다수가 있다.

소원을 이루는 크리스탈 칼라 테라피

소원이 이루어 지지 않을 때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① 자기가 하는 일에 확실하지 못한 동기(부족함 때문)
② 타이밍이 맞지 않아

'무엇을 바라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은 달라진다.

8주완성

(색) 칼라의 힘

■ 1교시 : 몸을 다스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칼라공부
붉은색 : 뇌하수체를 자극하여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킨다.
노랑색 : 예전의 두려움, 전생부터 짐져온 불안 초조 (내면에 숨어있다)
■ 2교시 : 정확하고 재미있는 아주 쉬운 숫자로 보는 사주
■ 3교시 : 다가올 건강을 지적해주고 성형을 지적, 상담해 줄 수 있는 관상학

자기 자신을 먼저알고 자신의 기운을 먼저 바꾸고
상담해 주는 당신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상담문의 : 010-5658-2657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2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전류가 흐르며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역동적인 삶의 시작! 바로 108배



박원자 작가의
인생을 바꾼 108배

① 연재를 시작하며… 108배 예찬



그림 · 박구원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두 번쯤은 이쯤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이 있다. 어떤 변화 없이 이렇게 가다가는 그대로 무너져버릴 것 같은 고통스러움이 목까지 차올라 있을 때 말이다. 그러나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바꿔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자신의 고통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그것에서 벗어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편으로 108배를 추천하고 있다.

이십대 초반에 불교에 입문해서 간헐적으로 108배를 하고 있었지만, 진정한 108배의 시작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막막했던 불혹의 나이를 눈앞에 두고 있을 즈음이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면 늘 남의 집에 들어와 사는 머슴처럼 불편하고 불안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모른 채 마흔 가까이에 다다랐을 때, 나는 비로소 고통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학문에 뜻을 두고 공부하는 것에 긴 시간을 투자했던 남편은 박사 학위를 받는 것으로 젊음을 마무리했으나 미래가 불확실했고, 나는 나대로 무슨 일이든 해서 가정 경제에 보탬을 줘야 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남들과 견주어 뒤쳐져 있는 삶이 사실은 정견이 바로 서지 않은 나 자신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하다보니 그가 원망스럽고 밉고 보기 싫었다. 가까운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 온몸으로 느끼면서 매일매일 울고 싶을 때, 주간지 '현대불교신문'서 어느 일간지 편집국장 한 분이 쓴 신행일기를 읽으면서 탈출구를 발견하게 되었다.

오로지 결혼 적령기에 있던 딸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백일기도를 시작했는데, 매일 1080배씩을 하고 있다는 거였다. 출근하기 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백배를 하고, 퇴근하고 와서 다시 5백배를 한다는 것이었다.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어울려 술이라도 한 잔 하는 날엔 밤늦게 돌아와 절을 하고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나 다시 절을 해야 하는 것이 여간 고역이 아니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절을 하고 있다는 내용은 잠재되어있던 나의 신심을 촉발하기에 충분히 신선했고 감동적이었다. 그 글을 읽은 순간 '내가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거다!' 하는 내면의 소리가 들려왔고, 바로 그날 밤부터 하루에 1080배를 하는 것으로 백일기도를 시작했다.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고통 속을 끝없이 윤회했던 내 인생이 자유로움을 향해 과감히 돌아선 시점이었다.

그동안 답답할 때마다 집에서 가까운 절에 가서 108배를 하고, 어느 해 성도절에는 내 발로 걸어가 그 절 신도들 틈에 끼어 밤새도록 3천배를 하기도 했다. 그렇게 조금씩 절을 하며 자신에 대한 성찰과 하심과 용기, 평화로움 같은 것들을 아주 조금씩 경험했던 것이, 저 편집장 거사님의 신행일기를 보고 단박에 마음을 내는 동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시작한 백일 동안의 1080배 기도는 돌아보건대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불러 일으켰고, 역동적인 삶을 살게 했다. 내면의 변화는 물론 외부 환경의 변화도 많았던 시기였다.

처음엔 아침에 일어나 5백배, 나머지 5백배는 식

20년전 本紙 신행일기 읽고 발심
백일기도 시작… 매일 1080배
방황서 자유로움 향해 돌아선 계기

구들이 모두 잠든 시각에 했는데, 나중에는 신심이 북받쳐서 아침에 한 번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끝내버리곤 했다. 절을 하기 좋은 체질 때문인지 아니면 워낙 변화에 대한 갈망이 컸기 때문인지 몸이 힘들다고 느껴본 적은 없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힘이 났고 몸이 가벼워졌다. 몸이 가벼워지니 마음도 함께 가벼워졌다. 그때 알았다. 몸이 경쾌해 질 때 마음이 고요해지고 밝아진다는 것을.

거친 풍랑이 멈춰진 바다처럼 마음 바탕이 고요해지자 차츰 내가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얼마나 왜곡된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마음이 황폐해짐으로 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바라보게 되었다. 시시때때로 화가 올라와서 견딜 수 없었던 마음이 누군가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니라 내 잘못된 편견과 굳어진 생각에서 나온 것이란 걸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깨달음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는 것이었다. 검증되지도 않고 실체도 없는 그 고정관념이 나를 구속했고, 그 속박으로 인해 고통이 발생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정말이지 '환희용약'이라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 기뻤다.

100일이 끝나기 전에 많은 변화와 행운이 잇따랐다. 그 가운데 하나는 동국대 역경원 일을 하게 된 것이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자 자연스럽게 기회가 다가왔다. 절을 하니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무한이 솟아났고 그 용기가 기회를 만들어주었다. 몇 년 동안 경전 번역의 증의(이미 번역된 내용을 검토하는 작업)와 불교사전을 번역하는 역경원 일은 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일이 되었고, 정신적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견고한 발판이 되어주었다.

하나가 열리자 많은 것들이 동시에 열렸다. 한문과 불교 실력이 부족했던 것을 절감하고 봉선사 불경서당을 이끌며 경전을 강의하시던 역경원장 월운 스님께 강의를 들은 것도 빼놓을 수 없는 행운이었다. 몇 해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대한민국 최고 강백이신 스님께 강도 높은 강의를 들으면서 불교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절을 한 공덕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당시 공부한 것이 지금 글을 쓰고 데 얼마나 많은 힘이 되고 있는지 모른다. 그때 그렇게 열심히 절을 하며 변화를 갈구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의 내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열심히 산 시기였다.

지금도 나는 책 출간을 계획하고 원고를 시작할 때와 마감을 하고 났을 때 장애 없이 최선을 다해 일을 할 수 있기를, 또 원만하게 일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도하며 반드시 1080배를 한다. 첫 1080배 백일기도를 하고 나서 만들어진 나만의 경건한 의식이다.

당시 1080배를 하는 데 1시간 40분 쯤 걸렸다. 지금은 108배를 하는데 거의 20분이 걸리지만 그때는 빠르면 10분, 늦어도 12분 정도 걸렸던 것 같다. 나중에는 뒤에서 누군가 보고 '나비처럼 가볍게 절을 한다' 고 했을 정도로 몸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했던 기억이 난다. 어떤 사람은 백일 동안 매일 1080배를 하면서 '아, 제발 내일이 오지 말았으면' 했다는데, 나는 빨리 내일이 왔으면 기다리는 심정이 되었으니, 나의 첫 1080배 기도는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한 10분 쯤 지난 것 같

> "풍랑이 멈춘 바다처럼
> 마음바탕이 고요해지자
> 내가 보이기 시작했다"

은데 어느덧 1080배의 절을 다하고 났을 때 느꼈던 희열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러한 희열에 대한 체험이 그 후 계속 절 수행을 하게 했을 것이다. 그때는 참 많은 일을 하고 잠을 서너 시간 자고 일어나도 피곤할 줄 모르고 생기 있는 하루를 보냈다.

행복한 감정은 현재에 온전히 집중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절을 하면서 깨달았다. 그래서 108배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을 연습시키는 가장 좋은 방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여 년의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내가 행복해질 수 방법으로 108배를 놓지 않고 있이유가 아닐까 싶다.

절을 한 공덕으로 인해 생긴 변화는 또 있다. 열심히 기도하며 이웃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나누며 사는 도반들을 만나 한 달에 한번 3천배를 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진 것이 그것이다. 진리의 길을 가는 데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도반만큼 든든한 동지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무엇보다 큰 변화는 온 가족이 108배 동지가 되었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시키지 않아도 108배를 하고, 남편은 나보다 더 열렬한 108배 예찬론자가 되었다. 나중에 자세히 쓸 기회가 있겠지만, 내가 그토록 미워했으며 108배를 시작하게 했던 그는 나도 아직 해보지 못한 21일 3천배 기도를 하는 기염을 토하며 확실하게 인생을 바꾸었으니, 나의 첫 기도의 가피는 일파만파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 것이 틀림없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들이 변했으면 하고 바란다면 내가 먼저 변화하면 되고, 내 변화의 시작을 108배로 시작하면 분명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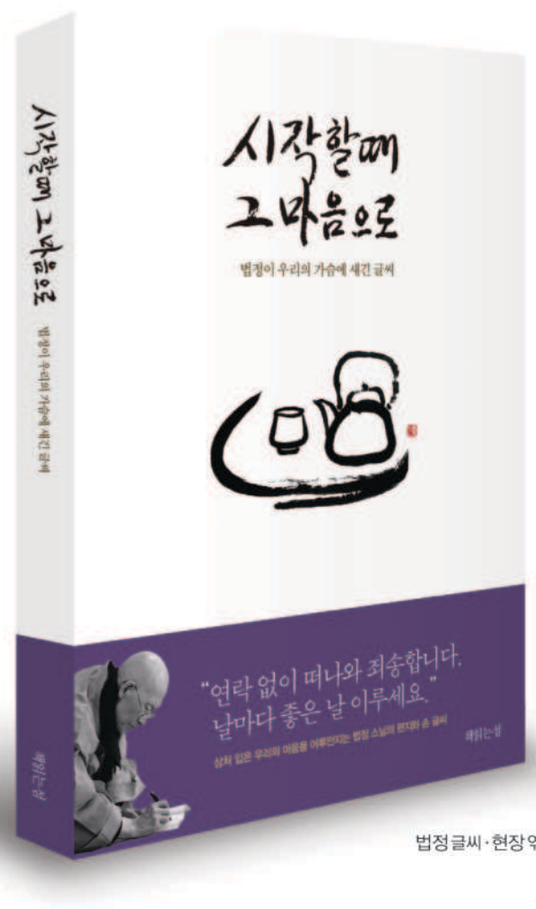
고통스러운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편안한 나로 변화하고 싶은 열망에서 시작한 108배가 이제는 그 무엇을 간절히 추구하지 않아도 그냥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은 수행이 되었다. 가끔은 내가 왜 이렇게 절을 하는가, 생각해볼 때가 있는데 이렇게 답을 내리곤 한다. 부처님을 부르면서 절을 한만큼 온전한 생명 그 자체인 부처의 자리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절을 하리라 발원하며 요즘도 나는 매일 3백배를 한다. 절을 하면서 많은 부처님의 아름들을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짧은 경전을 외우기도 한다. 명상음악을 틀어놓고 그것에 귀 기울이며 절을 하기도 하지만 좋은 것, 아름다운 것조차 마음에서 비우고 싶을 때는 그냥 몸만 움직인다.

이십여 년 전, 현대불교 신문을 보고 발심, 오늘의 나를 이루었는데, 이제 그 지면에 절수행에 대한 글을 연재하게 되었으니 이 또한 부처님의 가피가 아닐 수 없다. 오늘 첫 번째, 글쓴이인 '내 인생을 바꾼 108배'를 시작으로 절수행을 하면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을 만난 이야기를 쓸 것이다. 108배를 시작한 절이 1080배, 3천배로 이어지면서 가족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의 지평을 연 평범한 주부의 이야기에서부터, 20년 동안 매일 3천배를 빼놓지 않고 한 결과 본인이 바라는 바를 다 이룬 어느 신심 깊은 불자분의 이야기, 목숨을 걸고 절을 해서 시한부 삶을 극복하고 수행에 더욱 매진한 스님의 이야기, 사업의 위기를 108배로 이겨 낸 어느 노경영자의 이야기, 군대에 가서도 수백 배씩 절을 하며 치열하게 자신을 바꾸고자 노력했던 젊은이의 이야기도 쓸 것이다. 앞으로 펼쳐질 무궁무진한 이야기, 기대하시길!

박원자 작가는
숙명여대에서 중국문학을 전공했다. 대학시절 불교에 입문했고, 동국대에서 역경위원을 역임했다.
1991~1992년 월간 〈해인〉에 '호계삼소'를 연재했고, 1996년부터 12년 동안 同誌에 '나의 행자시절'을 연재했다. 2008년 〈나의 행자시절 1 · 2 · 3〉, 2016년 〈스님의 첫마음〉을 출간했다. 그 외 〈혜암대종사 법어집/1995〉등 저서가 있으며, '불교 입문에서 성불까지'를 지향하는 인터넷 도량 금강카페 운영자로 활동하고 있다.

법정이 우리의 가슴에 새긴 글씨



법정글씨·현장엮음 **정가** 12,800원 책읽는섬

연락 없이 떠나와 죄송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이루세요

7년 전 우리 곁을 떠나간 법정 스님의 알려지지 않은 발자취, 타 종교와 두루 교류했던 이야기, 지인과 도반들에게 보낸 편지와 선시를 손 글씨와 함께 엮은 책이다.

법정 스님의 명동성당 강론 최초 공개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법정 스님의 편지와 손 글씨

시작할 때 그 마음으로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1.4~2017.1.1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사찰불화명작강의	강소연	불광출판사
2	붓다컬러링(손끝으로 만드는 마음속평화)	매튜스미스	(주)조계종출판사
3	붓다아비담마	멤틴몬/김종수	불광출판사
4	대방광불화엄경강설50(三十七.여래출현품)	여천무비	담앤북스
5	유식으로읽는반야심경	요코야마코이츠/허암	민족사
6	모든순간껴안기	아남 틈텐/임희근	담앤북스
7	안되겠다내마음좀들여다봐야겠다	용수	나무를심는사람들
8	테라가타-장로게경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9	니까야로읽는금강경	이중표	민족사
10	혜민스님의따뜻한응원(365일마음달력)	혜민	수오서재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우리에겐 얼마나 많은 가짓수의 음식이 필요할까?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선재 스님 지음

불광 펴냄

1만 8천원

선재 스님은 사찰음식 포교의 대부이다. 40여 년간 몸담았으니 명실공히 장인이라고 가히 부를 만하다. 이런 공을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조계종단으로 부터 '사찰음식 명장'이란 칭호도 처음으로 수여받았다.

선재 스님이 사찰음식 관련 신간을 펴냈다. 스님은 책에서 음식을 말하기 전에 '몸'에 대해 생각해 보자고 했다. 우리에게 몸은 무엇인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 당시 수행자들은 육체를 모든 번뇌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번뇌를 끊기 위해 육신을 극한의 고행으로 밀어붙이며 거기서 정신적 안락을 구하려 했다. 부처님도 처음엔 단식을 하는 등 고행의 수행법을 따랐다. 그러나 그 끝은 처참하고 피폐한 육체만 남았을 뿐이다. 부처님은 몸을 혹사하는 고행이 깨달음에 이르는 올바른 방법이 아님을 알고 그만두었다. 그리고 따듯한 유미죽을 먹고 기력을 회복한 후 몸이 편안한 상태에서 비로소 깊은 명상에 들어 깨달음에 이르렀다. 부처님이 드신 유미죽이야말로 사찰음식의 기원이다. 부처님은 몸을 벗어나야 할 대상이 아니라 깨달음의 주체로 보았다고 저자는 말한다. 부처님이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몸이 아파서, 일이 안 돼서 상담하러 온 이들에게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라고 먼저 물은 것은 몸을 잘 관리하고 있느냐는 뜻이란 것이다. 즉 내가 무엇을 먹고 사는지 살피고 바른 음식을 먹고 바른 생각으로 살아야 지혜롭게 잘살 수 있다고 여긴 것이라고 선재 스님은 말한다.

몸과 마음은 연결돼 있다. 몸이라는 그릇 안에 생각과 마음이 담긴다. 몸과 마음은 하나의 유기적 통합체이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육체, 정신, 영혼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상적 창조 행위이다. 부처님이 음식에 관한 많은 당부를 남긴 까닭이 여기 있다. 이 책의 2장 '사찰음식 삶을 돌보고 깨우다'에는 경전(〈염처경〉 〈사분율〉 〈마하승기율〉 〈잡아함경〉 〈수능엄경〉 〈니건자경〉 등)에 근거한 사찰음식의 철학과 지혜를 자세히 밝힌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하다. 이 책에서 선재 스님은 "음식을 통해 음식을 버리자"고 한다. 스님이 평소 많은 요리법을 가르쳐주는 데는 욕심내서 음식을 먹으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비우라는 가르침이다. 어떤 음식을 선택하고 어떻게 조리해서 먹어야 하는지, 그

40여년간 사찰음식 포교… 명장칭호 수여

사찰음식 원리… 스스로 에너지 만들도록

선재 스님, "음식 통해 음식 버리자" 강조

꼭 먹어야 할 사찰음식 51가지 수록도



저자 선재 스님은?

1980년 경기도 화성 신흥사 성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 수원 봉녕사 승가대학 대교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4년 중앙승가대학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며 발표한 〈사찰음식문화연구〉는 사찰음식에 대한 최초 논문으로, 관심을 끌었다. 저서로는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 〈선재 스님의 사찰음식〉이 있다.

리하여 정말 먹어야 할 음식들을 스스로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이끈다. 사찰음식을 배우기 전, 사람들은 세상에는 엄청 먹을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사찰음식을 조금 배우고 나면 세상에 먹을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한다. 그러다 사찰음식을 깊이 이해하고 나면 다시 세상에 온통 먹을 게 천지라고 말한다.

보통 음식은 맛을 좇아가게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그 맛은 정말 맛있다고 할 수 있을까. 자연의 음식, 제철 음식을 지향하는 사찰음식을 통해 우리의 입맛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진정한 맛을 알고, 혀의 맛만 좇지 않겠다는 생각이 분명하게 서 있다면 건강한 음식을 선택해 적절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사찰음식에서는 3가지 맛을 얻을 수 있다. 바로 음식의 에너지가 주는 맛, 기쁨의 맛, 기(氣)의 맛이다. 음식의 맛은 식품 그 자체의 맛이고, 기쁨의 맛은 음식으로 인해 마음이 기뻐지는 맛이다. 기의 맛은 수행으로 얻어지는 맛이다. 몸과 마음을 맑게 하는 음식을 먹고 지혜를 터득해가는 기쁨을 얻는 것이 바로 수행의 맛이다. 보통 사람들에겐 삶을 충실하게 채워 나가는 맛,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맛이다.

선재 스님의 사찰음식 강의에는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이들이 참석한다. 갓 결혼한 신부, 의사, 급식영양사, 식당주인, 의사 등등. 저마다 사연이 있지만 대부분은 가족이 아프다거나 아이를 위해, 환자 관리 차원에서 등 타인을 위한 자발적 배움이다. 인간의 마음 밑바탕에 깔려 있는 이타적인 마음을 조금 더 확장한 그곳에 사찰음식이 있다. 본문에 소개된 어느 철학 교수는 중년의 나이에, 그것도 남자가 1년 동안 선재 스님의 요리 수업을 모두 듣고 나서 마지막 소회를 이렇게 밝혔다.

"나는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철학은 더불어 살아가는 법에 관한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 끝에 저는 '음식'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그 점에서 보면 음식은 철학의 끝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바로 사찰음식입니다.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는 철학이 사찰음식에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 아닌 다른 생명에 대한 사랑과 배려야말로 조화롭고 화합하는 세상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사찰음식은 바로 세상 모든 존재를 이롭게 하는 조화의 음식, 하모니 푸드(Harmony food)입니다." 라고.

자연의 음식, 생명을 살리고 자연의 온 생명과 함께 공존하는 요리가 바로 사찰음식이다. 요리는 모든 사람이 삶에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기술이자 철학이다. 결혼하는 딸을 두고 어머니들은 "우리 딸은 공부만 하느라 음식을 할 줄 몰라요"라고 말한다. 저자는 그때마다 자랑이 아니라고 대꾸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음식을 배우게 하라고 부탁한다. 음식은 누구나 만들 줄 알아야 한다. 특히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쉬운 요리를 하나씩 해봐야 한다. 그것은 삶을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요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능력과 지혜, 즐거움,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사찰음식을 남녀노소, 한 사람 한 사람 배우고 익힌다면 세상은 더 안전하고 평화로워질 것이다.

보통 사찰음식, 하면 선재 스님을 떠올린다. 지난해 대한불교조계종서 최초로 선재 스님에게 사찰음식 명장을 수여했다. 출가 이후 40여 년 가까이 명리를 위한 일들은 단호히 거절하고 경계하며, 오직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보살행으로서 사찰음식을 알리고 만들어온 공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러나 스님에게 명장 호칭은 중요하지 않다. 스님의 말이다.

"나는 요리사도 의사도 과학자도 철학자도 아닙니다. 그저 스님이면 족합니다. 이보다 더 높은 가치는 나에게 없습니다. 얼마 전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사찰음식 명장'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찰음식 명장은 산중 절에서 사찰음식의 정신을 실천하고 그 음식을 드시며 수행하는 스님들입니다. 나에게 명장이란 칭호를 준 것은 산중 스님들이 드시는 사찰음식에 담긴 정신과 의미가 세상 속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바르게 전하여, 모든 생명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되라는 뜻입니다."

서두에 실린 '나의 삶과 수행 여정'에는 출가 전후부터 올해 세속 나이로 환갑에 이르기까지 스님의 삶을 담았다. 어머니와 할머니의 풍성한 음식을 먹고 자란 어린 시절,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나선 출가의 길, 문제 청소년들과 함께한 시간들 그리고 시한부를 선고 받고 사찰음식을 통해 회복하고 나아가 자신과 같은 아픔을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음식 수행자로 나서 활동해온 이야기들이 감동적으로 그려진다. 음식 수행자이자 스님 이전에 이타행으로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통해 '온전한 삶'이란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다.

마지막 장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는 스님이 뽑은 '한국인이 사계절 꼭 먹어야 하는 사찰음식'을 소개한다. 각 재료에 대한 풍부한 이야기와 더불어, 맛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조리법이다. 우리가 늘 먹는 음식이지만, 의미를 알고 직접 요리해 먹으면 몸과 마음의 건강이 배가 될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책속의 밑줄 긋기

▲"맛만 좇으면 많이 먹게 되고 건강을 잃게 되고, 건강을 잃으면 일과 관계도 원만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음식에 대한 생각이 분명하게 서 있다면, 조율과 절제, 비우는 삶이 가능해진다. 음식을 먼저 혀의 맛으로만 생각하지 않으면 진정한 삶의 맛, 지혜의 맛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p.174〉

▲사찰음식의 근본은 마음속 깨달음을 지향하는 선식이다. 단지 고기를 절대 먹지 말라는 경계와 금지의 가르침이 아니다. 음식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버리되 삶을 온전하고 건강하게 살도록 돕는 가르침이다. 부처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면, 우리에게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통한 균형 잡힌 소식에 대해 먼저 이야기할 것이다. 〈p.190〉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다. "고요하면 맑아지고 맑아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보인다" 라고.

고요한 마음으로 현상을 바라보매 지혜로운 눈으로 모든 것을 바로 보는 이치다. 부처님이 단식과 고행으로 깨달음을 이루려 했지만 실패하고, 유미죽을 먹고 기력을 회복해 마침내 최상의 지혜에 도달하셨다. 사찰음식 기원이다. 〈p.237〉

▲보통 사람들은 더위에 기운을 내게 하려고 삼계탕이나 장어 같은 것을 먹는다. 음식 자체에 있는 에너지를 먹고 힘을 내려는 것이다. 그러나 사찰음식의 기본 원리는 우리 몸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도록 도와준다. 혈액이나 기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막힌 곳은 뚫어주어 몸이 스스로 작동하여 힘을 내는 이치이다. 〈p.268〉

▲갈수록 식품첨가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포장지서 내가 이해 못하는 낱말이 있다면 먹지 않겠다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말라고 잔소리를 한다. 그 전에 아이들의 자존심을 세워주어야 한다. 아이들 스스로 먹을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방법을 일러줘야 한다. 〈p.363〉

연등전문기업 대광불교

지혜의 등 · 자비의 등
연등을 밝히세요!!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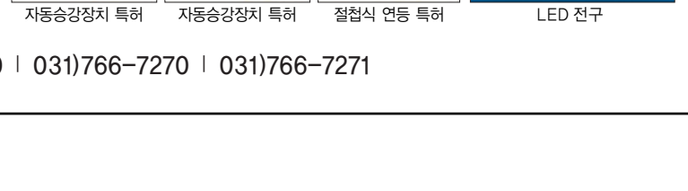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6-7270 | 031)766-7271

새벽을 여는 닭, 희망찬 새해를 선물하다

정유년 맞아 닭 전시 '다채'



십이지 신장 닭신(酉神) 미기라 대장(1977, 만봉(萬奉) 作).

'꼬끼오~'

천지의 아침을 깨우는 경쾌한 닭의 울음소리. 묵은해를 털어버리고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며 닭 전시회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천진기)은 2월 20일까지 기획전시실Ⅱ서 '정유년 새해를 맞다'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십이지 신장 닭신(酉神) 미기라 대장, 변상벽(卞相璧)필(筆) '계도(鷄圖)', '금계도(金鷄圖)'를 비롯한 닭 관련 회화 및 닭 모양 연적, 계이(鷄 彝), 다리미 등 생활용품 총 50여점이 공개된다.

특히 이번 전시는 조선 후기 〈축계설(하달홍 作)〉에 따른 닭의 오덕(五德), 문(文) · 무(武) · 용(勇) · 인(仁) · 신(信)을 조명하는 내용으로 꾸려진다. 총 3부로 △1부 서쪽을 지키다 △2부 오덕(五德)을 품다 △3부 일상을 함께하다로 구성된다. 휴관일 없음. (02)3704-3170

한국만화박물관은 1월 30일까지 4층 카툰갤러리서 송구영신 카툰전 '꼭끼오'를 진행한다. 정유년을 맞아 닭을 소재로 한 유머러스하고 풍자적인 연하엽서 카툰작 50점을 전시한다. 강대영 · 김건 · 김마정 · 김정겸 외 25명 카툰작가들이 참여했다.

한국만화박물관 측은 "새벽을 알리는 상서로운 닭은 동물 중에서도 지혜롭고 신통한 능력을 지닌다. 인간에게 무척 이로운 동물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면서 "닭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유머와 풍자의 총아인 카툰으로 표현돼 독자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032)310-3090~1

특별한 닭 그림을 만나고 싶다면 서울 종로구 **장은선갤러리**로 가보자. 장은선갤러리는 1월 14일까지 한상윤 작가 초대전 '복닥福닭展'을 진행한다. 한상균 작가는 이번 전시서 닭을 수묵채색으로 표현한 작품 20여점을 소개한다. (02)730-3553

여주박물관도 3월 31일까지 신관 1층 로비 전시홀에 특별전 '새벽을 여는 닭'을 마련했다. 이번 전시는 조선시대 풍속화 · 민속화에 등장하는 닭 그림부터 현대작가들의 닭 관련 민화 · 자수 · 서예 작품까지 시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법화경 변상도

정유년 새해, 환희의 금빛 사경 속으로…

불일미술관, 신년특별전 '허락 금사경'
1월 2~15일 화엄경 등 100여점 출품

법련사 불일미술관이 정유년 새해 첫 문을 환희의 금빛 사경으로 장식한다.

법련사 불일미술관은 1월 2~15일 관내 2관서 신년 특별전 '허락 금사경'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서는 대방광불화엄경 · 금강경 · 지장경 · 법화경 등 허락 작가의 금사경 100여점이 출품돼 관람객들에게 장엄한 화엄세계를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허락 작가는 각 경전마다 부처님이 설법하는 장면을 그린 변상도를 함께 담아냈다. 변상도는 팔만대장경 변상도를 모본으로 작가의 창작성을 가미해 개작한 것이다.

허락 작가는 "팔만대장경판의 변상도는 더 이상 탁본할 수도 없으며, 그 상태가 매우 거친 편"이라며 "손상이 많이 된 팔만대장경 변상도를 모본으로 상세하게 개작,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는 작품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경(寫經)은 불교 경전을 옮겨 쓴 것으로, 1700여년 역사의 문화예술이다. 고려시대 금사경은 중국, 일본 등서 사신을 보내 배워가거나 제작을 의뢰할 정도로 뛰어났다. 그러나 조선시대 숭유억불정책으로 인해 그 기법이 대부분 사라지거나 소실됐다. 현재는 금사경 제작 기법 관련 문헌이나 계승자도 거의 단절된 상태다.

이에 안타까움을 느낀 허락 작가는 금사경 복원을 자신의 서원으로 삼았다. 감지(紺紙)와 금가루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2002년 1월 대장경 사경작업에 본격 착수, 현재까지 △화엄경 절첩본 81권 2번 사성 △법화경 7권 7번 사성 △지장경 2권 5회 사성 △금강경 약 5,200자 80여회 사성 등 꾸준한 작품 활동을 펼쳤다.

특히 허락 작가는 매일 아침 6시 예불을 올린 후 하루 10~12시간에 걸쳐 1800~1900자를 사경해 불교 5대 경전을 금사경으로 복원하기에 이르렀다. 사경이 단순히 글자를 베끼는 것이 아닌, 창조적 예술의 세계이자 깊은 수행임을 몸소 드러낸 대목이다.



자신의 사경작품 앞에서 설명하는 허락 작가.

6년 걸쳐 완성한 대방광불화엄경 등
매일 아침 예불 후 10~12시간 사경
각 경전마다 변상도도 함께 그려
한지도 특수제작… 표면처리까지 심혈

특히 허락 작가는 6년에 걸쳐 완성한 대방광불화엄경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라 소개하며 "한 권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직 한 자루 붓만 사용하려 노력한다. 중간에 붓을 바꿀 경우 농담 및 글자 굵기 등이 바뀌기 때문"이라 말했다. 대방광불화엄경 사경은 총 81권으로 글자 수만 59만7,081자다.

또한 허락 작가는 글자 뿐 아니라 종이에도 공을 들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습기 · 바람 등에 취약한 한지의 특성을 고려, 3겹을 겹쳐 특수 제작해 표면처리까지 더했다.

불일미술관 측은 "현담 허락 작가의 전시를 통해 전통문화유산인 사경의 보급과 연구가 확대될 수 있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금사경의 감동으로 정유년 새해에 금빛 찬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허락 작가는 1947년 충북 괴산 출생으로 한국해양대 기관학과를 졸업했다. 과거 통도사 소장 금자 대방광불화엄경 제46권을 발견한 후 금자장경에 전율을 느끼고 금사경 복원 작업에 매진해 왔다.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최우수상, 문화재청장상 등 수상한 바 있으며, 2011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사경전 및 대장경천년세계축제 금사경에 초대출품했다.

박아름 기자

좋은 벗 풍경소리, 창작곡 43집 발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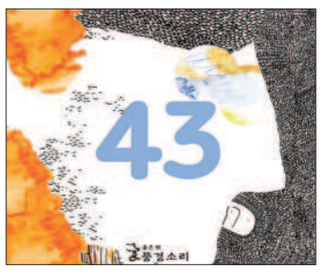
'우리 스님 겨울나기' 등 9곡 수록

좋은 벗 풍경소리(이하 풍경소리)가 찬불동요 창작곡 43번째 앨범을 발표했다.

이번 앨범에는 김남삼 씨의 '우리 스님 겨울나기(2015년 BBS불교방송 어린이 · 청소년 창작동요제 대상)'를 비롯해 불교계 신인 작곡가 강은영 씨의 '부처님 되자' 등 9곡 노래 및 반주음악이 포함됐다.

특히 수록곡 중 7번 트랙의 '불꽃놀이'는 아빠 정유탁 씨가 작곡하고, 아들 정다겸 군이 작사와 노래를 맡아 세대를 계승해 함께 했단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한편 풍경소리 찬불동요 창작곡집은 1996년 1집 발표를 시작으로 매년 2장씩 여름 · 겨울 불교학교를 기점으로 발표해왔다. 이 음반은 전국 단위 연수회 및 강습회 교재, 어린이법회 및 불교학교 찬불가 교재 등으로 활용돼왔다. (02)723-9836



풍경소리 43집 자켓.

박아름 기자

오방색과 농묵으로 통도사를 그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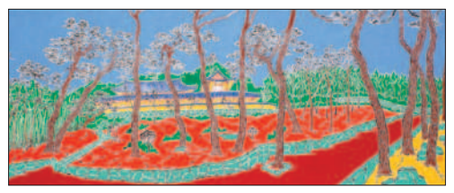
통도사성보박물관, 1월 10일~2월 27일

오방색이 뿜어내는 강렬함과 농묵의 중후한 느낌이 한 폭 풍경화에 담긴다.

통도사성보박물관은 1월 10일~2월 27일 2층 기획전시실서 김명수 작가 개인전 '원색으로 담는 풍경'을 실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사찰 단청에 사용되는 오방색과 농묵이 한 데 어우러진 작품들이 소개된다.

사찰 풍경을 담은 작품에 독특한 화풍을 구축해 온 김명수 작가는 이번 기획전서 통도사 곳곳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담아낸 풍경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김 작가의 신작도 함께 전시된다.

김명수 작가는 2012년 10월 서울 'Gallary is'서 'Kim myoung soo Solo Exhibition', 2014년 4월 경주 시청갤러리서 초대 개인전, 2015년 5월 포항 갤러리 해와달서 초대전 등 7회 개인전을 연 바 있다. 현재 동국대 미술학부서 강사로 활동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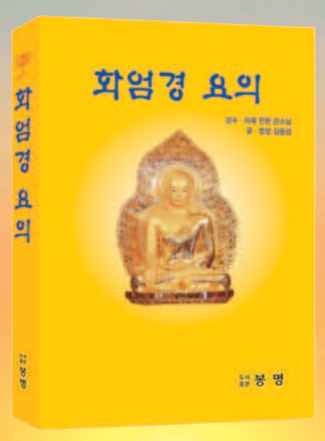


자장암 가는 길. 59×170.

박아름 기자

한권으로 완성된 '화엄경 요의'

- 드디어 2600년 동안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장엄한 부처님세계의 비밀이 드러나다.
- 대승경전의 꽃인 《화엄경》의 핵(核)을 파헤치다.
- 영원한 행복의 길을 제시한 부처님의 메시지를 전하다.
- 부처님의 절대성과 화엄세계관을 비롯한 《화엄경》의 진수(眞髓)를 현대물리학적으로 논증하다.
- 연화장세계를 정점으로 우리 우주를 넘어서 온 우주법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화엄경 요의'가 인류에게 주는 메시지

- 부처님은 '비로소 최초로 불신(佛身)을 갖춘 최초불(始成正覺)'이시다.
- 부처님은 우주법계를 포섭하시는 우주 주(The Lord of the universe) 절대자이시다.
- 《화엄경》에서 보이는 부처님의 우주적위신력은 진실이다.
- 부처님에 대한 신심을 내어 보살도를 성만, 무아를 완성하여 불신(佛身)을 갖춘 '붓다가 되라'는 것이 '화엄경의 요의'다.

근간서적
세계종교를 신불교 영산불교의 우주적 관점에서 본 비교종교학

감수 · 자재 만현 큰스님
글 · 법장 김중섭

불서총판 운주사 TEL 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대형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430쪽 | 특별가 25,000원

日불교에 숨겨진 매력 만나보실래요?



'간사이 아줌마'의 일본사찰 엿보기
① 연재를 시작하며

내가 남편 일로 서울에 살다가 일본에 돌아온 후, 즐기는 일 가운데 하나가 일본을 방문한 한국 친구들과 함께 간사이(關西, 관서) 지방에서 사찰과 박물관을 답사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한국인 친구와 교류할 수 있어서 참 좋다.

나는 2011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3년간 서울에서 살았다. 그 기간에 서울로 이사하기 전에는 미처 몰랐던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맛있는 한식을 비롯하여 전통 공예품, 조선시대의 회화,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산책로…. 특히 내가 즐기던 것이 부처님 오신 날과 연등회 등 불교와 관련된 화려하고 장엄(莊嚴)한 행사였다. 일본에 귀국한 후에도 이런 불교 봉축행사가 있는 기간에 맞춰서 한국으로 여행을 자주 가고 있다.

한국에 있었을 때 특별한 행사가 없더라도 사찰에 자주 가봤다. 사찰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힐링이 되는 느낌이 있었다. 이 점은 일본에 돌아가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으로 이주하기 전에 도쿄에 거주했던 나는 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간사이 지방에 오랫동안 살다가 도쿄로 이사한 후, 간사이 지방으로 오랜만에 여행을 가봤더니 도쿄 생활에서 스트레스가 쌓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간사이 지방에는 사찰이 많아서 사찰을 자주 찾았던 것이 나에게 힐링이었던 것이다. 사찰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경치는 물론이고 맑은 공기, 그리고 부처님의 평화롭고 고운 얼굴. 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도쿄는 현대적이면서 멋진 것이 많지만 역사성이 적은 점이 나에게는 스트레스가 쌓이는 원인이었던 것이다.

2014년 3월에 서울 생활을 마치고 오사카로 이사했다. 내가 사랑하는 간사이 생활로 다시 돌아왔다. 사찰이나 미술관을 찾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나는 간사이 지방 답사를 다시 시작했다. 그랬더니 한국인과의 깊은 인연을 간사이 지방에서 절실하게 느끼는 일이 생겼다. 이것이 연재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남이었다.

어느 날 교토에 있는 고려미술관(高麗美術館)에 갔을 때의 일이다. 이번에 연재 제안을 해주신 영화 〈정조문의 항아리〉를 만들었던 최선일 박사와 우연히 만났다. 그 때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뭔가 공통적인 것,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있어 친근한 느낌이 들었다. 이후 최 박사가 오사카에 오실 때마다 뵙고 박사의 가족이나 친척들 그리고 동료나 후배도 만나고 그 분들이 다 나의 친구가 되었다. 사찰이나 문화재가 맺어준 깊은 인연이라고 하면 될까.

내가 사랑하는 이 친구들이 일본에서 같이 답사할 때의 빛나는 얼굴, 즐겁게 여기저기 다니는 모습을 보면 나의 마음도 따뜻해지고 행복해진다. 이 행복함을 더 많은 한국 분들과 나누고 싶어 이번 연재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일본에 돌아온 후 재미있는 현상이 생겼다. 한국에 있었던 기간에 요우커(중국인 관광객)를 비롯하여 외국인 방한객이 크게 늘어났는데 일본에서도 똑같은 일을 보게 됐다. 오사카 도톤보리(道頓堀)나 교토 아라시야마(嵐山), 후시미이나리다이샤(伏見稻荷大社) 등 많은 곳에서 외국인이 일본인을 둘러싸는 현상. 외국인이 많지만 일본인이 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다. 외국인이 늘어나는 것을 싫어하는 일본인도 있지만 나는 외국인 방문객을 환영한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즐겁게 재미있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나도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데 내가 외국인 관광객을 관찰하면서 알게 된 경향이 있다. 일부분 관광지에 집중하는 것이다. 교토의 사찰이 기요미즈데라(　]水寺)와 킨카쿠지(金閣寺) 밖에 없나? 나라의 사찰이 도다이지(東大寺) 뿐인가? 물론 일본의 대표적인 사찰이고 필수 방문지라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좋은 곳이 더 있는데 알려지지 않아서 참 아쉽다.

다행히 내가 간사이 지방의 사찰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게다가 24회라는 많은 횟수다. 그래서 나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소개할 사찰을 고르기 시작했다.

먼저 내가 주저 없이 선택한 사찰이 아래와 같다. 나라 지역은 아스카데라(飛鳥寺), 호류지(法隆寺), 야쿠시지(藥師寺), 도쇼다이지(唐招提寺), 고후쿠지(興福寺), 도다이지(東大寺)이고, 교토 지역은 고류지(廣隆寺), 도지(東寺), 기요미즈데라(　]水寺), 킨카쿠지(金閣寺), 긴카쿠지(銀閣寺)이며, 오사카 지역은 시텐노지(四天王寺)이다. 그리고 최 박사와 같이 가던 나라의 다이마데라(當麻寺), 교토의 뵤도인(平等院)도 골랐다.



교토 도지(東寺) 오층탑의 모습. 가을 단풍과 어우러진 탑의 자태가 아름답다.



한국인에게도 잘 알려진 나라 도다이지(東大寺)의 대불.



시가현의 고겐지(向源寺)의 도록과 지도.

남편과 함께 3년간의 서울 생활
韓사찰은 나에게 위로를 건넸다
간사이, 한국과 깊은 인연 느껴져

교토·나라부터 시가현 사찰까지
日불교 행사·인근 먹거리 소개

그런데 이 정도를 뽑아낸 다음에는 즐거운 작업이었던 사찰 고르기가 고민으로 바뀌었다. 소개할 만한 사찰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였다. 가이류오지(海龍王寺), 홋케지(法華寺), 기코지(喜光寺)등 규모는 크지 않아도 추천하고 싶은 사찰이 많아서 곤란했다. 나는 노트에 사찰의 이름을 줄줄이 적고 자료도 찾아가며 고심한 끝에 소개할 사찰을 뽑아냈다.

나라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했다. 아스카데라(飛鳥寺), 호류지(法隆寺), 야쿠시지(藥師寺), 도쇼다이지(唐招提寺), 다이마데라(當麻寺), 고후쿠지(興福寺), 하세데라(長谷寺), 무로지(室生寺), 도다이지(東大寺), 조고손시지(朝護孫子寺)와 호잔지(玉山寺) 등이다.

조고손시지, 무로지는 일본에서는 유명한 사찰이지만, 외국인에게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소개하자고 했다. 특히 장곡사는 벚꽃이나 모란 등 꽃으로 유명한 사찰이고 내가 가끔 찾아가는 곳이다. 조호손자사, 보산사는 일본 다른 지역에서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간사이 지방에서는 각광받을 정도로 인기가 있고 조망도 좋아서 아주 매력적인 사찰이다. 이외에도 나라에는 기품 있는 사찰이 많아서 앞으로 여력이 된다면 대표적인 큰 사찰 소개에 덧붙여 소개하고 싶다.

나라에 비해 교토의 사찰을 선택하고 결정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선종(禪宗) 사찰이 대다수 위치한 교토는 가볼만한 큰 규모의 사찰도 많아서 가능하다면 대표적인 곳을 모두 소개하고 싶었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몇 곳만 골랐다. 그리고 특정 일부지역으로만 국한시키지 않고자 사찰의 특색도 고려하여 다양하게 선택했다.

교토는 고류지(廣隆寺)를 시작으로 도지(東寺), 기요미즈데라(清水寺), 닌나지(仁和寺), 조루리지(淨瑠璃寺)와 간센지(岩船寺), 뵤도인(平等院), 고잔지(高山寺), 도후쿠지(東福寺), 텐류지(天龍寺), 킨카쿠지(金閣寺)와 료안지(龍安寺), 긴카쿠지(銀閣寺)와 난젠지(南禪寺)를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 사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사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거나 또는 답사를 다녀간 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조루리지, 간센지가 있는 미나미야마시로(南山城, 남산성) 지역은 석불도 많고 정말 매력적인 지역이지만 교통이 불편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런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아 발길이 뜸한 지역이다. 이번에 내가 꼭 소개하고 싶은 명소이다.

간사이 지방의 사찰이 나라와 교토에만 있는 게 아니다. 외국인에게 인기가 많은 오사카에는 시텐노지(四天王寺)가 있다. 사천왕사는 아스카사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본격적인 사찰로서 최고(最古)의 사찰이다.

그리고 내가 힘을 들여 추천하고 싶은 것이 시가(滋賀)에 있는 사찰이다. 교토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시가는 좋은 사찰이 많다. 소개할 시가 사찰을 이렇게 정했다. 햐쿠사이지(百濟寺)와 이시도지(石塔寺), 미이데라(三井寺)와 이시야마데라(石山寺), 엔랴쿠지(延曆寺), 고겐지(向源寺) 등이다. 엔랴쿠지, 미이데라, 이시야마데라 세 곳 모두 일본에서 유명한 사찰이다. 엔랴쿠지는 산 속에 있어 찾아가는 데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빼놓을 수 없는 사찰이라 선택했다. 미이데라, 이시야마데라는 대중교통으로 편하게 갈 수 있고 일본에서 제일 큰 비와코(琵琶湖, 비파호) 가까이에 자리하고 있어 조망도 좋은 곳이다. 그리고 시가는 도래인과의 유래가 있는 사찰이 많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햐쿠사이지와 이시도지를 소개하겠다. 연재의 마지막 순서인 고겐지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국보(國寶) 십일면관음보살상이 봉안되어 있는 사찰이다.

이상은 내가 소개하려고 하는 사찰이다. 소개하고 싶은 사찰이 더 많이 있지만 이번 연재에서는 깊은 산 속에 있어서 찾아가기가 어려운 곳보다 쉽고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을 우선으로 했다.

일본 사찰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도 매력적이다. 특히 내가 좋아하는 것은 도다이지 대불전(大佛殿)의 관상창(觀相窓)이 열리는 날이다. 1년에 2번 열리는 그 날은 대불의 얼굴을 밖에서 배례할 수 있어 정말 감동적이다. 이 날이 다가오면 가슴이 설렘으로 두근거린다. 그리고 사찰에서 예쁜 꽃을 관상하는 것도 아주 좋다. 사찰 주변에는 매력적인 산책로도 많다. 나는 이 연재에서 재미있는 행사나 예쁜 꽃이 피어나는 계절의 명소, 그리고 산책로까지 간사이 구석구석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겠다. 물론 맛있는 먹을거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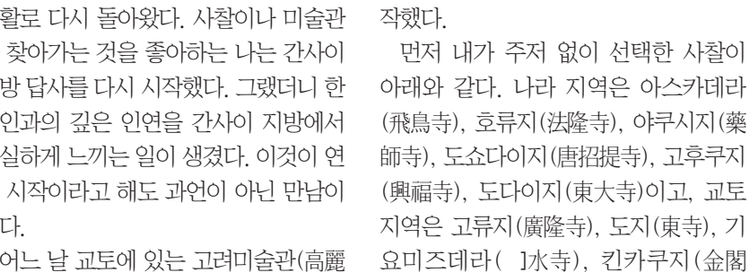
어떤 한국 분이 이렇게 말했다. 기요미즈데라에 갔을 때 하필이면 비가 왔는데 비에 젖은 잎이 정말 아름다워 감동했다고.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도 감동을 받았다. 한국과 일본은 미(美)에 대한 감각이 비슷하다.

이 연재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 간에 사람들이 서로를 더 깊이, 더 재미있게, 더 즐겁게, 이해하고 교류할 계기가 되면 좋겠다. 유익한 연재가 될 수 있도록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저자 나카노 요코는
1962년생으로 지바현(千葉縣)출신이다. 사이타마대학에서 중국문화를 전공하고, 전문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를 지냈다. 2011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신문사 특파원인 남편과 함께 서울에서 생활했다. 이때 경험을 담은 책을 출판하기도 했다. 현재 자유기고가로 활동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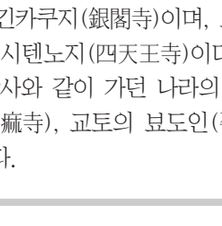
감수: 홍은미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연구부장
(동국대 미술사학과 박사 수료)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 대북



◀ 태징



◀ 2자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 고 제 작
www.yangjikukak.com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용수 스님(세첸코리아 대표)

티베트 불교 1분 명상

마음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전부

생각을 굴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언제 이해할까요?

생각을 놓은 깨어있음이 수행의 핵심이라는 것을 언제 이해할까요?

찰나 찰나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전부라는 것을 언제 이해할까요?



그림 · 최주현



황선미(자유기고가)

隨處作主, 내 삶의 주인공은 나

감정, 스스로 조율하는 리듬

다양한 빛을 반사하는 스펙트럼처럼 청소년들이 품은 미래의 꿈은 각양각색이다. 이들의 꿈이 오롯이 만개해 천개의 꽃잎처럼 세상 곳곳에 흩날릴 수 있기를 소망하는 기획 '수처작주, 내 삶의 주인공은 나'. 불안한 미래를 두려워하는 청소년들에게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질풍노도 청소년기

청소년기' 또는 '사춘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바로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질풍노도(疾風怒濤)'란 강한 바람과 성난 파도란 뜻인데, 청소년기의 감정이 어른에 비해 그만큼 격동적이란 표현입니다. 어린이라고 하기에 외모는 이미 성인에 가깝고, 성인으로 보기에 사고와 판단력은 아직 미성숙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엔가 빠져들면 절제를 못해 헤어 나오질 못합니다. 아이돌에 열광하는 일부 극성팬들처럼 말이죠.

신조어 중에 '조공 팬질'이 있습니다. 소국이 대국에 조공을 바치듯 팬들이 아이돌 가수들에게 바치는 선물공세를 말합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의 생일, 데뷔기념일 등 특별한 날에 보내는 선물 중에는 청소년들이 감당하기에 버거운 선물이 많습니다. 조공 팬질은 학교를 결석하고 공연장이나 숙소에서 밤을 새는 청소년에 비하면 양호한 편입니다. 지난해 6월, 일본에서는 자신의 선물을 되돌려 보냈다는 이유로 아이돌 가수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도 있었답니다.

거문고 줄 이야기

부처님이 죽림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한 스님이 쉬지 않고 선정(禪定)을 닦았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쪼개가며 수행을 했지만, 수행은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제자로 쉬지 않고 수행을 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수행에 별다른 진척이 없구나. 다른 도반들이 소멸시켰다는 번뇌를 벗어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서 재가불자로 보시를 행하며 복을 짓는 게 낫지 않을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지혜의 눈으로 이 스님의 마음을 읽으시고, 가까이 있던 다른 스님을 시켜 괴로움에 빠져있던 스님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이 스님이 불려와 자리에 앉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출가를 하기 전에 거문고 연주를 잘 했다고 알고 있다. 그때 거문고는 노랫소리를 따르고, 노랫소리는 거문고를 잘 따랐겠지?"

"네, 그러했나이다. 부처님"

"그럼, 네가 거문고를 탈 때 만약 그 줄을 너무 조여도 그 소리가 사랑스럽고, 즐길만하더냐?"

"아닙니다. 부처님. 줄을 너무 조이면 소리가 잘 나지 않고, 잘못하면 줄이 끊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줄을 너무 느슨하게 했을 때는 어떻더냐?"

"그때도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줄을 너무 늦추거나, 조이지 않고 알맞게 해야 맑고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스님의 대답을 듣고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청소년기 극단 치우치기 쉬워**
> **감정 기복 심할땐 팔정도 추천**
> **게임하듯 마음 안정에 매달리면**
> **어느새 친구와 감정 조율 가능**

"수행 공부도 그렇다. 마음이 고르고 조화롭지 못하면 바른 도를 얻을 수가 없다. 정진을 할 때 너무 조급히 하면 들뜨게 되고, 너무 느슨하면 게으르게 된다. 그러므로 알맞게 해 집착하지도 말고, 방일하지도 말아야 한다."

아함경부 <사문이십억경(沙門二十億經)> 중에서

감정도 조율하기 나름

위의 일화는 부처님께서 수행을 할 때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라는 중도(中道)의 지혜를 담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명심해야 할 가르침입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의 노래를 듣고 시간이 허락할 때 공연을 보는 건 좋지만, 정도가 지나쳐 학업에 방해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누군가를 음해하고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가 범죄를 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청소년기에는 들뜨거나 흥분하기 쉬운데, 이럴 경우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해집니다. 당연히 공부에 방해가 되겠죠. 그 대표적인 예가 스마트폰입니다. 최근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률이 29%를 넘어섰다는 보고입니다. 10명 중 3명이 중독 증세를 보인다는 말입니다. 외롭고 허전해서, 친구들의 따돌림이 걱정돼 SNS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호소도 들립니다. 반면 청소년들 중에는 심한 우울 증세로 기운이 없고, 집중력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롤러코스터처럼 감정기복이 심한 청소년기, 거문고 줄처럼 감정을 적절히 조율해보길 권합니다.

팔정도 배틀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며,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균형 잡힌 생각이 바른 행동을 이끌고, 인생의 기회와 행운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균형 잡힌 생각, 즉 감정의 균형을 잡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팔정도(八正道)입니다. 바르게 보고[正見], 바르게 생각하고[正思, 正思惟], 바르게 말하고[正語], 바르게 행동하고[正業], 바르게 생활하며[正命], 바르게 노력하고[正勤, 正精進], 바르게 깨어있으며[正念], 올바르게 마음을 안정[正定]하는 과정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감정 기복이 심해질 때 마치 배틀게임을 하듯이 팔정도를 응용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친구가 짜증나게 말을 하면 '바르게 말하기' 배틀에 도전합니다. 처음 성공확률이 30%라도 걱정할 건 없어요. 다음에는 높아질 테니까요. 점점 상대의 자극에 반응하는 정도가 낮아질 것입니다. 반대로 팔정도 성공률은 올라가겠죠? 이런 방법으로 스스로를 조율하는 리듬을 배워가야 합니다. 공부를 할 때, 친구와 놀 때, 자신의 감정이 팽팽하지도 느슨하지도 않게 조율해 나간다면 한걸음 성숙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겠죠?

황선미 작가는

동국대학교 국민윤리과 졸업. 계간지 '시와 문화' 통해 등단. 불교계 언론사와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에서 근무한 바 있다. 현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과에서 불교상담심리(박사과정)를 전공하고 있다.



위드클래스

영.수.국.과.사 중등 전과목 e-학습

너도 이제 중학생!
더 이상 엄마가 가르쳐주기에는
좀 벅차네요~
이제부터 위드클래스로...

www.withclass.co.kr



지사및 교육설계사 모집 상담문의 : 010-6701-7709

연락주시면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는 ID와 PW를 드립니다. 010-6223-3000